

선화 상인의 불교의 소개 & 귀의와 오계에 대한 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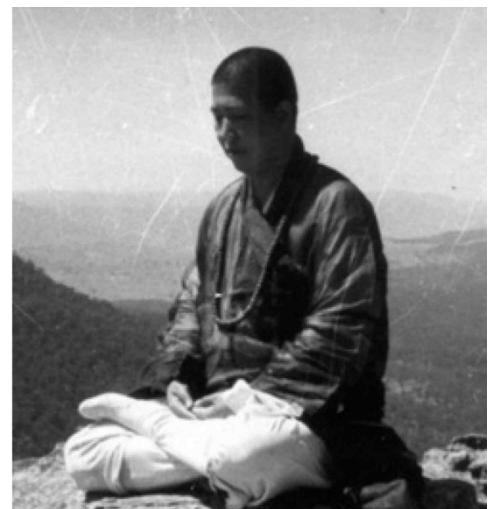
번역: 상욱 스님

편집 및 교정: 현안 스님

도와주신 분: 유경좌



선화 상인 Master Hsuan Hua



Buddhism: A Brief Introduction

불교: 간략한 소개

Based on the Compassionate Teachings of the Venerable Tripitaka

Master Hsuan Hua

삼장법사 선화 상인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by the Faculty of the Developing Virtue Secondary School, Sagely City of
10,000 Buddhas, Talmage, California.

캘리포니아 탈마지 지역, 만불성성의 덕목 중학교의 교사진에 의해

Buddhist Text Translation Society Dharma Realm Buddhist University

Dharma Realm Buddhist Association Burlingame, California U.S.A.

미국 캘리포니아 벌링게임의 불교 문헌 번역회, 법계 불교 대학, 법계불교총회

Unconditional Loving kindness & Compassion 조건없는 자애와 자비

At that time the Thus Come One (the Buddha) by means of his unobstructed pure "eye of wisdom", contemplated all living beings everywhere in the Dharma-realm and said this:

그 당시에 부처님은 장애없는 청정한 "혜안"을 사용하여 법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숙고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mazing! Truly amazing! How it is that all of these living beings are replete with the Thus Come One's wisdom. Yet they are ignorant and confused, and do not know or see it. I should teach them the Holy Path, to cause them to forever separate from false thinking and attachments, so that they will see the Thus Come One's vast wisdom within themselves, which is no different from the Buddha.

놀랍구나! 정말 놀랍구나! 어리석은 중생 모두가 여래의 지혜를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다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은 자신 속에 여래 지혜가 있음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구나! 여래는 중생을 진리로 가르쳐서 반드시 여래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거룩한 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리라.

At that time he taught these living beings to cultivate the Holy Path, and caused them to be apart from false thinking. After they separated from false thinking they realized the Thus Come One's measureless wisdom. Thus he benefited and brought peace and happiness to all living beings. 그 때에 그는 이 중생들에게 성스러운 길의 수행에 대해 가르쳐서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난 후에 여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였고 중생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Words spoken by the Buddha upon his Complete Enlightenment as recorded in the Manifestations of the Thus Come One, Chapter 37, Flower Adornment Sutra)

(화엄경 37장 여래출현품에 나타난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룬 후 설한 말씀입니다)

Contents

목차

Preface

서분

Introduction

들어가며

PART I

1부

The Teachings of Buddhism

불교의 가르침

Chapter One Suffering: The Problem of Existence

1장 고통: 존재의 문제

Chapter Two The Cause of Suffering: Ignorance and Karma

2장 고통의 원인: 무지와 업

Chapter Three The Path to the Cessation of Suffering: Practicing the Dharma

3장 고통을 소멸하는 길: 법의 수행

Chapter Four The Cessation of Suffering: The Realm of the Buddha

4장 고통의 소멸: 법계

Chapter Five Sangha, the Third Jewel

5장 승가, 삼보

PART II

2부

The Schools of Buddhist Practice: An Interview with the Venerable Master Hsuan Hua

불교 수행의 종파: 선화 선인의 인터뷰

Chapter Six The Chan School

6장 선종

Chapter Seven The Pure Land School

7장 정토종

Chapter Eight The Secret School

8장 밀종

APPENDICES

부록

Appendix I

부록 1

Chart of Samsara

삼사라의 도표

The Realm of Birth and Death

생사계

Appendix II

부록 2

The Ten Great Practices of All Bodhisattvas

보살의 10대행

The Ideals of the Dharma Realm Buddhist Association

법계불교총회의 이념

Dharma Realm Buddhist Association Branches

법계불교총회 소속 사찰

Index

색인

Preface

서분

Many books have been written to introduce the Buddha's teachings. Why write another one? There are three main reasons for compiling another work of this kind. These reasons also help to define the uniqueness of this book.

이미 시중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다른 책이 필요하나요? 이 책만이 가지는 고유한 세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First, this book relies primarily on translations of source materials, rather than narrative explanations and interpretations of the teachings. Most introductory books on Buddhism are written in the second person and not in the Buddha's own words. Primary source materials such as the Sutras' (discourses by the Buddha or his contemporary disciples) appear infrequently, if at all, in most of the literature. This is understandable, because it makes for easier reading. Somewhat more energy and concentration is required to read original sources, because they tend to be more solemn in tone and rich in meaning. However, reading the Sutras directly yields unexpected treasures. One encounters the actual teaching of the Master unfiltered through someone else's personal views. Therefore, the reader has the freedom to discover his own meanings and draw his own conclusions from the teachings. *Buddhism: A Brief Introduction* tries to let the Buddha speak for himself directly to the reader by way of brief Sutra passages presented in a manner that weaves the entire body of teachings into a coherent whole.

첫째, 이 책은 서술적인 설명과 가르침의 해석보다는 본래 경전 원문의 번역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교 입문서는 부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로 서술되고 경전(부처님이나 그의 제자들의 설법)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이는 독자들이 읽기에 더 쉽기 때문에 이해할만 합니다. 원문은 어조가 더 엄숙하고 의미가 풍부하기 때문에 원문을 읽기 위해서는 다소 더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직접 경전을 읽으면 예상치 못한 보물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에 의해 여과되지 않은 부처님의 실제 가르침을 접합니다. 그러므로 독자는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만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불교: 간략한 소개’에서는 경전의 짧은 구절들을 일관되게 전체적으로 엮음으로써 부처님이 직접 독자에게 설법하게끔 합니다. Second, this small book is distinctive in its attempt to blend the central teachings of the various schools and sects of Buddhism into a unified and cogent philosophy.

둘째로, 이 작은 책은 불교의 다양한 종파의 중심적인 가르침을 통일되고 설득력 있게 조합하였습니다.

Thus the reader is being introduced to the fundamental teachings accepted by all major schools of Buddhism. With the intertwining of the Four Noble Truths, the paramount teaching of the Theravada or Southern Tradition, and the Bodhisattva's Four Magnificent Vows, the essential teaching of the Mahayana or Northern Tradition, a universal Buddhism emerges. This single, unified Buddhism combines the practical wisdom of the Sages with the all encompassing compassion of the Bodhisattvas. The result is a very complete and compelling Buddhism.

따라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불교의 모든 주요 종에서 받아들이는 근본적인 가르침을 접합니다. 사성제나 테라바다 또는 남방 전통의 중요한 가르침, 보살의 사홍서원, 대승 또는 북방 전통의 필수 가르침이 어우러져서 보편적인 불교가 등장합니다. 이 하나의 통일된 불교는 현자들의 실질적인 지혜와 보살들이 지니는 모두를 포용하는 자비를 결합합니다. 그 결과 매우 완전하고 설득력 있는 불교가 탄생하였습니다.

The third special quality of this book is its vitality. The quotations taken directly from source materials convey the spirit and purpose of the Buddha's teaching immediately to the reader. Unfortunately, many modern works on Buddhism, in the name of "scholarly objectivity", treat the Buddha's teachings as an academic discipline such as sociology, anthropology, and other social sciences. Here in the realm of wisdom and

spiritual insight, however, scholarly interpretations are often inadequate and strangely out of place. Extensive linguistic analysis, archaeological finds, and social analysis may lead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ultural context within which the Buddha lived and taught, but they offer us, almost no insight into the profound meaning and abiding truths that continue to pulse through these timeless teachings. And in some ways mere scholarship can often inadvertently "miss the forest for the trees". From the outset of his career, the Buddha explained that his teachings were "only a finger pointing at the moon; not the moon itself". That is, they were a means or way to be cultivated, not a creed to be believed or a dogma to cling to. You must "drink the water yourself, to know whether it is warm or cold" – see for yourself what is true and attain ultimate freedom from suffering. Thus the Buddha said:

이 책의 세 번째 특징은 생동감입니다. 원문을 직접 인용하여 독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정신과 목적을 바로 전합니다. 안타깝게도, 불교에 관한 많은 현대 서적들은 "학문적 객관성"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학, 인류학 혹은 다른 사회과학과 같은 학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여기 지혜와 영적 통찰력의 영역에서, 학문적인 해석은 종종 부적절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광범위한 언어학적 분석, 고고학적 발견, 사회적 분석을 통해 부처님 재세시 가르침의 문화적 맥락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할 수 있지만,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 속에 계속 이어지는 심오한 의미와 불변의 진리에 대한 통찰력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단지 학문만을 통해서는 종종 무심코 "나무로 인해 숲을 놓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처음부터 그의 가르침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지 달 자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그것들은 수행을 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지, 믿을 만한 신조나 매달릴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물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알기 위해서는 직접 마셔봐야 합니다" – 무엇이 진실인지 직접 보고 고통으로부터 궁극적인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Monks, do you not speak that which is known by yourselves, seen by yourselves, discovered by yourselves?

비구들이여, 자신이 알고, 자신이 보고, 자신이 발견한 것을 말하지 않는가?

Yes, Venerable Sir.

그렇습니다.

You, Monks, have been instructed by this Dharma (teaching) which is evident, timeless, inviting one to come and see, leading onwards, and to be personally known by the wise².

너희 비구들은 이 법의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이 가르침은 분명하고, 시대를 초월하며, 사람들이 와서 보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현명한 사람들이 직접 설한 것이니라.

The implication is clear: without actually practicing the teachings it is not possible to fully comprehend them. Mere study cannot compare to actual practice and direct experience. Thus, in the Bodhisattvas Ask For Clarification, Chapter 10, Flower Adornment Sutra, we find this principle stated in the following vivid analogies: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실제로 가르침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그것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은 실제로 수행하고 직접 경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화엄경 6장 보살명난품에서 다음과 같은 생생한 비유로 표현되었습니다.

Like a physician who, though skillful in prescribing medicine, Is unable to cure his own illness; Without practicing the Dharma, Much study is the same way.

온갖 약을 알고 있는 훌륭한 의사일지라도 스스로의 병은 고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법을 수행하지 않고 다만 공부만 하는 자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Like one who counts the wealth of others' But has not a penny of his own. Without practicing the Dharma, Much study is the same way.

또 가난한 사람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남의 보물을 세어도 스스로는 반 푼조차도 갖지 못하는 것과 같이 법을 수행하지 않고 다만 공부만 하는 자도 그와 같습니다.

*Like a person born in a King's palace, Who still suffers hunger and cold;
Without practicing the Dharma, Much study is the same way.*

왕궁에서 태어났지만 여전히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는 사람과 같이 법을 수행하지 않고 다만 공부만 하는 자도 그와 같습니다.

Like a deaf musician playing tunes Others enjoy but he himself does not hear; Without practicing the Dharma, Much study is the same way.

귀머거리 음악가가 곡을 연주함에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그 자신은 듣지 못하는 것 같이 법을 수행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자도 그와 같습니다.

Like a blind artist whose many drawings Are displayed for others, but he himself can never see; Without practicing the Dharma, Much study is the same way.

장님아 그림을 그려 남들에게는 보일지라도 자기 자신은 볼 수 없듯이 법을 수행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자도 그와 같습니다.

Introduction

들어가며

If one wishes to fully understand All Buddhas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ne should contemplate the nature of the Dharma Realm³: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법계의 성품을 관찰지어라.³

Everything is only a creation of the mind.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드느니라.⁴

"Who and what am I?" "Why do I exist?" Each of us, during some part of our life, wonders about these questions. While we are aware of our own being, we don't actually know how or why we came to be. Our existence poses a great mystery. Our views of who we are and why we are here,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affect every moment of our lives. The Buddha was both troubled and fascinated by these questions. He was troubled, in that life unexamined, unsolved seemed meaningless; he was

fascinated, in that the solution to this deep riddle was accessible, within reach, almost beckoning.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왜 나는 존재하는가?」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식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또는 왜 우리가 왔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엄청난 신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누구이고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은 이 질문들에 대해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숙고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삶은 무의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깊은 수수께끼에 대한 해결책에 거의 접근할 수 있음에 매료되었습니다. The teaching of the Buddha, known as the Dharma, grew out of his personal discovery, his awakening to "things as they really are." Indeed, the word Dharma literally translated is "law", meaning the universal laws that govern all of reality. These laws are eternal. A Buddha is merely a human being who discovers these laws of reality and compassionately makes them known for others. Buddhism explains the mystery of existence in a way that we can both understand and not understand. This was for a reason: enlightenment must be directly experienced, not simply explained. Properly taught, it should awaken in us a sense of great wonder; a resolve to seek enlightenment ourselves. The Buddha taught that:

법이라고 알려진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의 개인적 발견, "실제 그대로의 것들"에 대해 깨어남으로써 비롯되었습니다. 실제로, 법은 문자 그대로 "법"이라고 번역되는데, 모든 현실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법을 의미합니다. 이 법들은 영원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현실의 법칙을 발견하고 자비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불교는 존재의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깨달음은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적절하게 가르침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위대한 경이; 스스로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결심을 일깨웁니다. 부처님은 다음을 가르쳤습니다.

1. All of existences is a creation the mind. The true nature of our mind has no particular location in space and no beginning or end in time. It is not born and does not die. The realization of this true nature is known as Nirvana⁵ – something so profound and extraordinary that it cannot be described in words or conceived in thought. It can only be known by direct realization. Because of its profundity, the Buddha spoke of Nirvana in terms of what it is not:

1 모든 존재하는 것은 마음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진성은 우주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도 없고, 시간의 시작이나 끝도 없습니다. 그것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이 진성을 깨닫는 것을 열반⁵(너무 심오하고 특별해서 말로 표현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오직 직접적인 깨달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심오함으로 인해 부처님은 열반이 아닌 것을 통해 열반을 설명했습니다.

There is, Monks, that realm, wherein there is no earth, no water; no fire, no air; no sphere of infinite space, no sphere of infinite consciousness, no sphere of nothingness, no sphere of thought nor lack of thought⁶. There is not this world or a world beyond, or both together, or sun or moon.

This, I say, Monks, has no coming, no going, no staying, no passing away, and no arising without support; without duration and without any basis.

This, indeed, is the end of suffering⁷.

비구들이여, 지수화풍이 없고 공무변·식무변·무소유·비상비비상처⁶도 없다. 이 세계도 아니고 출세간도 아니고 둘 다도 아니고 태양이나 달도 아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나는 이르길 옳고 없고 감도 없고 머뭄도 없고 지나감도 없고 지지, 지속, 기반도 없이 일어남도 없다. 이는 참으로 고통의 끝이다.⁷

2. Because of ignorance we experience our “self” within Samsara⁸, the realm of birth and death. This unreal “self” undergoes limitless suffering. This suffering is perpetuated life after life as long as we thirst for the pleasures of existence in Samsara.

2 무명으로 인해 우리는 생사의 계, 삼사라8에서 “자아”를 경험합니다. 이 실제하지 않은 “자아”는 한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삼사라의 존재의 즐거움에 목말라하는 한 세세생생 계속됩니다.

3. The purpose of the Buddha's teaching is to point the way to the elimination of ignorance that covers over our true nature. Once we have awakened to it, out of great compassion, we strive to help all beings to also awaken to their true nature; to liberate all that lives. Thus, personal enlightenment and universal enlightenment, self and others, become one and the same.

3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우리에게 진성을 덮는 무명을 제거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진성에 깨어나면 우리는 대자비로써 모든 존재들도 진성에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깨달음과 보편적 깨달음, 자아와 타인이 하나이고 동일합니다.

When you can see that the mountains, the rivers, the great earth and all that originates from them, are things within your own inherent nature; that the Three Realms of Existence are only the mind, and that the myriad dharmas are only consciousness; once you attain that state, then everything, every phenomenon is devoid of origination and cessation. Everything you see – the mountains, the rivers, the great earth, the plants are all one true Reality9.

산, 강, 대지와 그것들에서 유래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고유한 본성 안에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을 때, 삼계는 마음일 뿐이고 무수한 법들은 오직 의식일 뿐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그 경계에 도달하면, 모든 현상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산, 강, 대지, 식물 등이 모두 하나의 진실한 실상입니다.9

The Four Noble Truths & The Bodhisattva's Four Magnificent Vows

사성제와 보살의 사홍서원

In the Buddha's teaching, the problem of existence and its solution are precisely expressed in the Four Noble Truths and the corresponding Bodhisattva's Four Magnificent Vows. The Four Noble Truths are best

described by an analogy. The First Truth diagnoses the symptom of an illness and the Second determines its cause. The Third Truth describes the final cure of the disease once the cause has been eliminated, and the Fourth prescribes the medicine or treatment that will bring about the cure. The Four Magnificent Vows extend these same truths beyond oneself to include all living beings. Thus in numerous discourses the Buddha said:

불교의 가르침에서 존재의 문제와 해결책은 사성제와 그에 해당하는 보살의 사홍서원으로 정확하게 표현됩니다. 사성제는 비유로써 가장 잘 설명됩니다. 첫번째 진실은 병의 증상을 진단합니다. 두번째 진실은 원인을 규명합니다. 세번째 진실은 원인이 제거되면 병이 치유됨을 설명합니다. 네번째 진실은 치유하기 위해 약이나 치료법을 처방합니다. 사홍서원은 이 같은 진실을 자신 너머로 확장하여 모든 중생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법에서 부처님은 이르길:

Formerly and now, also, it is just suffering and the cessation of suffering that I teach. 10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가르치는 것은 단지 고통과 고통의 소멸이다. 10

Bodhisattva is a Sanskrit word. It is a compound made up of the two words: bodhi which means "awakened" or "enlightened"; and sattva which means "being". A Bodhisattva is both an "awakened being" and "one who awakens beings". He is one imbued with great wisdom and compassion who simultaneously strives to perfect his own awakening along with his ability to awaken all other living beings. When the Bodhisattva has totally perfected these, he becomes a Buddha, one already perfected in wisdom and compassion.

보살은 산스크리트어로 Bodhisattva라고 합니다. 이것은 "깨어난" 또는 "깨달은"을 의미하는 Bodhi와 "존재"를 의미하는 sattva 두 단어가 조합되었습니다. 보살은 "깨어난 존재"인 동시에 "중생을 깨어나게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는 위대한 지혜와 자비에 물든 사람으로, 다른 모든 중생을 일깨우는 능력을 갖춘 동시에 자신의 각성을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보살이 이것들을 완벽하게 완성하면, 그는 이미 지혜와 자비가 완벽한 부처님이 됩니다.

Part I of Buddhism: A Brief Introduction is divided into chapters on each of the Four Truths and Vows. A final chapter explains the meaning of Sangha. Each chapter begins with passages from the Sutras to illustrate each of the Vows and Truths.

1부는 사성제와 서원에 대한 장으로 구성됩니다. 마지막 장은 승가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각 장은 각각의 서원과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경전의 구절로 시작합니다.

BTTS = a publication by the Buddhist Text Translation Society which is available to the public.

BTTS (the Buddhist Text Translation Society; 불자 문헌 번역회)의 출판물

1 "Sutra" literally means a "string" or "thread". Important words or brief phrases in religious teachings strung together were thus called Sutras by analogy with the string or thread with which a garland of flowers is made. All Buddhist Sutras were transmitted orally for the first three or four hundred years after the Buddha passed into ultimate Nirvana. The teachings were originally taught in the various dialects of the people. In about the second or first century BC the Sutras started to be written down in various Indic-languages. The largest collection of Sutras in the Theravada or Southern Tradition of Buddhism has survived in the Pali language. The Pali Canon consists of five groups of Sutras called Nikayas. The Northern Tradition was originally recorded in Sanskrit and Sanskrit derivative languages. However, a very small fraction of these have survived to this present time in Sanskrit. Fortunately, ancient monks-scholars from India and China began to translate the Sutras of the Northern Tradition into Chinese beginning in approximately the first century AD. Through their work, which lasted for many centuries, the vast majority of Mahayana Sutras have survived in Chinese.

1 "경"은 문자 그대로 "끈" 또는 "실"을 의미합니다. 종교적 가르침의 중요한 단어나 짧은 문구들을 연결한 것을 꽃으로 화환을 만드는 끈이나 실에 비유하여 경전이라고 합니다. 모든 불교 경전은 부처님 열반 직후 3,400년 동안은 구전되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원래 사람들의 다양한 방언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원전 2세기 또는 1세기경에 경전은 다양한 인도어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남방 불교에서는 가장 큰 경전 모음집이 팔리어로 남아 있습니다. 팔리경전은 니까야라고 하는 다섯 개의 경전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방 불교는 원래 산스크리트어와 산스크리트어의 파생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아주 적은 양만이 산스크리트어로 오늘날까지 남아있습니다. 다행히도, 인도와 중국의 고대 학자 스님들은 대략 서기 1세기부터 북방 불교의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지속된 그들의 작업을 통해, 대부분의 대승 경전들은 한문으로 남아있습니다.

2 *Majjhima Nikaya* / 265

2 맛지마 니까야

3 "Dharma Realm" is a special term in Buddhism which most closely corresponds to the meaning of "reality". "Dharma" has three basic meanings. (1) "Law", which refers to the Buddha's teaching in which he reveals the universal laws or truths that govern all of reality. In this sense of the Buddha's teachings, it especially refers to the spiritual practices he taught. (2) "Duty" refers specifically to one's duty in life in accordance with one's station, or it can mean one's religious or spiritual duty. (3) a "thing" or "phenomenon" in the broadest sense. The Dharma Realm is the totality of the realm of all beings and states and the complex ways in which they interact and interpenetrate. It is the whole limitless universe. The nature of the Dharma Realm is the true mind of all living beings. Our mind pervades the entire Dharma Realm, and the Dharma Realm is not apart from our true mind.

3 "법계"는 "실상"의 의미를 가장 근접하게 표현하는 특별한 불교 용어입니다. '법'에는 세 가지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 법칙입니다. 모든 실상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법이나 진리를 밝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히 그가 가르친 영적 수행을 지칭합니다, (2) '의무'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신분에 따른 삶의 의무를 가리키거나, 종교적 또는 영적 의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3) 가장 넓은 의미에서 '사물' 또는 '현상'입니다. 법계는 모든 존재와 경계의 영역과 그들이 상호작용하고 상호관통하는 복잡한 방식의 총체입니다. 그것은 전체의 무한한 우주입니다. 법계의 본성은 모든 중생의 참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법계 전체에 퍼져 있고, 법계는 우리의 진심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4 *Praises in the Suyama Heaven, Chapter 20, Flower Adornment Sutra.*

4 화엄경 20장 불승야마천궁계선품입니다.

5 nir means "not" and vana is literally "effort of blowing". The origin of the word probably refers to a smith's fire, which "goes out" or "becomes extinguished" if no longer blown on by the bellows. A frequent simile is that of a lamp's ceasing through exhaustion of wick and oil. The ancient translators of Sanskrit Sutras into Chinese interpreted Nirvana to mean "without origination or destruction".

5 Nir은 부정을 의미하고 vana는 문자 그대로 "부는 노력"입니다. 이 단어의 기원은 아마도 풀무에 의해 더 이상 바람이 불지 않으면 "꺼지는" 대장장이의 불에서 유래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는 심지와 기름이 고갈되어 불이 꺼지는 등입니다. 산스크리트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한 고대 번역가들은 열반을 "생함도 무너짐도 없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6 These last four spheres are the four heavens in the Formless Realm. Refer to Appendix 1: A chart of Samsara (the Realm of Birth and Death).

6 무색계의 4가지 천입니다. 부록 1: 삼사라 표(생사의 영역)를 참조하십시오.

7 *Udana, Pataligamiya Vagga, Sutra No. 1.*

7 우다나, 파탈리가미야 바가, 경전 1번입니다.

8 Refer to Appendix I: A Chart of Samsara (the Realm of Birth and Death).

8 부록 I: 삼사라 표(생사의 영역)를 참조하십시오.

9 Venerable High Master Hsuan Hua's commentary to the Shurangama Sutra, Volume 1, BTTS.

9 능엄경 1권 BTTS에 대한 선화 상인의 해설입니다.

10 *Maha-Parinirvana Sutra of the Pali Canon.*

10 팔리경의 대열반경입니다.

PART I

The Teachings of Buddhism

1부

불교의 가르침

Chapter One

Suffering: The Problem of Existence

First Magnificent Vow of the Bodhisattva: I vow to rescue the boundless living beings from suffering.

1장

고통: 존재의 문제

보살의 첫 번째 큰 서원: 한없는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오리다.

The Buddha toils through eons for the sake of living beings

Cultivating limitless, oceanic, great compassion.

To comply with living beings, he enters birth and death,

Transforming the multitudes everywhere, so they become pure1.

부처님이 지난 겁에 중생을 위하여.

끝없이 큰 자비의 바다를 닦아서.

모든 중생을 따라 생사에 들어가.

회중들을 널리 교화하여 청정하게 하네. 1

This vow corresponds to the Noble Truth of Suffering.

이 서원은 사성제와 일치합니다.

What, Bhikshus, is the Noble Truth of Suffering? Birth is suffering; old age is suffering; sickness is suffering; death is suffering; sorrow, lamentation, pain, grief, and despair are suffering; to be together with what or those you hate is suffering; to be separated from what or those you love is suffering; not to obtain what you wish for is suffering; in general, identification with the Five Constituents of Existence (physical

form, feelings, thoughts, volitional formations, and consciousness) is suffering2.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苦聖諦]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늙음도 괴로움이요, 죽음도 괴로움이다.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좋아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요,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데 오취온(五取蘊)이 바로 괴로움이다2.

The Truth of Suffering should be understood.

고통의 진실은 이해되어야 합니다.

To mention the "problem" of existence already implies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life as we experience it. What is the problem? The Buddha's own life provides an insight.

존재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는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처님의 삶을 통해 통찰할 수 있습니다.

The Buddha, Shakyamuni, whose name means "Sage of the Shakya clan," was born about 2500 years ago in Kapilavastu, India. His father was a ruler of one of the many kingdoms comprising India at that time. Upon his birth, seers predicted his son would either become a great world-ruling monarch or would renounce the mundane life to become a fully enlightened sage, a Buddha, who would teach countless living beings to find a genuine happiness that transcends the world.

석가모니 부처님은 2500년 전 인도 카필라바스투에서 태어났습니다.

석가모니라는 이름은 석가 족의 성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당시 인도의 많은 왕국 중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탄생할 때 점성가는 그의 아들이 위대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거나 세속을 떠나 완전히 깨달은 성자 부처님이 되어 중생들이 출세간의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무수한 중생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The king, fearing his son might renounce the throne, took special precautions in his son's upbringing to prevent him from observing the sufferings of the world. His son, the prince, continuously enjoyed the

myriad pleasures of life and did not come into contact with any of its pains. Through his youth the Buddha-to-be enjoyed separate palaces for each season. It is that he never even left the palace grounds. Thus the prince's experience of life resembled a heaven on earth.

왕은 아들이 왕좌를 포기할까 두려워 그가 자라면서 세상의 고통을 보지 못하도록 특별히 주의했습니다. 왕자는 삶의 무수한 즐거움을 계속 즐겼으며, 고통을 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 계절마다 각각 다른 궁궐을 즐겼습니다. 그는 결코 궁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왕자의 삶은 지상의 천국과 같았습니다.

At nineteen the prince asked his father if he could take his first excursion outside the palace grounds. The king reluctantly consented but made sure that along the highway his son would encounter no one maimed, aged, or sick.

왕자는 19세가 되자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궁전 밖으로의 외출을 요청했습니다. 왕은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의 아들이 길에서 장애가 있거나 늙거나 아픈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확실히 했습니다.

The prince, however, on his first excursion outside the palace grounds had the following experiences:

하지만 왕자는 궁전 밖으로 나간 첫번째 외출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Old Age

노화

At that time the king of the Pure Abodes Heaven³ suddenly appeared at the side of the road transfigured as an old, decrepit man in order to stir repugnance in the prince's heart. The prince saw the old man and was startled. He asked his charioteer, "What kind of person is this with white hair and bent-back? His eyes are dim; his body wobbles. He leans on a cane and walks feebly. Has his body changed unexpectedly, or is this just the way things are naturally?

그때 갑자기 정거천(淨居天)의 왕이 왕자의 마음에 염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늙고 노쇠한 사람으로 화하고 길가에 나타났습니다. 왕자는 노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그의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백발에 등이 굽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눈은 침침하고, 그의 몸은 흔들리네. 그는 지팡이에 기대어 힘없이 걷네. 그의 몸이 예기치 않게 변한 것인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한 것인가?" The charioteer's mind wavered. He dared not answer true. Then the god from the Pure Abodes Heaven, with his spiritual powers, caused him to speak truly. "His form's decayed; his energy almost gone. Much distress and little happiness mark his life. Forgetful now, his sense faculties are wasted. These are the attributes of old age. Originally he was a suckling child, long-nurtured at his mother's breast. Then as a youth he cavorted and played about handsome, unrestrained, enjoying sense desires. However, as the years went by, his body withered and decayed. Now old age has brought him to ruin."

마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감히 진실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정거천에서 내려온 신이 그의 신력으로 그가 진실한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의 몸은 쇠했고, 그의 힘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이 많고 행복은 적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노년의 속성입니다. 원래 그는 젖먹이 아이였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오랫동안 양육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젊은이로 잘생기고, 구속받지 않고, 감각적인 욕망을 즐기면서 놀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몸은 시들고 부패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그는 무너집니다.

The prince heaved a long sigh, and then asked the charioteer, "Is he the only one who has become decrepit and old, or will we all like this become?"

왕자는 긴 한숨을 내쉬고 나서,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노쇠하고 늙어 버린 것인가, 아니면 우리 모두 이렇게 되는 것인가?"

The charioteer answered him again, "This lot in life alike awaits the Venerable One. As time goes on your body will naturally decay. This certainly, without doubt, will come to pass. All those young and energetic, will grow old. This, all in the world know, yet still they seek for pleasure."

마부가 다시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인생의 이 많은 것들이 똑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봄은 자연스럽게 부패할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반드시 겪을 것입니다. 젊고 활기찬 사람들은 모두 늙을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The Bodhisattva had long cultivated the karma of purity and wisdom, and widely planted the roots of every virtue. The fruits of his vows were now blossoming. Hearing these words on the suffering of old age, he shivered; his hair stood on end. Like a terrified herd of animals flees the bolt of a thunder clap, the Bodhisattva in the same way trembled with fear, as he deeply sighed and contemplated the suffering of old age.

보살은 오래 전부터 청정과 지혜의 업을 수행하였고, 모든 덕의 뿌리를 널리 심었습니다. 그의 서원의 결실은 이제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고통에 대한 이 말을 듣고, 그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곤두섰습니다. 겁에 질린 짐승떼가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며 날아가는 것처럼 보살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노년의 고통을 사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He shook his head and steadily gazed pondering the agony of old age. "How can people find delight in the pleasures of the world when old age brings it all to ruin? It affects everyone; none escape it. For a time the body may be robust and strong, but everything's subject to change. Now my own eyes behold the truth of old age, how can I not be disgusted and wish to leave it?"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노년의 고통을 곰곰이 생각하며 꾸준히 응시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이 다 망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아무도 피해갈 수 없네. 한동안은 몸이 강하고 튼튼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은 변하기 쉽네. 이제 내 눈은 노년의 진실을 보고 있구나. 어떻게 염증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떠나고 싶지 않을 수 있는가?”

The Bodhisattva told the charioteer, "Quickly turn the chariot around and go back. Unable to forget that old age will call for me, what happiness could I find in these gardens and groves?" Obeying the command, he drove as fast as the wind, and quickly returned to the palace.

보살은 마부에게 "빨리 마차를 돌려 돌아가자. 노년이 나를 부를 것이라는 것을 잊지 못하고, 이 정원들과 숲에서 내가 어떤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 명에 따라, 마부는 바람처럼 빠르게 마차를 몰고, 급히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The prince mulled over the experience of old age. The palace felt like a desolate graveyard. Everything he touched left him numb and cold. His heart could find no peace. The king heard that his son was unhappy, so he urged him to take another excursion. He ordered all of his officers to make everything more resplendent than before.

왕자는 노년의 경험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궁전은 황량한 묘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만진 모든 것에 그는 무감각하고 냉담하였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왕은 그의 아들이 불행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다시 한번 외출을 권했습니다. 그는 모든 관료들에게 모든 것을 이전보다 더 화려하게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Sickness

질병

The god again transformed himself, this time as a sick person, barely holding on to his life at the side of the road. With a gaunt body and bloated stomach, slow, asthmatic breath, stooped with withered hands and legs, he sorrowfully wept and moaned.

신은 이번에는 병든 사람으로 다시 변신하여 길가에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척한 몸에 배가 더부룩하고, 느리고, 천식이 있는 숨을 쉬며, 마른 손과 다리로 몸을 구부린 그는 슬프게 울면서 신음했습니다.

The prince asked the charioteer, "What kind of person is this?" The charioteer answered, "This is a sick person. The four great elements composing his body are completely out of balance. Emaciated and weak he is unable to do much of anything. Tossing back and forth, he has to rely on others."

왕자는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부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픈 사람입니다. 그의 몸을 구성하는 4대 요소는 완전히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그는 수척하고 허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앞뒤로 몸을 뒤척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Hearing this, the prince's heart swelled with pity. He then asked, "Is it only this person who gets sick, or are others subject to the same?"

이 말을 들은 왕자의 마음은 연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어 "이 사람만 병에 걸리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걸리는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He answered, "In this world everyone will also get diseased. Sickness plagues all who have a body. Yet foolish people seek joy in the fleeting pleasures of the world."

마부가 대답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병에 걸릴 것입니다. 병은 몸을 가진 모든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의 덧없는 즐거움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The prince heard this with horror and dismay. His mind and body shuddered like the shimmering moon in troubled water. "Adrift on this ocean of great suffering, how can one be at ease?" He sighed for people in the world, so deluded, confused, and obstructed. "The thief of sickness can come at any time. Yet they seem happy and delighted."

왕자는 공포와 실망으로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몸은 문제의 물속에서 반짝이는 달처럼 떨렸습니다. "이 큰 고통의 바다에 표류하면서, 어떻게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가?" 그는 너무 미혹하고 혼란스럽고 장애가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의 도둑은 언제든지 올 수 있지만 그들은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는구나."

"Then he had the chariot turn around and go back, his mind distraught about the woe of sickness. He was just like someone who, about to be beaten, curls his body waiting for the clubs to fall. He quietly stayed in the palace, aspiring only for a happiness beyond the world.

그 후 그는 병의 고통으로 마음이 심란하여 마부에게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는 마치 구타를 당하기 직전에 몽둥이가 내치기를 기다리며 몸을 웅크리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는 오직 세상을 초월한 행복만을 열망하며 조용히 궁전에 머물렀습니다.

The king inquired the reason for his son's return. He was told the prince had seen a sick person. The king was aghast and totally beside himself. He severely reprimanded the people who had prepared the road. But they too were perplexed and could not explain what had happened.

왕은 아들이 돌아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왕자가 아픈 사람을 보았다고 들었습니다. 왕은 놀라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길을 준비한 사람들을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당황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Then more songstresses were sent to the Prince's harem. Their music was more exquisite than before. The King hoped the prince, enamored by song and dance, would grow infatuated with the world and not abandon the householder's life. Day and night came offerings of lovely women and song, yet he was not happy at all.

그리고 나서 더 많은 노래들이 왕자의 처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이전보다 더 정교했습니다. 왕은 노래와 춤에 심취한 왕자가 세상에 빠져들어 가장의 삶을 버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밤낮으로 사랑스러운 여인들과 노래들이 공양 올려졌지만, 그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The king himself traveled in search of gardens, wondrous and fine. He also selected the most fair and voluptuous maidens for the Prince. They fawned on him; with all their talents served him. They were so stunning, one look at them befuddled men.

왕이 직접 훌륭하고 좋은 정원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는 또한 왕자를 위해 가장 아름답고 풍만한 처녀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아첨하고, 온갖 재주로 그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들을 보면 남자들은 정신을 잃습니다.

He adorned even more the royal road so all impurities were out of sight. He ordered once more the good charioteer, to carefully cleave to the gilded path.

그는 왕도를 더욱 장식하여 모든 불순물이 보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마부에게 금박을 입힌 길로 조심스럽게 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Death

죽음

At that time the god from the Pure Abodes Heaven transfigured into a corpse. Four people carrying the cadaver appeared right before the Bodhisattva. Only the Bodhisattva and the charioteer saw this. No one else was aware of it. He asked, "What is this body, with flowers and banners adorned? Those trailing behind are all grief-stricken. Their hair hanging down, they wail as they follow along."

그때 정거천에서 내려온 신이 시체로 변했습니다. 보살 바로 앞에 시신을 든 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보살님과 마차꾼만이 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꽃과 깃발로 장식된 이 몸은 무엇인가? 뒤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슬픔에 잠겼구나. 그들은 머리를 늘어뜨리고 따라가면서 울부짖는구나.'

The god again inspired the charioteer. Thus he answered, "This is a dead person. All of his organs have deteriorated; his life has been cut off. His mind has scattered; his consciousness has left. His spirit has departed and his body has withered. It is rigid and straight like dry wood. Formerly all of his relatives and friends adored him. They bathed in mutual affection. Now none of them even wish to see him. They will shun and abandon him in an empty graveyard." When the prince heard of death his heart ached; he felt all bound up. He asked, "Is it only this person who dies, or is everyone in the world destined to the same?"

신은 다시 마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장기들이 부패하였고, 그의 목숨은 끊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흩어지고, 그의 의식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영혼은 떠났고 그의 몸은 시들었습니다. 그것은 마른 나무처럼 단단하고 곧습니다. 이전에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은 모두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를 피하고 텅 빈 묘지에 버릴 것입니다.' 왕자는 죽음에 대해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완전히 구속 당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죽는 것은 이 사람뿐인가, 아니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인가?"

He answered, "Each and every one must die. Whatever has a beginning, also must end. The old, the young, and those middle aged, anyone who has a body, is subject to decay."

그는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시작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끝이 있습니다. 노인과 젊은이, 중년, 누구나 몸이 있는 사람은 쇠하게 됩니다."

The prince was shocked. His body leaned forward over the railing of the chariot. His breathing halted and he sighed, "Why are people in the world so deluded? Everyone sees that their body will perish, yet they still go through life so casually. They are not insensible like dead wood or stone. Yet they never think about the impermanence of life."

왕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몸을 마차의 난간 위에 기울여 숙였습니다. 그는 숨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들은 죽은 나무나 돌처럼 무감각하지 않지만 그들은 삶의 무상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구나."

He ordered the charioteer to turn back home "This is no time for a pleasure ride. Life can end at any time. How could I indulge in an excursion?"⁴

그는 마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했습니다. "즐겁게 다닐 때가 아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끝날 수 있네. 내가 어떻게 외출을 즐길 수 있겠는가?"⁴

These experiences compelled the prince to renounce the common life to find the path beyond birth and death. His father, however, was adamant that he remain in the palace. The prince promised to stay if his father could guarantee four things:

이러한 경험으로 왕자는 생사를 뛰어넘는 길을 찾기 위해 평범한 삶을 포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궁전에 남기를 완강히 요구했습니다. 왕자는 그의 아버지가 네 가지를 보장할 수 있다면 머물기로 약속했습니다.

Only under four conditions will I abandon my resolve to leave the householder's life.

오직 네 가지 조건 하에서만 저는 출가하겠다는 결심을 철외할 것입니다.

Guarantee my life will last forever; that I will be without sickness or old age, and that all my material wealth will never perish. Then I will respect your order and not leave the householder's life.

저의 삶이 영원할 것이며 아프거나 늙지 않을 것과 저의 모든 물질적 재산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이를 보장한다면 저는 아버지의 명을 존중하고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If these four wishes cannot be fulfilled, let me leave the householder's life. Please do not attempt to thwart me. I am in a burning house. How could you not let me out?"⁵

이 네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없다면,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를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불타는 집에 있습니다. 어떻게 저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⁵

The prince did leave the palace to undertake a spiritual quest to solve the problem of existence. Six years later he became a Buddha, a fully Awakened One.

왕자는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적인 탐구를 위해 궁전을 떠났습니다. 6년 후에 그는 완전히 깨달은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The Noble Truth of Suffering suggests that a deep malaise permeates our life. Everything that we live for, everything that is dear to us will eventually be lost: our fathers and mothers, our sisters and brothers, our sons and daughters, our husbands or wives, and eventually even our own lives. Death takes everything away. This is a very serious matter both because it is inescapable and real, and moreover because paradoxically the inevitability of death gives direction and meaning to life. The Bodhisattva feels a oneness with and resulting great compassion for all beings who undergo suffering. Thus he follows the Buddha's path to Awakening to help all beings end suffering and attain true happiness.

고성제는 우리 삶에 스며든 깊은 불안감을 암시합니다.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모든 것,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 즉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 아들과 딸,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삶까지도 잃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이고, 역설적으로 죽음의 필연성이 삶에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살은 고통을 겪는 모든 존재들과 하나가 되어 대비심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존재가 고통을 끝내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돋기 위해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을 따릅니다.

I will be a good doctor for the sick and suffering. I will lead those who have lost their way to the right road. I will be a bright light for those in the dark night. I will enable the poor and destitute to discover hidden treasures. The Bodhisattva impartially benefits all living beings in this manner....

병자에게는 좋은 의사가 되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보이며 캄캄한 밤에는 광명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숨긴 재물을 얻게 하나니라. 보살은 이와 같이 평등하게 일체중생을 이익케 하느니라.

Why is this? Because all Buddhas, the Thus Come Ones⁶, take a heart of great compassion as their very substance. Because of living beings they have great compassion. From great compassion the Bodhi-mind⁷ is born; and because of the Bodhi-mind, they accomplish the Equal and Proper Awakening.⁸

어째서인가? 왜냐하면 제불여래⁶는 대비심으로 그 체(體)를 삼기 때문이며, 중생으로 인해 대비를 일으키고, 대비로 인해 보리심⁷이 생기며, 보리심으로 인해 등정각을 이루느니라.⁸

Therefore, great compassion for all the myriad living beings who are suffering in Samsara is the catalyst for making the profound resolution to become a fully Enlightened Buddha, that is, for generating the Bodhi-mind.

그러므로 윤회로 고통받고 있는 무수한 중생들에 대한 대비심으로 완전히 깨달은 부처님이 되겠다는 결심, 즉 보리심을 일으킨 심오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The Meritorious Qualities of the Bodhi-Mind

보리심의 공적 있는 특징

You should know that the Bodhi-mind is completely equal to all the merit and virtue of all dharmas taught by the Buddha. Why? It is because the Bodhi-mind produces all practices of the Bodhisattvas. It is because the Thus Comes Ones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re born from the Bodhi-mind. Therefore, good young man, if there are those who have brought forth the resolve for Anuttara-Samyak Sambodhi⁹, they have already given birth to infinite merit and virtue and are universally able to collect themselves and remain on the path of All-wisdom...

선남자여, 보리심은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니, 모든 불법의 공덕과 평등함이다. 왜냐하면 보리심은 보살의 행을 내니, 삼세 여래가 보리심으로부터 나시는 연고이다. 선남자여, 그러므로 만일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⁹을 내는 이는 이미 한량없는 공덕을 내었으며 온갖 지혜의 길을 널리 거두어 가진다.

Good young man, it is just the way a single lamp, if brought into a dark room, is able to totally eradicate a hundred thousand years of darkness. The lamp of the Bodhi-mind of the Bodhisattva, Mahasattva¹⁰ is that way too, in that upon its entering the room which is the mind of a living being, the various dark obstacles of all the karmic afflictions¹¹ from hundreds of quadrillions of ineffable numbers of eons can all be totally destroyed.¹²

선남자여, 마치 한 등불이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백천 년 묵은 어둠이 모두 없어지듯이, 보살마하살¹⁰의 보리심 등불도 그와 같아서 중생의 마음 방에 들어가면 백천만억 말할 수 없는 겁 동안 묵은 업과 번뇌¹¹의 갖가지 어둠이 모두 없어지느니라. 12

¹ Rulers of the World, Chapter1 Flower Adornment Sutra.

1 화엄경 1장 세주묘엄품

2 *Turning the Dharma Wheel Sutra, Dhamma Cakka Ppavattana Sutra. Samyutta Nikaya LVI, 11 2 쌍윤따 니까야 LVI, 11 초전법륜경*

3 Refer to Appendix I, Chart of Samsara, The Realm of Birth and Death. The Pure Adobes are the Five Heavens of No-Return in the Form Realm.

3 부록1의 생사계의 삼사라 표를 참고하세요. 경거천 淨居天은 색계의 불환 不還의 다섯가지 천입니다.

4 *Acts of the Buddha (Buddhacharita), by Bodhisattva Ashvagosha composed in the 1st century BC or AD.*

4 기원전 혹은 기원후 1세기에 마명 보살이 지은 불소행찬(佛所行讚)

5 *ibid. 5 동일 경전*

6 "Thus Come One" is one of the ten titles of the Buddha. See Chapter 4 for the entire list of ten. 6 여래는 부처님의 10가지 명호 중 하나입니다. 전체 명호의 목록은 4장을 참고하십시오.

7 The Bodhi-mind is the catalyst for the Bodhisattva path. Refer to the section on the Bodhisattva under the heading, "The Sangha of the Sages" in Chapter 5.

7 보리심은 보살도의 촉매제입니다. 5장의 성인의 승가에서 보살의 장을 참고하세요.

8 *Universal Worthy's Conduct and Vows, Chapter 40, Flower Adornment Sutra, BTTS.*

8 화엄경 40장 보현행원품

9 Anuttara-Samyak-Sambodhi literally the "Unsurpassed, Right and Total Enlightenment" meaning the ultimate Enlightenment of a Buddha.

9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위없는 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으로 부처님의 궁극적인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10 Mahasattva literally means "great being", that is, a great Bodhisattva.

10 마하사트바는 위대한 존재, 즉 대보살입니다.

11 See Chapter 2 for karma and afflictions.

11 업과 번뇌에 대해서는 2장을 참고하십시오.

12 *Entering the Dharma Realm, Chapter 39, Volume 8, Flower Adornment Sutra, BTTS.*

12 BTTS의 화엄경 8권 39장의 입법계품

Chapter Two

The Cause of Suffering: Ignorance and Karma

Second Magnificent Vow of the Bodhisattva:

I vow to put an end to the infinite afflictions of living beings.

2장

고의 원인: 무지와 업

보살의 두번째 큰 서원:

중생의 한없는 번뇌를 끊기를 서원합니다.

Living beings are drowning in the sea of afflictions.

Defiled by deluded and confused views, they are quite alarming.

*The Great Teacher feels pity in his heart and enables
them to separate from afflictions forever. 1*

중생들이 번뇌 바다 빠져 해매며

어리석고 흐린 소견 무서운 것을

부처님이 슬피 여겨 빼어내시네 1

This corresponds to the Noble Truth of the Cause of Suffering.

이는 사성제의 고통의 원인에 해당합니다.

What, Bhikshus, is the Noble Truth of the Cause of Suffering? Just this thirst, leading to being, accompanied by delight and passion, gratifying itself now here and now there; namely the thirst for sense pleasures, the thirst for being, and the thirst for non-being. 2 (This "thirst" implies ignorance of the first truth of suffering. Ignorance and thirst are the most fundamental afflictions.) The Cause of Suffering should be cut off.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集聖諦]이다. 그것은 바로
갈매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 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2(이 "갈증"은 고성제에 대한 무지를 의미합니다. 무지와 갈증은 가장
근본적인 번뇌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끊어야 합니다.

To end suffering, we have to recognize its cause. The Buddha found that the fundamental cause of suffering is ignorance. Ignorance in turn leads to the arisal of self-centered desire. Ignorance and desire combine to blind us and preclude any possibility of realizing our inherent spiritual nature. Confused and dazed we "mistake fish eyes for pearls," i.e., confuse the ebb and flow of things impermanent with our true self.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지임을 발견했습니다. 무지는 결국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발산으로 이어집니다. 무지와 욕망은 결합하여 우리를 눈 멀게 하고 우리의 고유한 영적 본성을 실현할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혼란스럽고 명한 우리는 "물고기의 눈을 진주로 착각합니다", 즉 영원하지 않은 것의 조수와 흐름을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혼동합니다.

You have lost track of your fundamental treasure: the perfect, wondrous bright mind. And in the midst of your clear and enlightened nature, you mistake the false for the real because of ignorance and delusion.³

너희들은 본래부터 오묘한 원만하고 밝은 마음과 보배롭고 밝고 오묘한 성품을 잃어버리고 깨달음 속에 혼미한 것만을 인정하는구나.³

Your true nature is occluded by the misperception of false appearances based on external objects, and so from beginningless time until the present you have taken a thief for your son. You have thus lost your source eternal and instead turn on the wheel of birth and death.⁴

그것은 앞에 나타난 허망한 모양의 생각이다. 너의 참다운 성품을 현혹시키는 것이니 이는 네가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도적을 아들로 인정하고 있어서 너의 본래 뜻뜻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나고 죽고 세계를 윤회하고 있나니라.⁴

Because of ignorance, living beings create karma. The word "karma" means "activity." Karma more specifically is activities we do over and over again – activities rooted in desire and governed by the law of cause and effect. The law of cause and effect, simply stated, is that every good or bad act of body, speech and thought, generates a corresponding good or

bad result. The cause necessarily brings the result, which differs only in degree and time according to circumstances.

무지 때문에 중생은 업을 만듭니다. "업"이라는 단어는 "행"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업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행입니다.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인과관계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행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간단히 말해서, 신구의로 짓는 모든 좋거나 나쁜 행동, 말, 생각이 그에 따라 좋은 결과나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필연적으로 결과를 가져오는데, 상황에 따라 정도와 시간만 다를 뿐입니다.

For example, someone berates you, and then you scold him in return. His berating you is the result of past karma which has now come to fruition. When you scold him, you are creating new karma, which will bring equally unpleasant results in the future. All the things you do in body, speech and thought are causes. And all the things that happen to you are results. Thus, the present is both the fruit of the past and the seed of the future. What you are is what you have done; and, what you do is what you will become.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상대를 비난합니다. 그가 여러분을 비난한 것은 과거 업이 결실을 맺은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비난하면, 새로운 업을 지으며, 이는 미래에 똑같이 불쾌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구의로 짓는 모든 것들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과거의 열매인 동시에 미래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의 현재는 여러분이 여태까지 한 일의 결과이고, 여러분이 현재 하는 일은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Karma, however, should not be construed as "fate" or "predestination." Karma is not fixed and unalterable. Only the principle or "law" of karma is unalterable: you reap what you sow. Yet free will and conscious choice are present in and inform each and every action. The individual is free to choose, but not free to evade the consequences of those choices. Once there is action with intention, the results inexorably follow. One cannot escape this immutable law, but one can understand and master its

workings and thereby escape the cycle of existence with its endless births and deaths.

그러나 업은 '운명'이나 '숙명'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업은 고정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업의 법만이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뿐만대로 거듭니다. 하지만 자유 의지와 의식적인 선택이 존재하며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의 결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의도된 행에는 그 결과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누구나 이 불변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 작용을 이해하고 통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끝없는 생사의 존재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Hence one of the major goals of Buddhist practice is to attain the pure conscience and resulting clarity of mind that enables one to make wise choices and avoid errors in cause and effect. Even sages, including Buddhas and Bodhisattvas, are not exempt from the law of cause and effect; they simply do not err in cause and effect. The stress on moral precepts and meditation in Buddhism thus makes sense within the context of karma. Morality and mindfulness are designed to keep us in touch with our actions and, more importantly, the intentions driving those actions. Actions motivated by selfish desire and ignorance invariably result in unwholesome karma and entrapment. The converse is equally true: actions taken free of selfish desire and delusion invariably result in wholesome karma and genuine freedom. Being able to see and intelligently choose between good and evil, wholesome and unwholesome, liberation and bondage is the hallmark of wisdom – one of Buddhism's two greatest virtues. Compassion, the other central virtue of Buddhist practice, also arises from a clear understanding of karma. The principle of karma implies and confirms a deep interrelationship between all beings and all things. This inter-relatedness among all things means that what touches one, touches all. This is the truth that all Buddhas and Bodhisattvas awaken to. The dichotomies we make between self and others, body and mind, and man and nature are all fabrications and false.

We thus, in a very real way, 'do unto ourselves what we do unto others', suggesting yet a deeper dimension of meaning to the long-standing Golden Rule.

그러므로 불교 수행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청정한 의식과 명료한 마음으로 현명하게 선택을 하고 인과의 잘못을 피하는 것입니다. 불보살을 포함한 성현들도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잘못된 인과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업의 측면에서 보면 불교에서 도덕적인 계율과 명상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도덕성과 마음챙김은 우리의 행동, 더 중요하게는 행을 일으킨 의도를 살피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무지에 의한 행은 필연적으로 불건전한 업과 함정을 낳습니다. 그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미혹에서 벗어난 행은 항상 건전한 업과 진정한 자유를 낳습니다. 선과 악, 건전하고 건전하지 못함, 해방과 속박 사이에서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불교의 두 가지 가장 큰 덕목 가운데 하나인 지혜의 특징입니다. 불교 수행의 또 다른 주요한 덕목인 자비는 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업의 이치는 만물과 만물 사이의 깊은 상호 관계를 암시하고 확인합니다. 모든 것들 사이의 상호 관련성은 하나를 접하는 것은 모든 것을 접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모든 불보살들이 깨어난 진실입니다. 나와 타인, 몸과 마음, 인간과 자연을 구분짓는 이분법은 모두 가짜이고 거짓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실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상호 관련성은 오래된 황금률에 대한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제시합니다.

Compassion, however, goes beyond instrumental kindness, i.e. being good to others so that they will be good to us. Compassion literally means 'being one with everyone'. It is a way of seeing and being (not merely an attitude or way of thinking) in absolute identity with all that lives. It is both how things really are and how things might be – a solution to all of mankind's conflict and disorder.

하지만, 자비는 수단적인 친절, 즉 다른 사람들에게 잘 대접받기 위해 그들에게 잘 해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자비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자비는 한 존재를 모든 중생과 절대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고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단지 태도나 사고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어떠한지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어떻게 인류의 모든 갈등과 무질서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Thus, understanding karma is central to understanding Buddhism the teaching of wisdom and compassion. Karma is the primary force that keeps us turning in the illusory cycle of birth and death. When understood and mastered, it is the same force that can free us from this hapless cycle, and gives us the compassion and wisdom to be truly benefit the world. The Buddha gave an analogy for those caught in this cycle of karma:

그러므로 업의 이해는 불교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업은 생사의 환영적인 순환 속에서 우리를 계속 돌게 하는 주요한 원동력입니다. 업을 이해하고 통달할 때, 우리는 이 불행한 순환에서 자유롭고, 세상을 진정 이롭게 할 수 있는 자비와 지혜를 얻습니다. 부처님은 이 업의 순환에 빠진 사람들을 비유했습니다.

*Bad karma that is created,
like milk, does not curdle at once;
Fermenting, it follows the fool
like a fire covered by ashes.5*

못된 짓을 할지라도 새로 짜낸 우유처럼
그 업이 그 자리에서 곧 굳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업은 재에 덮인 불씨처럼
두고두고 타면서 그의 뒤를 따른다.5

The family and social environments that we are born into and even our bodies are the result of our karma from past lives. The entire world as well manifests from the collective karma of all living beings.

우리가 태어난 가정과 사회 환경, 심지어 우리 몸까지도 전생의 업의 결과입니다. 전 세계는 또한 모든 중생의 집단적 업으로 나타납니다.

*Living beings' individual karma,
Leads to worlds of infinite kinds.
Therein, of those who grasp at life,
Each receives a different measure
of suffering and happiness.6*

중생의 개별적인 업보는
무한한 종류의 세계로 이어지네.
그 안에서 삶을 취하는 사람들은
각각 고통과 행복의 다른 척도를 받네.6

The reason why people undergo seemingly unwarranted rewards and retributions must ultimately be traced back to causes or "seeds" we planted in the past. We ourselves are responsible for everything that happens to us. Karma is fair, impartial, and never in error.

사람들이 겉보기에 부당한 보를 받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과거에 심었던 원인이나 "씨앗"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습니다. 업은 공정하고 공평하며 절대로 오차가 없습니다.

All the many things you do to others will return to be undergone by yourself.7

다른 사람들에게 한 많은 일들은 모두 자신에게 돌아오느니라."7

*If you want to know of your past lives' causes,
Look at the rewards you are reaping today.
If you wish to know your future lives,
You need but notice what you are doing right now.8*

전생의 인과를 물을진대 다만 이 생에 있어 복福받는 사람을 볼지니라.
만약 후생의 인과를 알고자 할진대 금생에서 짓고 있는 것을 볼지니라.8

All men and women in the world, whether poor and lowly or wealthy and

*noble, whether they are undergoing limitless sufferings or enjoying blessings without end, are all undergoing retributions from causes in their past lives.*9

가난하고 미천하거나 부자이고 고귀하거나 한없는 고통을 겪거나 끝없이 복을 즐기거나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전생의 원인으로 인한 보를 겪느니라.9

Sometimes people have plentiful goods. The reason is quite fair.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풍족합니다. 그 이유는 꽤 타당합니다.

In the past those same people Gave food liberally to the poor. Some happy fellows' fathers and mothers, Enjoy long life, contentment, and ease. The reason for rewards such as these, you wonder?

과거에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몇몇 행복한 친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장수, 만족, 편안함을 즐깁니다. 이런 보를 받는 이유가 궁금한가요?

In times past they looked after orphans And cared for all elderly people as their own.10

과거에 그들은 고아들을 돌보고 모든 노인들을 자신처럼 돌봐 주었습니다.10

If he meets those who take life, Earth Store Bodhisattva describes the retribution of a short life. If he meets robbers and petty thieves, he tells of the retribution of poverty and acute suffering.

지장보살은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인생살이에 재앙으로 단명하게 되는 업보를 말하고 도둑질 하는 자를 만나면 빈국의 고초를 과보를 받는다고 말해주느니라.

*To those with harsh tongues, he explains they will have a quarrelling family. To people who slander, he warns of the retribution of a tongueless and cankerous mouth. And to those angry and hateful, he tells how they will become ugly and crippled.*11

악당하는 자를 만나면 권속이 서로 다투는 과보를 받는다고 말하고, 남의 일을
훼방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구창보를 앓는 업보를 말하고,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추악하게 찌그러지는 업보를 말해주느니라. 11

The Truth of the Cause of Suffering pinpoints the root problem of suffering: ignorance. Because of ignorance we mistake our "self" to be something that is born and dies. Confused about this fundamental issue, we easily become driven by fear of death and grasping at life, and thus we create infinite kinds of karma. In reality our true nature was never born and will never perish. The "self" that undergoes birth and death is an illusion, a phantasm of our mind's making born of ignorance.

집성제는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인 무지를 지적합니다. 무지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태어나고 죽는다고 착각합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미혹하여 우리는 쉽게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삶을 취하면서 무한한 종류의 업을 짓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결코 태어나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생사를 겪는 "자아"는 우리 마음에서 무지로 만들어진 환영입니다.

*Then the World Honored One explained the insubstantiality of the self.
그리고 세존은 자아의 실체 없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Whatsoever is originated will be dissolved again. All worry about the self is vain; the self is like a mirage, and all the tribulations that touch it will pass away. They will vanish like a nightmare when the sleeper awakes.'
'무엇이든 생한 것은 다시 멀립니다. 자아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헛됩니다. 자아는 신기루와 같아서, 모든 고난은 사라집니다. 잠자는 사람이 악몽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He who has Awakened is freed from fear; he has become a Buddha; he knows the vanity of all his cares, his ambitions, and also of his pains.

깨어난 사람은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근심과 야망과 고통의 헛됨을 알고 있습니다.

It easily happens that a man, when taking a bath, steps upon a wet rope and imagines that it is a snake. Horror will overcome him, and he will shake from fear, anticipating in his mind all the agonies caused by the serpent's venomous bite. What a relief does this man experience when he sees that the rope is no snake. The bite. What a relief does this man experience cause of his fright lies in his error, his ignorance, and his illusion. If the true nature of the rope is recognized, his peace of mind will come back to him; he will feel relieved; he will be joyful and happy.

목욕을 할 때 젖은 밧줄을 밟고 뱀이라고 상상하는 일은 쉽게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그를 덮칠 것이며, 그는 두려움에 떨 것이며, 그의 마음속에서 뱀에 물려 독으로 인한 모든 고통을 예상할 것입니다. 이 남자는 그 밧줄이 뱀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얼마나 안도하겠습니까? 이 남자는 자신의 실수, 무지, 환영이 두려움의 원인임을 알고 얼마나 안도하겠습니까. 밧줄의 진면목을 알게 되면, 그의 마음은 다시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놓일 것입니다. 그는 기뻐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This is the state of mind of one who has recognized that there is no self, that the cause of all his troubles, cares, and vanities is a mirage, a shadow, a dream. "12

이는 무아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의 경계입니다. 자기의 모든 고민과 근심, 허영의 원인은 신기루이고 그림자이고 꿈입니다."12

The Buddha used another analogy to describe how ignorance by nature has no cause, no reason for being. Indeed, the greatest mystery in life is "Why is there ignorance?" The Buddha said that we are like Yajnadatta, an Indian contemporary of the Buddha. One day Yajnadatta looked in a mirror and fell in love with his reflection. For no reason, he thought the

head in the mirror belonged to someone else; that he did not have a head of his own. He suddenly went insane, and ran about madly screaming, "Where is my head? Where is my head?"

부처님은 또 다른 비유를 통해 본질적으로 무지가 존재하는 것에는 어떤 원인이나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는 "왜 무지가 있을까?"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부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도인 연야달다와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느 날 연야달다는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유 없이, 그는 거울에 비친 머리가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내 머리는 어디 있지? 내 머리는 어디 있나요?"

The Buddha said, "Was there any reason why he became fearful for his head and ran madly about? If his madness were to suddenly cease, it would not be because he "recovered" his head from someplace outside. So even before his madness ceased, how could his head have been lost?...."

부처님이 이로길 "연야달다와 같은 경우는 무슨 인연이 있어서 자기의 머리를 무서워하면서 달아났겠느냐? 훌연히 미친 증세가 없어지면 그 머리는 밖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니 비록 미친 증세가 없어지지 않았다고 한들 어찌 잊어버린 것이겠느냐?

*"When the madness of the Yajnadatta in your own mind ceases, just that ceasing is Enlightenment. The supreme, pure, bright mind originally pervades all reality. It is not something obtained from anyone else."*¹³
너의 마음 속에 연야달다의 미친 성품은 자연 없어질 것이다. 무명이 없어지면 곧 보리의 뛰어나게 청정하고 밝은 마음이 본래 우주에 두루퍼져서 다른 사람에게서 얻어진 것이 아니니라.¹³

*With your own mind, you grasp at your own mind.
What is not illusory turns into illusion.*

*If you don't grasp, there is no non-illusion.
If even non-illusion does not arise,
How can illusory dharmas be established?
This is called the wondrous lotus flower,
the regal vajra gem of Enlightenment.* 14

제 마음에서 제 마음을 취하면

환망(幻妄)아닌 것이 환법(幻法)이 되나니
취하지 않으면 환망 아닌 것조차도 없으리라.

환망이 아닌 것도 오히려 생기지 않거든

환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랴?

이것을 이름 하여 '묘연화',

'금강왕보각'이라 하나니라. 14

'Rulers of the World, Chapter 1, Flower Adornment Sutra. "Afflictions" is a translation of the Sanskrit kleshas which literally means "causing pain, distress, or anguish."

1 화엄경 1장 세주묘엄품. 번뇌는 산스크리트어 kleshas의 번역으로 문자 그대로 "고통, 괴로움 또는 고뇌를 유발한다"는 의미입니다.

2Turning the Dharma Wheel Sutra, Dhamma Cakka Pavavattana Sutra, Samyutta Nikaya LVI, 11.

2 쌍육따 니까야 초전법륜경

3Shurangama Sutra, Volume 2, BTTS

3 능엄경 2권 BTTS

4Shurangama Sutra, Volume 1, BTTS.

4 능엄경 1권 BTTS

5Dharmapada, Verse 71.

5 법구경 71.

6Flower Store Sea of Worlds, Chapter 5, Volume 2, Flower Adornment Sutra, BTTS.

6 화엄경 5장 화장세계해 BTTS

7 *Sutra on Cause and Effect in the Three Periods of Time*. Complete text appears in *Filiality: the Human Source, Volume 1, BTTS*.

7 삼세 인과경. 완전한 문장은 효: 인간의 근원 을 참고하세요.

8ibid 8 동일경

9ibid 9 동일경

10 ibid 10 동일경

11 *Sutra of the Past Vows of Earth Store Bodhisattva, BTTS*.

11지장본원경 BTTS

12 *Pali Canon Sutras*.

12 팔리경

13 *Shurangama Sutra, Volume 4. BTTS*.

14 ibid

13 능엄경 4권 BTTS

14 동일경

The Bodhisattva Manjushri, Foremost in Wisdom

지혜 제일 문수사리 보살

Chapter Three

The Path to the Cessation of Suffering: Practicing the Dharma

Third Magnificent Vow of the Bodhisattva: I vow to learn the measureless Dharmadoors.

3장

고통을 끝내는 길: 법의 수행

보살의 세번째 위대한 서원: 한없는 법문을 배우겠습니다.

Using measureless dharma-doors, he is totally free and easy.

He tames and regulates living beings

throughout the ten directions,

And yet while doing all of these among living beings,

the Bodhisattva is detached and makes no discriminations. 1

한량없는 법문에 다 자대하시고

중생을 조복하여

시방에 두루하되

그 가운데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시도다. 1

This corresponds to the Noble Truth of the Path That Leads to the Cessation of Suffering.

이는 고통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도성제에 해당합니다.

What, Bhikshus, is the Noble Truth of the Path That Leads to the Cessation of Suffering? Just this eightfold path; namely right views, right intention, right speech, right behavior, right livelihood, right effort, right mindfulness, and right meditative-concentration.2 (The Bodhisattva's Dharma-doors or methods of practice are the Six Perfections: giving,

morality, patience, vigor, meditative-concentration and wisdom.) The Path should be practiced.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의 성스러운 진리/[道聖諦]이다.
그것은 성스러운 팔정도이니, 바른 견해[正見], 바른 사유[正思惟], 바른
말[正語], 바른 행동[正業], 바른 생계[正命], 바른 정진[正精進], 바른
알아차림[正念], 바른 집중[正定]이다.2 (보살의 법문 또는 수행 방법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입니다.)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The word Dharma refers to the Buddha's teachings. As mentioned before it literally refers to the laws or truths that govern reality. In Buddhism it particularly alludes to the methods of practice the Buddha compassionately set forth to guide living beings through the dense forest of their ignorance to the light of their true nature.

법이라는 단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말 그대로 법은 법이나 진리를 가리킵니다. 법은 현실을 지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불교에서 그것은 특히 중생들을 그들의 본성에 비추어 동정적으로 부처님의 무지를 수행하는 방법을 그들의 울창한 숲 속으로 인도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The Dharma offers a profound analysis of the problem of suffering, while providing both an alternate vision free of suffering (Enlightenment) and the actual methods we need to realize that awakening.

법은 고통이 없는 대안적 비전(깨달음)과 실제 방법을 모두 제공하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한 심오한 분석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그 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Simply put, the Dharma is:

간단히 말해서 법은

Not doing any evil.

Reverently practicing all good.

Purifying one's own mind.

That is the teaching of all Buddhas.3

악은 행하지 말고

선은 구족하며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제불의 가르침이다.3

The essential Dharmas of practice consist of morality, meditative-concentration, and wisdom.

수행의 필수적인 법은 도덕, 명상-집중, 지혜로 구성됩니다.

From the moral precepts comes meditative concentration, and out of meditative concentration arises wisdom.4

계를 바탕으로 선정이 일어나고 선정을 바탕으로 지혜가 생기느니라.4

Morality

도덕

Without a strong foundation in moral conduct it is impossible to develop skill in meditation and to acquire the genuine meditative-concentration that leads to wisdom. The Buddha established the Five Moral Precepts as basic virtues for human life and the very essence of spiritual cultivation. They are as follows:

도덕적 행동에 대한 단단한 기반이 없다면 명상의 기술을 개발하고 지혜로 이끄는 진정한 명상 집중력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삶을 위한 기본적인 덕목이자 영적인 수행의 본질로서 오례를 정립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Do not kill. We should not deliberately kill any living creature, either by committing the act ourselves, instructing others to kill, or participating in or approving of acts of killing. One should also avoid indirect involvement in killing by eating only vegetarian food. Compassion, mutual respect for life, and a sense of oneness with all living creatures are compelling reasons for holding this moral precept.

1. 불살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생을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살생을 지시하거나, 살생에 참여하거나 승인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어떤 중생체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채식을 함으로써 살생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자비, 중생에 대한 상호 존중, 모든 중생과의 합일은 이 도덕적 계를 지니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2. Do not steal. If something is not given to us, we should not take it. This precept applies not only to valuable items such as gold and silver, but even to things as small and inexpensive as needles. This can also include living frugally and not wasting resources.
2. 불투도. 주어지지 않은 것은 취하지 않습니다. 이는 금이나 은과 같은 값비싼 물건뿐만 아니라 바늘처럼 작고 저렴한 물건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또한 낭비하지 않고 검소하게 사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Do not engage in sexual misconduct. Sexual activities with anyone other than our lawful spouse are considered improper sexual behavior. This moral precept also prohibits promiscuity and other types of sexual misbehavior.
3. 불사음. 합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는 부적절한 성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도덕적 계는 또한 난잡함과 다른 유형의 성적 비행을 금지합니다.
4. Do not speak falsely. In general, there are four kinds of incorrect speech: lying, irresponsible speech, (such as gossip and talk which upsets people's emotions); abusive speech, (such as harshly berating others); and backbiting speech (which causes dissension and discord among people).
4. 불망어. 일반적으로, 네가지 종류의 잘못된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 무책임한 말, (예를 들어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험담), 욕설 (다른 사람들을 심하게 비난하는 말), 사람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는 뒷말입니다.
5. Do not take any intoxicants. Alcohol, all types of non-medicinal and illicit drugs, and even tobacco are all considered intoxicants. They harm the body, confuse our spirit, and cause us to be dull-witted in future lives.

5. 불음주. 술, 모든 종류의 비 의료적인 불법 약물, 심지어 담배도 모두 최음제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몸에 해롭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혼란시키고, 미래에 우리를 둔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Now I will describe the rules of conduct a householder should follow to become a good disciple. However, if one wishes to fulfill the duties of a Bhikshu, one cannot do so by possessing the property of a householder.

다음은 재가자가 해야 할 일을 말하리라. 이와 같이 실행하는 사람은 좋은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다. 순수한 출가 수행자에 대한 규정은, 소유의 번거로움이 있는 사람이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Let him not destroy life, nor cause others to destroy life, nor approve of others killing. Let him refrain from oppressing all living beings in the world, whether strong or weak.

산 것을 몸소 죽여서는 안 된다. 또 남을 시켜 죽여 서도 안 된다. 그리고 죽이는 것을 보고 묵인해도 안 된다. 난폭한 것을 두려워하는 모든 생물에 대해서 난폭을 거두어야 한다.

Then because the disciple knows that it belongs to others, stealing anything from any place should be avoided. Let him neither steal, nor approve of others' stealing. All stealing should be avoided.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또 어디에 있든, 그것을 갖지 말라. 남을 시켜 가지거나 남이 가지는 것을 묵인하지도 말라.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서는 안 된다.

The wise man should avoid, a non-celibate life as he would a burning charcoal pit. If he is unable to lead a celibate life fully, let him not transgress with another's wife.

슬기로운 사람은 음행(淫行)을 회피하라. 타오르는 불구덩이를 피하듯. 만일 불음(不淫)을 닦을 수가 없더라도, 남의 아내를 범해서는 안 된다.

Whether in an assembly or in a public place, let him not lie to another.

Let him neither cause others to lie nor approve of others' telling lies.

집회의 장소에 있든 단체에 있든 간에, 누구도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남에게 거짓말을 시켜 도 안 된다. 또 남이 거짓말 하는 것을 묵인해도 안 된다.

모든 허망한 말을 하지 않는다.

The householder who delights in self-control, knowing that intoxicants destroy it, neither takes intoxicants, nor would he lead others to take them, nor approve of others' doing so.5

또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이 불음주의 가르침을 기 뼈하는 재가자는 남에게 술을 마시게 해도 안 된다. 남이 술 마시는 것을 묵인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마침 내 사람을 취하게 하고 미치게 하는 것임을 알라.5

Moral precepts are Enlightenment.6

도덕적인 계율은 깨달음이니라.6

The moral precepts of Buddhism are rooted in selfrespect (especially cherishing one's spiritual nature) and respect for others. Self-respect and respect for others in turn develop naturally out of our first and most fundamental human relationship: child and parents. Kindness, compassion, generosity and mercy as well as our self-esteem are all kindled and instilled within the ongoing give and take of that relationship. Thus in the discourse on the Bodhisattva Precepts from the Brahma Net Sutra the Buddha observes that:

불교의 도덕적인 계율은 자아 존중(특히 자신의 영성을 소중히 여깁니다.)과 타인에 대한 존중에 뿌리를 둡니다. 자아 존중과 타인에 대한 존중은 우리가 처음으로 갖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 관계인 아이와 부모의 관계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전합니다. 자애, 연민, 관대함, 자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도 그 관계의 지속적인 주고 받음 안에서 주입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범망경 보살계에 대한 담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Filial compliance is a dharma of the ultimate path. Filiality is known as moral precepts. It is also called restraint and stopping.

효도는 궁극적인 도의 법입니다. 효는 도덕적인 계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구속과 정지라고도 합니다.

The most basic human virtue is reverence for one's father and mother. The Buddha regarded filial piety as absolutely essential to a moral life.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미덕은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부처님은 효를 도덕적인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Bhikshus, there are two persons whom you can never repay. They are your mother and father. Even if you were to carry your mother on one shoulder and your father on the other for one hundred years, and they should even void their excrement there; and if you should attend to them, anointing them with salves, massaging, bathing and rubbing their limbs, even that would not repay them.

비구들이여, 두 사람의 은혜에 대해서는 쉽게 보답할 수 없다고 나는 말한다.
어떤 사람이 둘인가? 부모님이다. 비구들이여, 수명이 백 년인 때에 태어나 백 년 동안 살면서 내내 한쪽 어깨에 어머니를 태우고 다른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태워드리더라도 향을 뿐리고 안마를 해 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몸을 문질러 드리면서 봉양을 하더라도 대소변을 받아내더라도 그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다.

Even if you were to establish your parents as the supreme lords and rulers over this earth, rich in the seven treasures (gold, silver, lapis lazuli, crystal, red pearls, mother of pearls and carnelian), this still would not be a sufficient display of gratitude. Why? Parents do so much for their children, Bhikshus. They bring them up, feed them, and guide them through this world. "7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그의 부모님을 비록 칠보가 가득한 큰 대지를 통치하는 최고의 왕위에 모시더라도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부모는 참으로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하나니, 자식들을 키워주고 먹여주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7

And in the following passage from the *Sutra of the Deep Kindness of Parents and the Difficulty of Repaying It*, the Buddha poignantly describes what parents do for their children.8

그리고 부모은중경의 다음 구절에서 그 은혜를 갚는 어려움에 대해 부처님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를 강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8

For ten (lunar) months while the mother carries the child, she feels discomfort each time she rises, as if she were lifting a heavy burden. Like a chronic invalid, she is unable to keep down her food and drink. When the ten months have passed and the time comes for giving birth, she undergoes much pain and suffering so that the child can be born. She fears for her own life, like a pig or lamb waiting to be slaughtered. Then the blood flows all over the ground. These are the sufferings she undergoes.

어머니가 아기를 뱉지 열달동안 일어나고 앓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여 무거운 짐을 진것같고. 음식이 잘 내리지 아니하여 오래 병을 앓는 사람 같으며 만삭이 되어 순산할 때에는 한량없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잠깐 동안 좋고 나쁜 것이 아기에게 해가 될까 염려하며 양이라도 잡은 것 같이 피가 흘러 자리를 적시느니라. 이러한 고생을 겪느니라.

Once the child is born, she saves the sweet for it and swallows the bitter herself. She carries the child and nourishes it, washing away its filth. There is no toil or difficulty she does not willingly undertake for the sake of her child. She endures both cold and heat and never even mentions what she has gone through. She gives the dry place to her child and sleeps in the damp herself. For three years she nourishes the baby with milk, transformed from the blood of her own body.

아기를 낳고는 쓴것은 삼키고 단것은 뱉어서 아기를 먹이면서 업어 기르고 부정한 똥오줌을 받아내면서 부정한 것을 빨래하되 귀찮은줄 모르며 더운것도 참고, 추운것도 참고면서 고생되는 것을 싫어하지 아니하며 마른데는 아기를 누이고 젖은 데에선 어머니가 자며 삼년동안 어머니의 흰피 젖을 먹이네.

Parents continually instruct and guide their children in the ways of propriety and morality as the youngsters mature into adults. They arrange marriages for them and provide them with property and wealth or sound advice on how to obtain these things. They take this responsibility and trouble upon themselves with tremendous zeal and toil, never mentioning their toil and kindness.

어린아이가 자라나면 학문과 예절을 가르치고 시집 보내며 벼슬도 시키고 직업도 구하여 주며 수고로 지도하여서 애써 기르는 일이 끝나더라도 은정이 끝이였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라.

When a son or daughter becomes ill, parents are so worried and afraid that they may even grow ill themselves. They remain by the child's side providing constant care, and only when the child gets well are the parents happy once again. In this way, they cherish and raise their children with the sustained hope that their offspring will soon grow to be mature adults.

아들 딸이 병에 걸리면 부모들은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심지어 그들 스스로 병이 나기도 하느라. 그들은 아이 곁에 남아 끊임없이 보살피며, 아이가 회복되어야 부모는 다시 한번 행복하느라. 이와같이 기르고 보살피며 어서 어른이 되기만을 바라느라.

From this we begin to appreciate the deep debt of kindness we owe our parents. In this same Sutra the Buddha suggested some ways we can show our gratitude:

이로부터 우리는 부모님께 받은 깊은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전에서 부처님은 우리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Disciples of the Buddha, if you wish to repay your parents' kindness, write out this Sutra on their behalf. Recite this Sutra on their behalf. Repent of transgressions and offenses on their behalf. For the sake of your parents, make offerings to the Triple Jewel (The Buddha, the Dharma and the Sangha). For the sake of your parents, hold the precept of pure eating (vegetarian eating). For the sake of your parents, practice giving and cultivate blessings. If you are able to do these things, you are being a filial child.⁹

그대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거든, 부모님을 위해 이 경을 쓰고, 부모님을 위해 이 경을 독송하고, 부모님을 위해 자신의 죄와 잘못을 뉘우치고, 부모님을 위해 삼보에 공양하고, 부모님을 위해 재계를 지켜 받들고, 부모님을

위해 보시를 해서 복을 지어라. 이렇게 하면 곧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이라 일컬을 것이라.⁹

In the Sigalaka Sutra¹⁰ the Buddha advised the layman Sigalaka how to live a wholesome and happy life. The Buddha outlined the respectiv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ne owes to father and mother, teachers, wife and children, friends, workers, and the religious. The following is advice on good friends and the management of personal wealth.

싱갈라까 경전에서 부처님은 재가자 싱갈라까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조언했습니다. 부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 스승, 아내와 자녀, 친구, 노동자, 종교인에게 각각의 의무와 책임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좋은 친구들과 개인적인 재산의 관리에 대한 조언입니다.

The friend who is a helper and the friend through thick and thin; the friend who shows the way that is proper and the friend full of sympathy: a wise person knows the true worth of these four kinds of friends and cherishes them with care, as a mother her dearest child.

도움을 주는 사람, 괴로우나 즐거우나 한결같은 사람, 해야할 일을 일깨워주는 사람, 연민의 마음을 품는 사람. 이와 같은 네 부류의 참된 친구가 있으니 현명한 이는 친구의 귀함을 알고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듯 정성을 다해야 하라.

The wise one trained and disciplined shines like a beacon: he gathers wealth just as the bee gathers honey, or ants build their mound. With wealth so gained, a layperson can devote it to people's good. One should divide one's wealth into four parts. One part may be enjoyed at will. Two parts should be put to work and the fourth part should be set aside as a reserve in times of need.

계를 잘 지키는 사람은 어두운 밤에 타오르는 횃불처럼 밝게 빛나는 법, 벌처럼 부지런히 재물을 모으면 개미집이 높이 올라가듯 재물도 불어나리라. 부지런히 모든 재물 유익하게 쓰고자 한다면 먼저 재물을 네 등분으로 나누라. 사분의 일은 생활에 쓰고 사분의 이는 사업에 쓰며 나머지 사분의 일은 재난에 대비해 저축하라.

Whether one is a layperson or a monk or nun, morality constitutes the essential foundation for any genuine spiritual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Although the specific precepts (the "letter") vary slightly between monastics and the laity, between monks and nuns, the underlying goal and rationale (the "spirit") is the same to foster the virtuous qualities that develop concentration and allow wisdom to unfold.

재가자이든, 출가자이든간에 도덕은 진정한 영적 이해와 경험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 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 비구와 비구니 사이에 구체적인 계율이 조금씩 다르지만, 근본적인 목표와 근거("정신")는 집중력을 기르고 지혜가 펼쳐지도록 하는 덕성을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Meditative-concentration

명상적-집중

By upholding the moral prohibitions we purify the activities of body and speech, thereby laying a firm foundation for transforming the more deeply rooted and subtle habits of the mind. Meditation develops concentration. This in turn enhances our innate clarity of mind allowing us to see through the transient and superficial to the heart of things. As a result of this insight we become less flustered by trivial matters, more impervious to life's little ups and downs. A pleasant sense of calm and dispassion gradually ensues enabling one to experience less and less suffering because of the effect of external events. The methods for developing concentration vary: sitting in meditation, as well as forms of standing and walking meditation; reciting the names of the Buddhas or Bodhisattvas, bowing to the Buddhas or Bodhisattvas, bowing repents, bowing to the Sutras, reciting the Sutras, and reciting mantras.¹¹ The possibilities are actually limitless; different methods suited to different people at different times. Although the methods vary, if practiced with utter absorption and underpinned with virtue, the result is the same: wisdom.

도덕적으로 금지된 사항들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몸과 말로써 짓는 행을 정화하고, 그에 따라 마음 안에 더 깊이 뿌리내린 미묘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명상은 집중력을 발달시킵니다. 이는 우리의 타고난 정신의 명료성을 향상시켜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것을 뛰어넘고 우리가 사물의 중심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통찰력의 결과로 우리는 사소한 일에 하등대지 않고,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복으로 인한 영향이 줄어듭니다. 기분 좋은 평온함과 무관심으로 점차 외부 사건으로부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기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좌선뿐만 아니라 경행, 염불, 절, 참회, 독경, 주력 등이 있습니다.¹¹ 가능성은 실제 무한합니다. 시간에 따라 사람에 따라 적합한 방법은 다릅니다. 비록 방법은 다양하지만, 완전히 흡수하고 덕을 갖추면, 지혜라는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The following passage from the Shurangama Sutra, Volume 8, describes what occurs when we enter the initial stages of meditative-concentration 능엄경 제8권의 다음 구절은 우리가 명상-집중의 초기 단계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Ananda, be aware that as you sit in the Bodhimanda (a place, such as a monastery, where the Dharma is practiced), you are doing away with all thoughts. When those thoughts come to an end you are free of all thinking. You enter a state of unadulterated clarity. Your mind no longer shifts between movement and stillness, and remembering and forgetting become one and the same.

아난다여, 네가 보리만다(법을 수행하는 곳)에 앉아 있을 때, 너는 모든 생각을 버리고 있음을 인지하여라. 그 생각들이 끝나면 여러분은 모든 생각에서 자유로워진다. 너는 청정한 명확성의 상태로 들어간다. 너의 마음은 더 이상 움직임과 고요함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고, 기억과 망각은 하나가 되고 같은 것이 된다.

When you dwell in this place and enter Samadhi, you are like a person with vision who lives in utter darkness. The wonderfully pure mind that is your pristine nature does not yet emit light. This is called the "region of the form skandha." If the person's eyes become clear, then he

*experiences the ten directions as an open expanse and the darkness*12 *is gone.*

너가 이 곳에 주하여 삼매에 들어가면, 너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의 타고난 성품인 놀랍도록 청정한 마음은 아직 빛을 내지 않는다. 이를 "색온의 지역"이라고 한다. 만약 그 사람의 눈이 맑아지면, 그는 시방을 탁 트인 공간으로 경험하고 어둠¹²이 사라진다.

Wisdom (Prajna)

지혜 (반야)

In Buddhism, there are three kinds of wisdom or prajna¹³: literary wisdom, which arises from the study of the Sutras, contemplative wisdom, by which one deeply ponders the meaning of the Sutras and then attains true understanding, and the wisdom of reality, by which one sees the true nature of reality. All phenomena in the universe have their own characteristics, yet ultimately they are mere conditioned appearances having no substantial nature of their own. That is, every phenomenon is analogous to a flower. A flower begins to arise after a seed is planted in the earth. When the seed receives water and sunlight in a timely manner, it will eventually blossom into a flower. The existence of the flower depends on all of these supporting conditions of the earth, water, and sunlight, as well as the basic cause of the seed. The flower does not have any inherent or independent being apart from these supporting conditions. When one sees that all things are like this, then one has the revelation that the true nature of reality is empty, i.e., beyond appearances. It is beyond the duality of existence and non-existence. Therefore, the wisdom of reality is a profound world – transcending insight into the real nature of all things. It sees the insubstantial nature of all phenomena and the true reality beyond appearances. This state cannot be conceptualized or described; it can only be known by actually experiencing it.

불교에는 세 가지 반야13지혜가 있습니다. 경전을 연구함으로써 생기는 문자지혜, 경전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참된 이해를 얻는 관조지혜, 현실의 참된 본성을 보는 실상지혜입니다. 우주의 모든 현상들은 그들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들은 그들 자신의 실질적인 본성이 없는 단지 조건화된 모습일 뿐입니다. 즉, 모든 현상은 꽃과 유사합니다. 꽃은 씨앗이 땅에 심어진 후에 피기 시작합니다. 씨앗이 적시에 물과 햇빛을 받으면, 그것은 결국 꽃으로 피게 될 것입니다. 꽃의 존재는 씨앗의 근본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땅, 물, 햇빛의 모든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꽃에는 이러한 지지 조건들로부터 분리된 어떠한 고유하거나 독립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러함을 볼 때, 우리는 실상 즉 겉모습 이면에 진정한 본질이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존재와 비존재의 이중성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의 지혜는 심오합입니다 – 만물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출세간적인 통찰입니다. 그것은 모든 현상의 실제 없는 본질과 겉모습을 초월한 참된 실상을 봅니다. 이 상태는 개념화하거나 설명할 수 없으며 실제로 경험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Contemplate the fundamental falseness of appearances. They are just like flowers conjured up in space that bear empty fruit. Why, then, investigate the meaning of their formation and disappearance? 14

그 현상을 살펴보건대 본래가 허망해서 가리켜서 말할 수가 없음이 마치 허공의 꽃에서 헛된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 어떻게 서로 능멸하는 이치를 따지겠느냐? 14

Prajna empowers the Bodhisattvas who appear in the world over and over again to help living beings. Although they see that the true nature of reality is very profound, pure and perfect in itself, yet they appear in the illusory world. the distorted, misperceived reality, which living beings have created through their ignorance in order to help all beings. Without this wisdom, they would be swept away with the current like everyone else. Wisdom, however, allows them to "enter the fire and not be burned." It enables them to be like the lotus flower rooted in the muck and mire but whose petals never touch the polluted water. Thus the Bodhisattvas embody the Dharma that they teach, and this embodiment

of virtue, concentration, and wisdom is the true "speaking of Dharma." The teaching and the teacher become one and the same.

세상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보살들은 반야를 통해 중생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비록 그들은 실상의 진정한 본질이 그 자체로 매우 심오하고, 청정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알지만 모든 존재를 돋기 위해 보살은 중생이 그들의 무지를 통해 만들어낸 왜곡되고 잘못 인식된 현실의 환영의 세계에 나타납니다. 반야 지혜가 없으면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물살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들이 "불 속으로 들어가지만 타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지혜로써 그들은 진흙과 수렁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들의 꽃잎은 오염된 물에 닿지 않는 연꽃과 같이 됩니다. 그리하여 보살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법을 형상화합니다. 덕, 집중, 지혜의 구현이 진정한 '설법'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가르치는 자가 하나가 되고 동일합니다.

In teaching the Dharma, a Bodhisattva understands the limitless differences among living beings that stem from their past karma and present circumstances. To be effective, his teaching of the Dharma must be appropriate to their natures. Therefore, over the course of many lifetimes, he purposely traverses the paths of rebirth, studying the Dharma from many Buddhas and other Bodhisattvas, learning the measureless methods for teaching and influencing the almost infinite number of sentient beings. In this way, he acquires the ability to give the highest gift, the gift of the Dharma, to all living creatures.

보살은 법을 설할 때 과거의 업과 현재의 상황에서 비롯된 중생들의 무한한 차이를 이해합니다. 설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 그의 법에 대한 가르침이 그들의 본성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생 동안, 그는 의도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을 선택하며, 많은 부처와 다른 보살들의 법을 연구하고, 무수한 중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무한한 방법들을 배웁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모든 중생에게 최고의 선물인 법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Among all offerings, the offering of the Dharma is supreme. This is the offering of cultivating according to the teachings, the offering of gathering in living beings, the offering of benefitting living beings, the

offering of standing in for living beings who are undergoing suffering, the offering of diligently cultivating the roots of good, the offering of not renouncing the karma of the Bodhisattvas, and the offering of never forsaking the Bodhi-mind. 15

선님자여,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공양이 가장 으뜸이 되나니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며,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며, 중생을 섭수하는 공양이며, 중생의 고를 대신 받는 공양이며,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이며, 보살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며,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니라. 15

Excerpt from the Vajra Prajna-Paramita Sutra¹⁶ and explanation by Venerable Tripitake Master Hsuan Hua

금강경과 삼장법사 선화 상인의 설명에서 발췌했습니다.

All conditioned dharmas

Are like dreams, illusions, bubbles, shadows,

Like dew drops and a lightning flash:

Contemplate them thus.

모든 유위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찰지니라.

Explanation of the Sutra: Everything is a conditioned dharma. Eating, wearing clothes, walking, standing, sitting, lying down, running a business all activities are conditioned dharmas. These are examples of external conditioned dharmas. There are also the five constituents of existence: physical form, feeling thought, volitional formation and consciousness which are conditioned dharmas. The four elements, that is earth (solids), water (liquids), fire (temperature), and air (motion) are conditioned dharmas. The six sense faculties, their objects, and the respective consciousness that arises at each sense faculty when it is in contact with its object are all conditioned dharmas. All those dharmas whether external or internal, Are like dreams, illusions, bubbles, shadows.

경전에 대한 설명: 모든 것은 유위법입니다. 먹고 걷고 서고 앓고 눕고 옷을 입고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활동은 유위법입니다. 이들은 외부적 유위법의 예입니다. 또한 존재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 색, 수, 상, 행, 식은 유위법입니다. 네 가지 요소, 즉 지(고체), 수(액체), 화(온도) 풍(운동)은 유위법입니다. 6근, 6경, 각 감각기관이 대상과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각각의 의식 모두 유위법입니다.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모든 법은 꿈, 환영, 거품, 그림자와 같습니다.

What is a dream? No one knows. If we knew then we would not dream. People are in a perpetual dream. When you fall asleep and dream, you are unaware of the things which exist in your ordinary waking state, and when you awaken from your dream, you usually cannot remember the events of the dream. In the same way, we are unable to remember the events of our former lives, because they have disappeared in this present life's dream.

꿈이란 무엇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꿈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꿈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들고 꿈을 꾸면, 여러분은 보통 깨어있는 상태에 존재하는 것들을 모르고, 여러분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여러분은 보통 그 꿈의 사건들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Someone may have a dream in which he becomes wealthy, is appointed an official, and is on the verge of becoming president, when suddenly someone else says to him, "Sir, you are actually having a dream." But in the midst of his dream of power and wealth, the person cannot believe what he is told.

누군가가 꿈을 꿍니다. 부자가 되어 관리로 임명되어 대통령이 되기 직전 갑자기 다른 사람이 "당신은 사실 꿈을 꾸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권력과 부를 꿈꾸는 속에서, 그 사람은 그가 말한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Everything that is happening to me is real," he says, "I am wealthy, I am an official, I am a candidate for president. How can you say that I am dreaming?" However, when he awakens from his dream, without being told he will know that all those events happened in a dream.

그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현실입니다. 나는 부유하고, 관리이며, 대통령 후보입니다. 어떻게 내가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할 수 입습니까?" 하지만, 그가 꿈에서 깨어나면, 그 모든 사건들이 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될 것입니다.

So, too, we people are as if in a dream. Now I will tell you: this is a dream. Although I have told you, surely you will reply, "What do you mean, a dream? This is all real. These things are actually happening. How can you say it is a dream? You are just deceiving us."

그래서 우리도 꿈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꿈입니다. 비록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대답할 것입니다. "꿈이라니요? 이건 다 진짜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꿈이라고 말할 수 입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When your spiritual cultivation is accomplished, without being told, you will awaken from this dream and know that everything you did in the past was a dream. The reason you do not believe me when I tell you that you are dreaming is that you still have not awakened from your dream.

When you awaken you will agree, "Yes, it was all a dream."

영적 수행이 성취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말해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 꿈에서 깨어나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이 꿈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해도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여러분은 "네, 그것은 모두 꿈이었어요."라고 동의할 것입니다.

Illusions are unreal, like a magician's tricks. The magician recites a mantra and a lotus flower suddenly appears in the water, or in the midst of fire. Or he may cause a piece of jade suddenly to appear as if from nowhere. A magician appears to have spiritual powers and miraculous abilities, but what he does is unreal. Although it seems real, if you investigate, it is seen to be illusory and non-existent. Children may be fooled into believing that the lotus in the fire is real, but an adult will take one look and know that it is a trick.

환영은 마술사의 속임수처럼 실제가 아닙니다. 마술사가 만트라를 외우는데 갑자기 물 속이나 불 속에서 연꽃이 나타납니다. 혹은 옥조각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법사는 영적인 힘과 기적적인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은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처럼 보이지만 조사해 보면 환영이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불 속의 연꽃이 진짜라고 속일 수도 있지만, 어른들은 한 번 보고 그것이 속임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When you understand the Buddha-dharma you know that everything is empty and illusory. The world is empty and illusory; it comes into being from a conflux of conditions which only seem to be real. When you do not understand the Buddha-dharma, you are like the foolish child who considers everything to be real. This is not to belittle people: it is a simple fact. People who do not understand the Buddha-dharma think that being wealthy and having an official position are real. In actuality everything is one. Everything is the same. A person is the same whether he is rich or poor. If you understand that everything is empty and illusory, then you cannot be confused by anything. You will not become attached to unreal states.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공하고 환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공하고 환영입니다; 그것은 현실로 보이는 조건들의 혼란에서 생겨납니다. 부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모든 것을 현실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아이와 같습니다. 이는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사실입니다. 불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과 관직을 갖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같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든 것이 공하고 환영임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에도 혼란스러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실제가 아닌 것에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Bubbles are also unreal, and quickly disappear, thereby revealing their emptiness.

물거품은 또한 실제가 아니며 빠르게 사라져서 공을 드러냅니다.

Shadows follow people around. When there is form, then there is a shadow. The form has actual substance, but the shadow is empty. If explained in more depth, even form itself is empty and unreal. If you do not believe this, then just continue to cling to your body; protect and maintain it, and see whether or not it dies.

그림자는 사람들을 따라다닙니다. 형태가 있을 때 그림자가 있습니다. 형태에는 실체가 있지만 그림자는 공합니다. 좀 더 깊게 설명하면, 심지어 형태 자체도 공하고 실제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몸에 끄달리고 그것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그것이 죽는지 죽지 않는지를 살핍니다.

Like dew drops and a lightning flash. If you look outside early in the morning you will find dew, but after sunrise the dew will have evaporated. A lightning flash is also quite evanescent.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이른 아침에는 이슬이 맺히지만 해가 뜨면 이슬은 사라질 것입니다. 번개 섬광은 또한 짜나 덧없습니다.

Contemplate them thus. You should look upon all conditioned things in this way. If you do, then heaven will be empty and earth will be void. The measure of your mind will be as vast as the heavens and as broad as the reaches of space, free of any impediments. Without impediments you will have no fear whatsoever.

이와 같이 관찰지니라. 모든 조건지어진 것들을 이런 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은 공하고 땅은 텅 빌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늘만큼 넓고, 우주만큼 넓을 것이며, 어떤 장애도 없을 것입니다. 장애가 없다면 어떤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1 *Rulers of the World, Chapter 1, Flower Adornment Sutra.*

1 화엄경 1장 세주묘엄품

2 *Turning the Dharma Wheel Sutra, Dhamma Cakka Ppvattana Sutra, Samyutta Nikaya LVI, 11.*

2 쌍육따 니까야 초전법륜경

3 *Dharmapada*, Verses 183

3 법구경 183

4 *Shurangama Sutra*, Volume 6, BTTS

4 능엄경 6권 BTTS

5 *Sutra-Nipata*, II, 14, *Dhammadika Sutra*. The text is a slightly modified version of a translation done by Venerable H. Saddhatissa, published as *The Sutta-Nipata* (1985, Curzon Press Ltd., London, English),

5 솟다니파타 14

6 *Bodhisattvas Ask for Clarification*, Chapter 10, *Flower Adornment Sutra*.

6 화엄경 10장 보살문명품

7 *Anguttara Nikaya*, II, iv, 2.

7 양웃따라 니까야 II, iv, 2.

8 Complete Text of *Sutra of The Deep Kindness of Parents and the Difficulty in Repaying Its Kindness*. It appears in *Filiality*. the Human Source, Volume Two, BTTS.

8 설대보부모은종경2권 BTTS

9 ibid

9 동일경

10 *Digha-Nikaya*, Sutra 31. The text is based on the translation by Maurice Walshe published as *Thus I have Heard* (1987, Wisdom Publications, London, England).

10 디가나니까야 경31. (1987, Wisdom Publications, London, England).

11 Refer to Chapter 6,7 and 8 for detailed instructions about meditation.

11 명상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6, 7, 8장을 참고하세요.

12 "Skandha" literally means "aggregate" or "bundle", it refers to the five constituents of existence mentioned in Chapter 1: physical form, feelings, thoughts, volitional formations, and consciousness,

12 온은 무더기 혹은 더미라는 뜻입니다. 1장에서 언급한 존재의 5 구성요소: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13 Prajna is a Sanskrit term which is not translated because it has many meanings, and also out of veneration.

13 반야는 산스크리트어로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번역하지 않습니다.

14 *Shurangama Sutra, Volume 4, BTTS.*

14 능엄경 권4 BTTS

15 *Universal Worthy's Conduct and Vows, Chapter 40, Flower Adornment Sutra, BTTS.*

15 화엄경 40장 보현행원품

16 Vajra Prajna-Paramita Sutra, BTTS. "Vajra" is an indestructible substance. "Paramita", literally "arrived at the other shore", means to completely perfect whatever one does.

16 금강반야바라밀다경 금강은 파괴할 수 없는 체입니다. 바라밀다는 피안에 도달한다는 뜻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완벽합니다.

The Buddha Shakyamuni of our World System

우리 세계의 석가모니 부처님

Chapter Four

The Cessation of Suffering: The Realm of the Buddha

Fourth Magnificent Vow of the Bodhisattva: I vow to realize the unsurpassed path of the Buddha.

4장

고통의 소멸:

보살의 사홍서원: 위없는 불도를 이루오리다.

*The Thus Come One observes the world
and produces a heart of great compassion.
In order to benefit living beings, he appears
And shows them the peace and
happiness of the most supreme Path. 1
여래께서 세상을 보고 자비심을 일으키사
중생을 이익케 하려고 출현하시어
저 화평하고 가장 훌륭한 길을 보이느니라. 1*

This corresponds to the Noble Truth of the Cessation of Suffering.

이는 고통의 소멸의 숭고한 진리에 해당합니다.

What, Bhikshus, is the Noble Truth of the Cessation of Suffering? It is the passionless cessation of this very thirst (mentioned in the Truth of the Cause of Suffering) without remainder. Abandoning and renouncing it, being released from and averting from it. 2 The Cessation of Suffering should be realized.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滅聖諦]이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갈애가 남김없이 빛바래어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짐착없음이다. 2 고통의 소멸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The Bodhisattva perfects his Enlightenment through study and practice over many lifetimes. The Bodhisattva then becomes a Buddha. "Buddha" literally means "Awakened One" or "Enlightened One". He is one of ultimate wisdom and compassion. His wisdom encompasses the entire universe without obstruction;

보살은 많은 생에 걸쳐 공부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완성합니다. 그러면 보살은 부처님이 됩니다. "부처"는 문자 그대로 "깨어난 자" 또는 "깨달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궁극적인 지혜와 자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지혜는 장애가 없고 온 우주를 아우릅니다.

his compassion for beings in all states of existence in all worlds knows no bounds. Only when one becomes a Buddha, will one fully realize the cessation of all suffering.

모든 세계의 모든 중생에 대한 그의 연민은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되어야만 모든 고통의 소멸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Therefore, the realm of the Buddha is difficult to fathom. Those who see the Buddha perceive him differently reflecting their own karma. For example, the great Bodhisattvas observe the Buddha always teaching and influencing living beings in every realm of existence. In contrast, common people, because of their limited knowledge and vision, find it difficult to even believe or imagine the state of a Buddha.

그리므로 부처님의 세계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을 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업으로 부처님을 다르게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대보살들은 부처님이 항상 모든 존재의 세계에서 중생들을 가르치고 영향을 주는 것을 관찰합니다. 반면에, 일반인들은 그들의 제한된 지식과 비전 때문에, 부처님의 상태를 믿거나 상상하는 것조차 어려워합니다.

How can living beings in the three realms of existence, in their worldly state and even the Sound Hearers and Those Enlightened to Conditions in their transcendent state, speculate about the Supreme Enlightenment of the Thus Come One? With their limited minds and worldly language

and expressions, how could they enter the knowledge and vision of the Buddha?4

어찌하여 세간의 삼유(三有)의 중생들과 출세간의 성문 연각들이 알고 있는 마음으로 여래의 위없는 보리를 추측하여 해아려서 세간의 언어로써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4

The wisdom of all the Buddhas is limitless and most profound. The gateway to this wisdom is difficult to discover, difficult to enter. It cannot be known by any of the Sound Hearers or Pratyeka Buddhas.5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한이 없느니라.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 어가기 어려워, 성문이나 벽지불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니라. 5

*Why? In the past, these Buddhas have drawn near to countless billions of Buddhas, * exhaustively practicing their uncountable Dharmas of the Path.6*

왜냐하면, 부처님은 일찍이 백 천만여 무수한 부처님을 친근하여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도법을 모두 수행하였느니라. 6

Only one Buddha comes into a world-system at a time, but many Buddhas may appear in a single world system in succession. After the previous Buddha's Dharma has totally disappeared from the world, the next Buddha appears prompting the Dharma to flourish again. For example, in the Sutra of the Ultimate Extinction of the Dharma, Shakyamuni Buddha discusses Maitreya Buddha, the next Buddha to appear in our world system.

한 번에 한 부처님만 세계에 나타나지만, 많은 부처님들이 한 세계에 연달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전 부처님의 법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에 다음 부처님이 나타나서 다시 법이 번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의 세계에 나타나는 다음 부처님인 미륵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When my Dharma disappears, it will be like an oil lamp which flares brightly for an instant just before it goes out. So too, will the Dharma flare and die. is difficult to speak with certainty of what will follow after that time.

나의 법이 사라지면, 꺼지기 직전에 순간적으로 밝게 빛나는 석유 등불과 같을 것입니다. 또한, 법도 그려하여 불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And so it will remain for the next ten million years. Then, when Maitreya is about to appear in the world as the next Buddha, the planet will be entirely peaceful. Evil vapors will have dissipated, rain will be ample and regular, the crops will grow abundantly.⁷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천만년 동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륵불이 다음 부처님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려고 할 때, 지구는 완전히 평화로울 것입니다. 악한 증기는 사라지고, 비는 알맞게 내리며, 농작물은 풍성하게 자랄 것입니다.⁷ Nor is there just one Buddha. In the Sutras the Buddha explained that numerous world systems in the universe have Buddhas in them.

부처님이 한 분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우주의 수많은 세계에 부처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hariputra, all Buddhas, the World Honored Ones, throughout the ten directions in limitless quadrillions of Buddha-lands, presently are greatly benefitting living beings and bringing them peace and happiness.⁸

사리불아, 현재 시방의 백천만억 부처땅에 계신 모든 부처님이 중생을 이롭게 하시고 안락하게 하심이 많으니라.⁸

The following selection of Sutra passages describes the scope of the Buddha's compassion and wisdom.

다음의 경전 구절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The Buddha's Compassion

부처님의 자비

The Buddha contemplates all those in the world: upside-down, ever confused and deluded. They revolve in the suffering of birth and death; so he gives rise to a heart of great compassion. Throughout billions of eons, he cultivates the practices of Enlightenment, wishing to rescue beings through the power of great compassion.

부처님은 전도되고, 혼란스럽고 미혹한 세상의 모두를 관합니다. 그들은 생사의 고통 속에서 돌고 돌니다. 그래서 그는 대자비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그는 대비의 힘을 통해 중생들을 구하기를 바라며 깨달음의 수행을 합니다.

His head, eyes, hands, feet and so forth, all he can totally renounce for the sake of seeking Enlightenment. He does this for limitless eons. 9

그의 머리, 눈, 손, 발 등 모두를 그는 깨달음을 위해 완전히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무한한 겁 동안 합니다. 9

The Buddha toiled through eons

for the sake of living beings,

Cultivating limitless, oceanic great compassion,

In order to comply with living beings

he enters birth and death,

Transforming the multitudes everywhere,

and causing them to be pure. 10

부처님이 지난 겁에 중생을 위하여. 끝없이 큰 자비의 바다를 닦아서.

모든 중생 따라 생사에 들어가 회중들을 널리 교화하여 청정하게 하네. 10

The Buddha's Wisdom

부처님의 지혜

All the gods and people in the world, and all species of living beings, cannot know the Buddhas. The Buddhas' powers, fearlessness, liberations and samadhis, and other Dharmas of the Buddhas, cannot be fathomed by anyone. Long ago, I followed countless Buddhas;

세상의 모든 신들과 사람들, 모든 종류의 중생들은 부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힘, 두려움 없음, 자유, 삼매, 부처님들의 다른 법들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래 전에, 나는 수많은 부처님들을 따랐습니다.

The Cessation of Suffering – The Realm of the Buddha

고통의 소멸 – 부처님의 계

I perfectly walked all the paths of the Dharma, subtle, wonderful and deep, hard to see and hard to grasp. Through limitless millions of eons, I

walked down all these paths. In the place of Enlightenment, I realized the fruit, and have fully known and seen everything. 11

셀 수 없는 부처 따라 온갖 도(道)를 닦았으매, 심오하고 미묘한 법 알아보기 어려워, 한량없는 억만 겁에 그 도를 모두 닦아 행하여 도량에서 이룩한 과보(果報)를 나는 모두 알았노라. 11

Knowing the conduct of living beings, the thoughts deep within their minds, their habitual actions in the past, the nature of their desires, the power of their vigor, and their faculties, keen or dull, they employ various past causes, analogies and expressions, teaching them with appropriate skill-in-means. 12

중생의 모든 행과 마음속에 짓는 생각, 과거에 익힌 업과 욕심, 성질, 정진의 힘, 근기의 차별을 살펴,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인연, 비유, 언사를 써 방편으로 설하노라. 12

Further seen are all the Buddhas, the Lions, the Sagely Masters, expounding on the supreme subtlety and wonder of the Sutras. Clear and pure is the sound of their gentle, mild voices, teaching all the Bodhisattvas, numbering in the countless millions. This pure sound, profound and wondrous, fills those who hear it with joy, as within his world, each one proclaims the proper Dharma. Using past causes and limitless analogies, they clarify the Buddha-dharma to enlighten living beings. 13

거룩한 임이시며 사자이신 부처님들, 미묘 제일의 경전을 설하시니, 아름답고 청정하며 부드러운 말씀으로 보살들을 가르치니, 그 수 셀 수 없도다.

법음(梵音)의 묘함이여, 누구나 듣고 싶고, 보이는 세계마다 바른 법 설하시매, 가지가지 인연 한량없는 비유로 불법을 환히 밝혀 중생을 깨우치시네. 13

The Scope of the Buddha's Spiritual Power

부처님의 신력의 범위

The Buddha told the Bhikshus, "In the past, limitless, boundless, inconceivable, asamkhyeyas 14 of eons ago, there was a Buddha named

Vast Penetrating Wisdom Victory, Thus Come One, One Worthy of Offerings, One of Proper and Universal Knowledge, One Whose Understanding and Conduct are Complete, Well Gone One Who Understands the World, Unsurpassed Lord, Taming and Regulating Hero, Teacher of Gods and Humans, Buddha, World Honored One. His country was named 'Good City', and his eon was named 'Great Mark'. O Bhikshus it has been a great, long time since that Buddha passed into Nirvana."

부처님이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지나간 옛적, 한량없고 그지없고 부사의한 아승지 14겁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대 통지승(大統智勝)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 존이시며, 나라 이름은 호성(好城)이요, 겁의 이름은 대상(大相) 이었느니라. 비구들아,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매우 오래 되었으니, "Now suppose someone were to grind all the earths in a galaxy of a billion world systems into ink powder. Then suppose he traveled beyond a thousand worlds to the east and dropped a particle of that ink powder the size of a mote of dust. Then passing through another thousand worlds he deposited another mote, and continued to do this until all the ink supply made from these earths was exhausted."

비유하면 3천 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형상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갈아서 먹을 만들어 가지고 가면서, 동방으로 1천 국토를 지나서 티끌만한 한 점(點)을 떨어뜨리고 다시 국토를 지나서 또 한 점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여 그 먹이 다하도록 갔다면

"What do you think? Could a mathematician or his students ever finish computing those worlds and know their number?"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국토를, 어떤 셈 잘 하는 사람이나 그의 제자들이 그 수효를 끝까지 알 수 있겠느냐."

"No, World Honored One."

"알지 못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O Bhikshus, if the lands this person had passed through, whether or not he set down a particle in them, were all ground into dust, and if each

dust mote was equal to an eon, then the time since that Buddha passed into Nirvana would exceed that number by limitless, boundless, quadrillions of asamkhyeyas of eons."

"비구들아, 이 사람이 지나간 국토의 점이 떨어진 곳이나 떨어지지 않은 곳을 모두 모아서 부수어 티끌을 만들어서 그 티끌 하나로 한 겁씩을 수놓을 경우, 그 티끌이 다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는 이보다도 더 오래인, 한량 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아승지겁이니라.

"The power of the Thus Come One's knowledge and vision lets me behold that time in the distant past as if it were today." 15

나는 여래의 지견이 있어 그렇게 오래 된 일을 오늘의 일처럼 보느니라." 15

All Buddhas share the same special characteristics and qualities unique to a Buddha. The following are lists of some of the most well-known attributes and virtues of a Thus Come One.

모든 부처님은 부처님만의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래의 가장 잘 알려진 속성과 장점의 목록입니다.

The Ten Powers of a Buddha

부처님의 십력

1. The wisdom-power of being enlightened to what is possible or not possible.	1) 지시각비처력(知是覺非處力): 도리와 비도리를 분별하는 힘이다.
2. The wisdom-power of knowing the karmic retributions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2) 지업보력(知業報力): 업(業)과 그 과보(果報)의 관계를 아는 힘이다.
3. The wisdom-power of knowing all of the dhyanas '6, liberations, and samadhis.	3) 지제선삼매력(知諸禪三昧力): 가지가지 선정(禪定)에 통달하는 힘이다.
4. The wisdom-power of knowing the superiority or inferiority of the faculties of all living beings.	4) 지타중생제근상하력(知他衆生根上下力): 중생의 근기를 아는 힘이다. 5) 지타중생종종욕력(知他衆生種種欲力)

<p>5. The wisdom-power of knowing all of the various understandings of living beings.</p> <p>6. The wisdom-power of knowing all of the various realms of living beings.</p> <p>7. The wisdom-power of knowing where all paths lead.</p> <p>8. The wisdom-power of the knowledge derived from the unobstructed Heavenly Eye.</p> <p>9. The wisdom-power, free from outflows, of knowing former lives.</p> <p>10. The wisdom-power of having severed all habitual energies forever.</p>	<p>): 중생의 욕구나 이해의 정도를 아는 힘이다.</p> <p>6) 지세간종종성력(知世間種種性力): 중생의 성격을 아는 힘이다.</p> <p>7) 지일체도지처상력(知一切道智處相力): 업에 응해서 나타나는 세계를 아는 힘이다.</p> <p>8) 지숙명력(知宿命力): 과거세의 일을 아는 힘이다.</p> <p>9) 지천안력(知天眼力): 미래의 힘을 아는 힘이다.</p> <p>10) 지누진력(知漏盡力): 번뇌가 다 없어진 것(漏盡)을 자각하는 힘이다.</p>
---	--

The Eighteen Exceptional characteristics of a Buddha

부처님의 이례적인 18가지 특징

<p>1. His body is flawless.</p> <p>2. His speech is flawless.</p> <p>3. His thought is flawless.</p> <p>4. He has no perception of differences.</p> <p>5. He has no unconcentrated thoughts.</p> <p>6. There is nothing he does not know and has not already renounced.</p>	<p>1. 그의 몸은 결함이 없습니다.</p> <p>2. 그의 말은 결함이 없습니다.</p> <p>3. 그의 생각은 결함이 없습니다.</p> <p>4. 그는 차이를 인식하지 않습니다.</p> <p>5 그는 집중하지 않는 생각이 없습니다.</p> <p>6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이미 버리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p> <p>7 그의 결심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p> <p>8 그의 정진은 결코 줄어들지</p>
---	---

7. His resolve never diminishes.	않습니다.
8. His vigor never diminishes.	9 그의 념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9. His mindfulness never wanes.	10 그의 지혜는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10. His wisdom never wanes.	11 그의 해탈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11. His liberation never diminishes.	12 그의 지식과 해탈의 비전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12. His knowledge and vision of liberation never diminish.	13 지혜로써 모든 신업을 행합니다.
13. All of his bodily karma is done with wisdom.	14 지혜로써 모든 구업을 행합니다.
14. All of his speech karma is done with wisdom.	15 지혜로써 모든 의업을 행합니다.
15. All of his thought karma is done with wisdom.	16 지혜로써 그는 과거의 장애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16. His wisdom gives him unobstructed knowledge of the past.	17 지혜로써 그는 미래의 장애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17. His wisdom gives him unobstructed knowledge of the future.	18 지혜로써 그는 현재의 장애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18. His wisdom gives him unobstructed knowledge of the present.	

The Thirty-two Physical Hallmarks of a Buddha

부처님의 신체적인 32종

1. Level and full feet.	1 발바닥이 평평한
2. Thousand-spoke wheels on each of his feet.	모습(足下平安立相) 2 발바닥에 2개의 바퀴가 있는

3. Long, slender fingers.	모습(足下二輪相)
4. Supple and soft hands and feet.	3 손가락이 긴 모습(長指相)
5. Fine webbing lacing his fingers and toes.	4 발꿈치가 넓고 평평한 모습(足廣平相)
6. Well set and even heels.	5 손발가락에 갈퀴가 있는모습(手足指網相)
7. Arched insteps.	6 손발이 유연한 모습(手足柔軟)
8. Thighs like the royal stag Aineya (king of deer).	7 발등이 복스러운 모습(足跌高滿)
9. Long, graceful hands which reach below the knees.	8 어깨가 사슴어깨와 같은 모습(伊泥膊相)
10. Well-retracted male organ (like that of a horse).	9 손이 무릎까지 내려간 모습(正立手摩膝相)
11. Height and stretch of arms equal.	10 말의 성기처럼 성기가 감추어진 모습(陰藏相)
12. Every hair root imperial blue color.	11 몸의 넓이와 길이가 같은 모습(身廣長等相)
13. Hair on his body curling upward.	12 터력이 위로 향한 모습(毛生上向)
14. Body the color of true gold.	13 모든 구멍에 터력이 있는 모습(一孔一毛生)
15. Ten foot aura encircling him.	14 몸이 금색으로 된 모습(金色相)
16. Soft, smooth skin.	15 신체주위에 광채가 빛나는 모습(丈光相)
17. The seven places (the convex places at the back of the four limbs, the two shoulders and the trunk of the body) distinctive and full.	16 더러운 흙이 몸에 묻지 않은 모습(細薄皮相)
18. Well filled area below the armpits.	17 두 손, 두발, 두 어깨, 정수리가 둥글고 단정한 모습(七處降滿相)
19. Upper torso like that of a royal lion.	18 겨드랑이가 보기 좋은 모습(兩腋下降滿相)
20. Body erect and upright.	19 상체가 사자같은 모습(上身如師子相)

21. Full and round shoulders like a Nyagrodha tree (perfectly symmetrical like the Banyan tree).	20 똑바로 선 모습(大直身相)
22. Forty teeth.	21 어깨가 둥근 모습(肩圓好相)
23. Teeth white, even and close.	22 40개의 이가 있는 모습(四十齒相)
24. Four pure white canine teeth.	23 이가 가지런한 모습(齒齊相)
25. Jaws like a lion.	24 어금니가 흰 모습(牙白相)
26. Saliva which improves the taste of all food.	25 사자 같은 얼굴모습(師子顏相)
27. Vast and long tongue.	26 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모습(味中得上味相)
28. Voice deep and resonant (emits Brahma-pure sounds).	27 혀가 긴 모습(大舌相)
29. Eyes violet blue.	28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梵聲相)
30. Eyelashes like a royal bull.	29 연꽃같은 눈(眞青眼相)
31. White hair-tuft (urna) between the eyebrow which emits light.	30 소 같은 눈시울을 가진 모습(牛眼腱相)
32. Cowl on the summit of his crown.	31 주먹같은 육계가 있는 모습(頂髮相)
	32 이마 중간에 흰털이 있는 모습(白毛相)

Each of these attributes is a natural reward for a specific kind of good karma Buddhas create during many past lives.

이 각각의 속성은 부처님들이 많은 전생에 지은 특정한 종류의 선업에 대한 자연스러운 보입니다.

The Ten Titles of a Buddha

부처님의 열 가지 명호

1. Thus Come One.
2. One Worthy of Offerings.
3. One of Proper and Universal Knowledge.
4. One Perfect in Understanding and Conduct.

5. Well Gone One Who Understands the World.
6. Unsurpassed Lord.
7. Hero Who Tames and Regulates.
8. Teacher of Gods and Humans.
9. Buddha.
10. World Honored One.

여래, 응공(應供), 정변지(正遍知), 명행족(明行足), 선서(善逝),
 세간해(世間解), 무상사(無上士), 조어장부(調御丈夫), 천인사(天人師),
 불세존(佛世尊)

1 Rulers of the World, Chapter 1, Flower Adornment Sutra.

1 화엄경, 세주묘엄품

2 Turning the Dharma Wheel Sutra, Dhamma Cakka Ppavattana Sutra, Samyutta Nikaya
 LVI, 11.

2 쌍육따 니까야 초전법륜경

3 Sound Hearers", also known as "Arhats", are Sages who have attained a level of genuine Enlightenment in the Buddha's teaching. "Those Enlightened to Conditions", and "Pratyekabuddhas", like the Arhats, are enlightened Sages. Refer to the section on the "Sangha of the Sages" in Chapter 5

3 성문은 또한 아라한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참된 깨달음을 얻은 성인입니다.

아라한과 같이 연각과 벽지불도 깨달은 성인입니다. 5장의 성인의 승가 장을 참고하세요.

4 Shurangama Sutra, Volume 4, BTTS능엄경 4권 BTTS

5 Pratyekabuddha literally means a "Solitary Buddha". This is an individual who like the Arhat on the 4th Stage (see Chapter 5, "Sangha of the Sages") has attained personal liberation, that is, he has transcended the realm of Samsara. Unlike the Arhat, he has discovered the path of Enlightenment on his own like a Buddha has done. However, he does not have the ability to teach living beings in the way a Buddha does.

5 벽지불은 문자그대로 독불입니다. 이는 아라한과 같이 개인적인 해탈을 얻었습니다. 즉 그는 윤회의 계를 넘어섰습니다. 아라한과 달리 그는 부처님과 같이 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처님과 같이 중생을 가르칠 능력이 없습니다.

6 Expedient Devices, Chapter 2, Dharma Flower Sutra, Volume 3,
6 법화경 2품 방편품 (권3 BTTS)

7 The complete text of this sutra appears in the Preface to the Shurangama Sutra,
Volume 1, BTTS.

7 이 경의 완전한 문헌은 능엄경에 서문 (권1 BTTS)에 나타납니다.

8 Expedient Devices, Chapter 2, Dharma Flower Sutra, Volume 3,
8법화경 2품 방편품 (권3 BTTS)

9 Entering the Dharma Realm, Chapter 39, Part 5, Flower Adornment Sutra.

9 화엄경 39장 입법계품

10 Wondrous Adornments of the World-Rulers, Chapter 1, Flower Adornment Sutra.

10 화엄경 1장 세주묘엄품

11 Expedient Devices, Chapter 2, Dharma Flower Sutra, Volume 3, BTTS.

11 법화경 2품 방편품 (권3 BTTS)

12 Expedient Devices, Chapter 2, Dharma Flower Sutra, Volume 3, BTTS.

12 법화경 2품 방편품 (권3 BTTS)

13 Introduction, Chapter 1, Dharma Flower Sutra, Volume 2, BTTS.

13 법화경 1장 (권2 BTTS)

14 "Asamkhyeya" means an immeasurable number.

14 아승지는 무수한 수를 의미합니다.

15 Transformation City, Chapter 7, Dharma Flower Sutra, Volume 7, BTTS.

15 법화경 7장 (권7 BTTS)

16 "Dhyana" literally means meditation or absorption in abstract thought. Refer to Appendix I, Chart of Samsara, the Realm of Birth and Death.

16 선은 명상 혹은 집중을 의미합니다. 부록 1장 삼사라, 생사의 계를 참고하세요.

Review of the Four Noble Truths and the Bodhisattva's Four Magnificent Vows

사성제와 보살의 사홍서원의 리뷰

First Magnificent Vow of the Bodhisattva: I vow to rescue the boundless living beings from suffering.

보살의 첫번째 큰 서원: 한없는 중생을 고통에서 제도하리라.

The Buddha toils through eons for the sake of living beings

Cultivating limitless, oceanic, great compassion.

To comply with living beings, he enters birth and death,

Transforming the multitudes everywhere, so they become pure.¹

부처님은 중생을 위하여

여러 겁에 걸쳐 한없는 대애와 같은 대비를 수행합니다.

중생에 따르기 위해 그는 생사에 들고

모든 곳에 무수하게 나투어 그들을 청정하게 합니다.

This vow corresponds to the Noble Truth of Suffering.

이 서원은 고성제에 해당합니다.

What, Bhikshus, is the Noble Truth of Suffering?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란 무엇인가?

Birth is suffering; old age is suffering; sickness is suffering; death is suffering; sorrow, lamentation, pain, grief, and despair are suffering; to be together with what or those you hate is suffering; to be separated from what or those you love is suffering; not to obtain what you wish for is suffering; in general, identification with the Five Constituents of Existence (physical form, feelings, thoughts, volitional formations, and consciousness) is suffering.² The Truth of Suffering should be understood.

태어남은 괴로움이다. 늙음은 괴로움이다. 죽음은 괴로움이다.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은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것은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은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요약하면 다섯 가지 집착의 무더기[五取蘊]가 괴로움이다.

Second Magnificent Vow of the Bodhisattva: I vow to put an end to the infinite afflictions of living beings.

보살의 두번째 큰 서원: 중생의 한없는 번뇌를 끝내오리다.

Living beings are drowning in the sea of afflictions.

Defiled by deluded and confused views, they are quite alarming.

The Great Teacher feels pity in his heart and enables them to separate from afflictions forever.³

중생들은 번뇌의 바다에 빠져서

어리석음과 탁한 소견으로 매우 두려워하거늘

큰 스승께서 불쌍히 여겨 길이 떠나게 하시네.³

This corresponds to the Noble Truth of the Cause of Suffering.

이는 집성제에 해당합니다.

What, Bhikshus, is the Noble Truth of the Cause of Suffering?

다시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런 진리란 무엇인가?

Just this thirst, leading to being, accompanied by delight and passion, gratifying itself now here and now there; namely the thirst for sense pleasures, the thirst for being, and the thirst for non-being.⁴ (This "thirst" implies ignorance of the first truth of suffering. Ignorance and thirst are the most fundamental afflictions.) The Cause of Suffering should be cut off.

그것은 새롭게 태어남을 일으키는 갈애이다. 쾌락과 탐욕을 동반하고, 항상 새로운 기쁨을 지금 여기저기서 찾으니, 이른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애[慾愛], 존재에 대한 갈애[有愛], 그리고 비존재에 대한 갈애[無有愛]이다.⁴(이 "갈증"은 고통의 첫 번째 진실에 대한 무지를 의미합니다. 무지와 갈증은 가장 근본적인 번뇌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단절되어야 합니다.

Third Magnificent Vow of the Bodhisattva: I vow to learn the measureless Dharmadoors.

보살의 세번째 큰 서원: 한없는 법문을 배우오리다.

Using measureless dharma-doors, he is totally free and easy.

한량없는 법문에 다 자재하시고

*He tames and regulates living beings
throughout the ten directions,*

*And yet while doing all of these among living beings,
the Bodhisattva is detached and makes no discriminations.5*

중생을 조복하여 시방에 두루하되

그 가운데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시네.5

This corresponds to the Noble Truth of the Path That Leads to the Cessation of Suffering.

이는 괴로움의 끝으로 이끄는 멸성제에 해당합니다.

What, Bhikshus, is the Noble Truth of the Path That Leads to the Cessation of Suffering?

다시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Just this eightfold path; namely right views, right intention, right speech,
right behavior, right livelihood, right effort, right mindfulness, and right
meditative concentration.6* (The Bodhisattva's Dharma-doors or methods of practice are the Six Perfections: giving, morality, patience, vigor, meditative-concentration and wisdom.) The Path should be practiced.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성스러운 도道이니, 즉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이다.6 (보살의 법문
혹은 수행 방법은 육바라밀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정정, 지혜) 그 길은
수행되어야 합니다.

Fourth Magnificent Vow of the Bodhisattva: I vow to realize the unsurpassed path of the Buddha.

네번째 보살의 큰 서원: 위없는 불도를 이루오리다.

*The Thus Come One observes the world
and produces a heart of great compassion.
In order to benefit living beings, he appears
And shows them the peace and
happiness of the most supreme Path.*⁷

여래는 세상을 관하고 대비심을 내노라.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그는 출현하였고 가장 위없는 안락의 길을 보이노라.⁷

This corresponds to the Noble Truth of the Cessation of Suffering.
이는 멸성제에 해당합니다.

*What, Bhikshus, is the Noble Truth of the Cessation of Suffering?
비구들이여 무엇이 멸성제인가?*

*It is the passionless cessation of this very thirst (mentioned in the Truth of the Cause of Suffering) without remainder. Abandoning and renouncing it, being released from and averting from it.*⁸ The Cessation of Suffering should be realized. Only when one becomes a Buddha, will one fully realize the cessation of all suffering.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苦滅聖諦]이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갈애가 남김없이 빛바래어 소멸함, 떠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해탈, 집착 없음이다.⁸ 고통의 소멸은 실현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이 되어야만 비로소 고통의 소멸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1 Rulers of the World, Chapter 1, Flower Adornment Sutra.

1 화엄경 1장 세주묘엄품

2 Turning the Dharma Wheel Sutra, Dhamma Cakka Ppavattana Sutra, Samyutta Nikaya LVI, 11.

2 쌍웃따 니까야 LVI, 11 초전법륜경

3 Rulers of the World, Chapter 1, Flower Adornment Sutra. "Afflictions" is a translation of the Sanskrit kleshas which literally means "causing pain, distress, or anguish."

3 화엄경 1장 세주묘염품. 번뇌는 산스크리트어 kleshas를 번역한 것으로 고통, 괴로움, 고뇌를 유발함이라는 의미입니다.

4 Turning the Dharma Wheel Sutra, Dhamma Cakka Ppavattana Sutra, Samyutta Nikaya LVI, 11.

4 쌍웃따 니까야 LVI, 11 초전법륜경

5 Rulers of the World, Chapter 1, Flower Adornment Sutra.

5 화엄경 1장 세주묘염품

6 Turning the Dharma Wheel Sutra, Dhamma Cakka Ppavattana Sutra, Samyutta Nikaya LVI, 11.

6 쌍웃따 니까야 LVI, 11 초전법륜경

7 Rulers of the World, Chapter 1, Flower Adornment Sutra.

7 화엄경 1장 세주묘염품

8 Turning the Dharma Wheel Sutra, Dhamma Cakka Ppavattana Sutra, Samyutta Nikaya LVI, 11.

8 쌍웃따 니까야 LVI, 11 초전법륜경

The Bodhisattva Earth Treasury (Kshitigarbha) Foremost in Vows

서원 제일의 지장 보살

Chapter Five

Sangha, the Third Jewel

5장

승가, 삼보 중 세번 째

All sentient beings, if they seek the Unsurpassed, Proper and Equal, right Enlightenment and the happiness of Nirvana, must take refuge with the Triple Jewel. 1

모든 중생들이 위없는 올바르고 평등한 깨달음(무상정등각)과 열반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삼보에 귀의해야 합니다. 1

People who believe in the Buddha's teachings should formally take refuge with the Triple Jewel. The Triple Jewel is the Buddha, the Dharma, and the Sangha. The third of the three jewels, the Sangha, literally means "harmoniously united assembly." In the Six Paramitas Sutra the Buddha noted three kinds of Sangha.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삼보에 귀의해야 합니다. 삼보는 불, 법, 승입니다. 삼보 중 세 번째인 승가는 문자 그대로 "화합하는 대중"을 의미합니다. 육바라밀경에서 부처님은 세 가지 종류의 승가를 언급했습니다.

The first is the Sangha of the Primary Meaning, consisting of the Sagely Sangha of Buddhas who abide by the Dharma. The second is the Sangha of the Sages. The third is the field of blessings Sangha', comprised of the Bhikshus and Bhikshunis who receive and uphold the moral precepts.

첫 번째 승가는 법을 지키는 불교의 성인들로 구성된 승가입니다. 두 번째는 현인들의 승가입니다. 세 번째는 복전인 '승가'로 도덕적인 계를 받고 지키는 비구와 비구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he Sangha of the Buddhas consists of all the infinite numbers of Buddhas in the world-systems of the universe. In the Buddhist world,

however, the word Sangha generally refers to the Bhikshu and Bhikshuni Sangha the lowest of the three types mentioned by the Buddha. The use of the word "sangha" to refer to the common lay community is misleading and a departure from the traditional usage and meaning of the word, as will be explained later in this chapter. -

부처님의 승가는 우주 세계의 모든 무한한 부처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 세계에서 승가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부처님이 언급한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낮은 유형인 비구와 비구니 승가를 지칭합니다. "승가"라는 단어를 재가자 공동체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것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이 장의 뒷부분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단어의 전통적인 사용과 의미에서 벗어납니다.

The Sangha of Bhikshus and Bhikshunis

비구와 비구니의 승가

The "field of blessings Sangha" consists of Bhikshus and Bhikshunis – men and women who have left the householder's life and completed traditional ordination procedures in which they take vows to strictly adhere to the monastic code laid down by the Buddha. The core of this code of self-discipline (the Vinaya) is celibacy, not taking life, not stealing, and total honesty. The code also includes renunciation of wealth and shunning worldly entertainment. Members of the Bhikshu and Bhikshuni Sangha shave their heads (a symbol of casting off the mundane for the spiritual life) and wear traditional monastic robes that vary somewhat in color and design according to the climate and customs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Their clothing is simple and unadorned – its primary purpose to protect the wearer from the elements. It bears a distinctive cut, however, so as to clearly distinguish monks (Bhikshus) and nuns (Bhikshunis) from the laity, and thereby notify and remind the laity to treat the Sangha in a manner appropriate to their celibate way of life.

"복전 승가"는 비구와 비구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출가하여 부처님이 정한 출가자의 규칙을 엄격히 따르겠다는 서원을 세운 전통적인 구족계를 받은 남녀입니다. 이 자기 수행 강령(율)의 핵심은 금욕, 불살생, 불투도, 정직입니다. 그 강령은 또한 부의 포기와 세속적인 오락을 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비구와 비구니 승가의 구성원들은 머리를 깎고 (영적인 삶을 위해 세속적인 것을 버리는 것을 상징) 각 나라의 기후와 관습에 따라 다른 색상과 디자인의 전통 출가복을 입습니다. 그들의 옷은 단순하고 꾸밈이 없습니다 - 사대로부터의 보호가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그것은 독특한 무늬가 있어 비구와 비구니를 재가자와 명확하게 구별하고 재가자가 금욕적 생활 방식에 적합한 방식으로 승가를 대하게끔 합니다. The importance of the Sangha is demonstrated in the life of the Buddha. As a young prince the Buddha experienced what are known as the "four signs". The first three signs of an old person, a sick person and a dead person were already described in Chapter One. What was the fourth sign? A Bhikshu.

승가의 중요성은 부처님의 삶에서 잘 드러납니다. 왕자였던 부처님은 젊은 나이에 "사문유관"을 경험했습니다. 노인,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의 처음 세 가지 징후는 이미 1장에서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비구입니다.

*At that time a god from the Pure Abodes,
Transfigured as a Bhikshu,
And appeared before the prince.
The prince respectfully stood and welcomed him.
He asked, "Who are you?"*

그 때 저 정거천왕(정거천왕)은
비구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왕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자
왕자는 일어나 공손히 맞이하며 물었네.
“그대는 누구시오.”

The monk replied, "A Shramana (another term for a Bhikshu). Loathing old age, sickness and death, I have left the life of a householder to seek liberation. Old age, sickness, and death bring change and decay to living beings without a moment's rest. Therefore, I seek eternal happiness, which neither ceases nor begins. My mind looks equally upon enemy and friend, I care not for wealth and sex. I dwell in the mountain forests, in the quiet wilderness, without managing any affairs. My worldly thoughts have faded away. Alone I abide at ease in quietude. I do not choose between the fine and coarse. I beg to support my body." Then right before the prince's eyes, the monk deftly leapt into the sky and disappeared. The prince was delighted, and marveled at how the

Buddhas of the past discovered and passed on this majestic way of life.

“나는 출가한 사문(사문)인데 늙음·병듦·죽음을 싫어하여 출가하여 해탈(해탈)을 구한답니다. 중생들 늙고 병들고 또 죽으며 변하여 무너짐이 잠시도 쉬지 않나니 그려므로 나는 항상하고 즐거우며 남[생]도 없고 멸함[멸]도 없음 구하고 있습니다. 원수든 친한 이든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고 재물이나 색(색)을 구하는 일에 애쓰지 않네. 편안한 곳은 오직 산림(산림)뿐으로 텅 비고 고요하여 경영할 것 없다네. 티^티 같은 생각 이미 쉬었고 쓸쓸히 공한(공한)한 곳에 의지하여 정밀하거나 거친 것 가리지 않고 구걸한 것으로 이 몸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그는 곧 태자 앞에서 허공을 날아 멀리 사라져 버렸다. 태자는 못내 마음으로 기뻐하여 오직 과거의 부처만을 생각하였다.²

After seeing this Bhikshu, the prince Siddhartha followed the same way of life. He renounced the life of a householder in quest of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birth and death. When he made this resolve, his father, the king, as well as the king's ministers, tried to stop the young man by commanding his concubines to arouse the young prince's worldly passions.

이 비구를 본 후, 싯다르타 왕자는 같은 삶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는 생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재가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결심을

하자, 왕의 신하들은 물론 그의 아버지인 왕은 후궁들에게 명하여 어린 왕자의 세속적인 정욕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여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There were those who held or hugged him, or arranged his pillow and bed, or lay next to him, saying sweet words, or teased him in a common worldly way, or spoke of many sexual activities, or tempted him with all manner of sexual acts to entice him from his resolve.

혹은 그를 위해 영락(영락)을 걸고 혹은 태자 몸을 부여 안기도 하며 혹은 그를 위해 베개나 자리가 되어 주고 혹은 몸을 기대어 소곤거리기도 하였네. 혹은 세속의 유희로 꼬드기고 혹은 갖가지 애욕의 일 이야기하며 혹은 모든 애욕의 몸짓을 해내어 그 마음을 움직이려 꾀하였네.

The Bodhisattva's mind was pure, solid and difficult to move. As he heard the harem women speak, he felt neither sadness nor joy, but grew in his feeling of disgust. He sighed, "This is really strange. Now I know all these women's hearts are heavy with desire in this way, but don't they realize that their young and robust forms will soon be ravaged by death and old age? How pitiful their great confusion. Delusion envelops their minds.

They should be mindful of old age and death and day and night diligently urge themselves on. It is as if a sharp knife were poised at one's neck. How can one casually laugh? Seeing others grow old, turn sick and die, and not think to look at oneself is to be like a clay or wooden statue. How senseless!3

그러나 보살 마음 깨끗하고 맑으며 견고하여 움직이기 어려웠으니 보살은 모든 채녀 지껄이는 말 듣고 근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은 채 곱절이나 싫어하는 생각을 내어 이것은 참으로 기괴하다 탄식했네. 모든 여자들 음욕의 마음 이와 같음을 비로소 알았네. 젊고 상상한 여색도 잠깐이어서 어느새 늙음·병듬·죽음으로 무너지는 것 모르나니 슬프다, 크게 미혹(미혹)됨이여 어리석음이 그 마음 덮었구나. 늙고·병들고·죽음을 마땅히 생각하여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라. 칼날이 내 목에 다다라 있거늘 어떻게 오히려 웃으며 즐기랴. 남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보고도 제 몸을 돌아보아 살펴볼 줄 모르면 이는 곧 흙이나 나무로 만든 사람이니 어찌 마음에 생각인들 있으랴.3

The concubines could not dent the Prince's resolve. He renounced his royal position, wealth, and all things worldly for the drab garments and shorn head of a mendicant. With a light heart and iron resolve he set out on the ultimate spiritual journey: perfect enlightenment and deliverance from the "prison of the world."

후궁들은 왕자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지위, 부, 세속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출가하여 칙칙한 의복을 입고 삽발하고자 했습니다. 가벼운 마음과 강철과 같은 결심으로 그는 완벽한 깨달음과 "세계의 감옥"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궁극적인 영적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After the Buddha's Enlightenment, some who heard his teaching wished to devote their entire lives to practicing it. Following the Buddha's example, they too renounced the householder's life, shaved their heads, and took up the monastic life under the Buddha.

부처님이 깨달은 후, 그의 가르침을 들은 몇몇 사람들은 평생을 바쳐 그 가르침을 수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도 부처님의 본을 받들어 출가하고 삽발을 하고 부처님 밑에서 수도생활을 했습니다.

The Buddha said, "Men are bound by their wives (and women by their husbands), children, and homes to such an extent that it is worse than being in prison. The time comes when you are released from prison, but there moment when you think of leaving your wife and children. Don't you fear the control that emotion, love, and sex have over you? Although you are in a tiger's mouth, you are blissfully oblivious to it. Those who throw themselves in the mud and drown are known as ordinary people. By passing through this door and transcending defiling objects, you become a Sage."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처자나 좋은 집에 얹매이는 환란(患亂)은 감옥과 질곡과 죄사슬보다 더한 것이다. 감옥은 죄가 풀리는 기한이라도 있지만, 처자에 대한 정욕은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재화(災禍)가 있더라도 제가 오히려 달갑게 여겨 몸을 던지니, 그 죄는 풀릴 기약이 없다." 진흙에 몸을 던져 익사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하여 더러운 물체를 넘어서면 성자가 됩니다."4

As to love and desire: no desire is as deeprooted as sex. There is nothing stronger than the desire for sex. Fortunately, it is one of a kind. If there were something else like it, no one in the entire world would be able to cultivate the spiritual path.5

애욕에 색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색에 대한 욕심은 크기가 끝이 없다. 다행히 하나뿐이기 망정이지 만일 그것이 두 개였다면 만천하 백성 중에 도를 닦는 이가 없었을 것이다.5

Be careful not to trust your own mind; your own mind cannot be trusted. Be careful not to get involved in sex; involvement with sex leads to disaster. Once you have become a Sage (Arhat) then you can trust your own mind.6

삼가 너의 뜻을 믿지 말 것이니, 뜻은 끝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삼가 여인과 만나지 말 것이니, 여인과 만나면 재앙이 생긴다. 아라한의 도를 얻어야 비로소 너의 뜻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6

Bhikshus who have left the householder's life, turn back desire, give up love, and recognize the source of the mind. They penetrate the Buddha's profound principles, and awaken to the Unconditioned. They seek nothing outside; cling to nothing within.7

출가한 비구는 욕망을 되돌리고 사랑을 포기하며 마음의 근원을 인식한다. 그들은 부처님의 심오한 원칙을 깨뚫고, 무조건적인 것에서 깨어난다. 그들은 밖에서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고, 안에서 아무것도 매달리지 않는다.7

The Sangha is a field of blessings. The Bhikshus and Bhikshunis who receive and uphold the moral prohibitions are learned and wise. Like the trees created by the gods, they are able to protect living beings. To encounter the Sangha is like being drenched in a downpour of heavenly sweet rain when one is parched and thirsty in a barren desert. The rain is both timely and satisfying. Moreover, it is like the vast ocean - the source of manifold treasures.

승가는 복전이다. 도덕적 금욕을 수지하는 비구와 비구니는 학식이 있고 현명하다. 신들이 만든 나무처럼, 그들은 중생을 보호할 수 있다. 승가를 만나는 것은 삭막한 사막에서 목이 말랐을 때 하늘의 단비로 갈증을 해소하는 것과 같다. 비는 적절하고 만족스럽다. 게다가, 그것은 다양한 보물의 원천인 광활한 바다와 같다. *The Sangha Jewel, as a field of blessings, is also like this. It can bestow peace and bliss upon all sentient beings. Moreover, this Sangha Jewel is pure and undefiled. It is able to dispel the darkness of living beings' greed, hatred and stupidity, like the bright light of the full moon that all beings gaze at with awe in the evening. It is also like a precious mani pearl that can fulfill all the good wishes of sentient beings.*⁸

승보는 복전으로서 이와 같다. 그것은 모든 중생들에게 안락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이 승보는 청정하고 오염되지 않았다. 저녁이면 모든 존재가 경외심으로 바라보는 보름달의 밝은 빛처럼 중생의 탐욕과 증오와 우둔함의 어둠을 셧어낼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중생들의 모든 좋은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소중한 마니 진주와도 같다.⁸

In the Sutra of Changes to Come the Buddha taught that the Dharma will disappear from the world simultaneously with the disappearance of the Sangha of Bhikshus and Bhikshunis, since the Dharma relies on the Sangha for its existence in the world.

경전에서 법은 승가에 의존해서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비구와 비구니의 승가가 사라짐과 동시에 법은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The Sangha of the Sages

현인들의 승가

Above the Sangha of Bhikshus and Bhikshunis is yet a higher Sangha: the Sangha of the Sages. This includes those who have realized the Arhat or Bodhisattva levels of enlightenment. The "Stream-enterer", lowest of the four stages of Arhats,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ordinary people. The minds of common people continuously seek for pleasurable experiences outside through the sense organs. The Stream-enterer has

turned his mind around, tending inwards, away from sense objects. This is a natural result of the unfolding of wisdom that has forever eliminated the “view of a self”. That is, the Stream-enterer profoundly sees that there is nothing in Samsara that can be taken to be "I, mine, or myself". The Stream-enterer's position is irreversible: he can never be like a common person again, nor fall into the three lower realms of existence (animals, ghosts and beings in the hells). He is incapable of transgressing the Five Precepts. Within, at most, seven lives, he will become a fourth stage Arhat. For all of these reasons, he said to have entered the stream of the Sages.

비구와 비구니의 승가 위에 더 높은 승가, 현자들의 승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라한이나 보살의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흐름에 든 자"는 수다원으로 일반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감각 기관을 통해 바깥에서 즐거운 경험을 지속적으로 찾습니다. 흐름에 든 자는 감각적인 대상에서 벗어나 내부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마음을 돌렸습니다. 이는 '아견'을 영원히 없앤 지혜가 펼쳐지면서 생긴 당연한 결과입니다. 즉, 흐름에 든 자는 윤회에 "나, 내 것,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깊이 봅니다. 흐름에 든 자의 위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는 다시는 평범한 사람처럼 될 수 없으며, 세 가지 낮은 존재의 계(축생, 아귀, 지옥)에 빠질 수 없습니다. 그는 오계를 범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7생 내에 아라한이 됩니다. 이 모든 이유로, 그는 현자들의 흐름에 들었다고 합니다.

Making an offering of food to 10,000 people who hold the Five Precepts does not equal offering food to a single Stream-enterer.⁹

오계를 지키는 사람 만 명을 공양하는 것이 한 명의 수다원을 공양하는 것만 못하고.⁹

The fruit of the Stream-enterer surpasses kingship over the whole earth. It is preferable to rebirth in the heavens, and better than supreme rulership over all worlds.¹⁰

지상에서 유일한 왕권보다 천상계로 가는 것보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보다 진리의 흐름에 든 것이 탁월하다.¹⁰

The Sage's experience of the world is difficult for common people to fathom. They acquire psychic abilities that coincide with their developed concentration and wisdom. They do not seek these abilities, sometimes called "spiritual penetrations", for even seeking spiritual power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Buddha's teachings. At the point of seeking nothing whatsoever, paradoxically, "one arrives," i.e., enlightenment occurs and one's innate wisdom and compassion come forth. This is the purport of the Buddha's method and instruction. So, while not an end in themselves, nonetheless spiritual penetrations can enable one to more effectively help other beings.

현인의 경험은 보통 사람들이 해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발달된 집중력과 지혜와 일치하는 심령 능력을 얻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힘을 추구하는 것조차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때때로 "신통"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능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는 시점에서 역설적으로 "도달합니다", 즉 깨달음이 일어나고 타고난 지혜와 연민이 나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방법과 가르침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통력은 다른 존재들을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Fourth stage Arhats have ended birth and death in the three realms of existence. They possess the Five Eyes and the Six Spiritual Penetrations - highly developed psychic powers and extrasensory discernment.
아라한은 삼계의 생사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오안과 육신통- 고도로 발달된 초능력과 초감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The Five Eyes

오안 五眼

1. With the Heavenly Eye one can survey the different heavens and hells; one can see what the gods in the heavens are doing just as if watching a movie, and events thousands of miles away can be witnessed without impediment.

1. 천안天眼으로 여러 하늘과 지옥을 관찰할 수 있고,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천상의 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수천 마일 떨어진 곳의 사건들을 장애없이 볼 수 있습니다.
2. The Flesh Eye does not refer to the flesh eyes of ordinary people. Rather, it is a "spiritual eye" with which one can see spirits and ghosts.
2. 육안肉眼은 보통 사람들의 육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귀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입니다.
3. With the Dharma Eye one observes relative truth. This eye enables one to understand all the affairs of worldly existence. It is said that with this eye one can see Buddhist Sutras in every atomic particle.
3. 법안法眼으로 상대적인 진실을 관찰합니다. 이 눈을 통해 세속적인 삶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눈으로 모든 소립자에서 불교 경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4. The Wisdom Eye is the functioning of worldtranscending wisdom (prajna). One comprehends the true nature of all phenomena as empty, i.e., without an intrinsic nature of their own, because all phenomena are relative and exist in dependence on other causes and conditions. Therefore, they have no inherent, real, or lasting independent existence.
4. 혜안慧眼은 출세간 지혜의 기능입니다. 모든 현상은 상대적이며 다른 인연에 의존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현상의 진정한 본질은 공하고 그 자체만의 고유한 본질이 없음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고유하고, 실제적이며,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5. With the Buddha Eye, the most powerful of the five spiritual eyes, analogous to a blazing sun, one can see billions of worlds system without end
5. 불안佛眼은 다섯 가지 영안 중 가장 강력한 눈으로 이글거리는 태양에 비유합니다. 이 불안으로 수십억 개의 세계를 끝 없이 볼 수 있습니다.

The Six Spiritual Penetrations

육신통

1. The Heavenly Eye. The same as the first of the Five Eyes above.
2. The Heavenly Ear can hear the speech and sounds of the gods in the heavens.
3. The Knowledge of Others' Thoughts. One knows the thoughts in others' minds before these thoughts are verbalized.
4. The Knowledge of Past Lives. One can know one's own and others' previous existences.
5. The Cessation of Outflows. One has extinguished greed, hatred, and stupidity forever, thereby transcending birth and death.
6. Spiritual Accomplishments. This refers to a host of minor spiritual powers.
 1. 천안통. 위의 오안 중 첫 번째 눈과 같습니다.
 2. 천이통은 천상의 신들의 말과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3. 타심통. 생각을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알고 있습니다.
 4. 숙명통.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전생을 알 수 있습니다.
 5. 누진통. 탐진치를 영원히 멀하여 생사를 초월합니다.
 6. 신족통.

People who are not Sages can acquire the Five Eyes and five of the Six Spiritual Penetrations. They cannot, however, obtain the penetration of the Cessation of Outflows. Only fourth stage Arhats gain that spiritual penetration. These "eyes" and penetrations come in many degrees and levels depending on the cultivated skill and karma of the individual. For example, a fourth stage Arhat can see the past lives of living beings as over a hundred far back as 80,000 great kalpas quadrillion years, whereas a common person with the penetration of past lives may only be able to see back a few hundred years.

현자가 아닌 사람들은 오안과 육신통 중 다섯 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진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아라한만이 그 신통을 얻습니다. 이러한 "눈"과 신통은 개인의 수행과 업에 따라 많은 다른 정도와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라한은 중생의 전생을 80,000 대겁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반면, 숙명통이 있는 일반인은 몇 백 년 전밖에 볼 수 없습니다.

Moreover, even though the fourth and highest stage Arhats have ended birth and death in the three realms of existence of Samsara their enlightenment is not ultimate. A great achievement, nonetheless it is limited in scope, as it is only personal enlightenment.

더구나 아라한이 삼사라의 삼계에서 생사를 끝냈다고 해도 그 깨달음은 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오직 개인적 깨달음이므로 위대한 업적의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The Bodhisattvas enlighten themselves and also enlighten other sentient beings. Their state of accomplishment is thus more difficult and more profound than the Arhats. The lowest level of Bodhisattva in the Sangha of the Sages is the "First Dwelling", called "One Who Has Brought Forth the Bodhi-Mind". The Ten Dwellings, Chapter 15 of the Flower Adornment Sutra, states that when a Bodhisattva attains this position, although he has not yet fully perfected the Ten Powers of a Buddha,¹¹ he enjoys ten kinds of wisdom which closely correspond to them. In Entering the Dharma Realm, Chapter 39 of the Flower Adornment Sutra, the pure youth Good Wealth visits a Bodhisattva on this level of Enlightenment. This Bodhisattva displays magnificent spiritual powers that enable him to visit Buddhas in millions of other worlds throughout the universe.

보살들은 스스로 깨닫고 다른 중생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성취 상태는 아라한보다 더 어렵고 더 심오합니다. 현인들의 승가에서 보살의 가장 낮은 단계는 "보리심을 발한 자"라고 하는 "초지"입니다. 『화엄경』 15품의 『십지』에는 보살이 이 지를 얻을 때, 비록 부처님의 십력을 완전히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그것들에 상응하는 열 가지 종류의 지혜를 누린다고 합니다. 화엄경 39 '입법계품'에서는 선재 동자가 이 깨달음의 단계에서 보살을 찾아갑니다. 이

보살은 그가 우주의 수백만 다른 세계의 부처님들을 방문할 수 있는 훌륭한 영적인 힘을 보입니다.

Indeed, in this chapter of the Flower Adornment Sutra, Good Wealth visits 55 Bodhisattvas, each of whom represents a successive level of Enlightenment. Some are human beings, some are gods, some are spirits. They appear in many shapes and forms as needed to help sentient beings. Their state, with its powers, compassion, and resourcefulness, is inconceivable. Therefore, the Sangha of the Sages can indeed appear as members of the laity. However, the common laity can by no means be considered to be members of the Sangha.

실제로 화엄경의 이 장에서는 선재 동자가 55명의 보살들을 방문하는데, 이들은 각각 연속적인 깨달음의 단계를 상징합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이고, 어떤 이들은 신이고, 어떤 이들은 영혼입니다. 그들은 중생들을 돋기 위해 필요한 많은 모습과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힘, 자비, 재원은 불가사의합니다. 그러므로 현자들의 승가는 실제로 재가자의 일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재가자는 결코 승가의 일원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The realm of the Sangha of the Sages is very profound. One cannot claim such a level of attainment without certification by someone who is truly enlightened. Further, genuine Sages do not tell others that they are enlightened. They seek anonymity, not fame like common people. A person who tells people he is enlightened is actually very deluded. Thus, the Buddha forewarned that individuals openly proclaiming their "enlightenment" are merely deceiving themselves and deceiving others.

현인들의 승가의 세계는 매우 심오합니다. 진정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인가 없이는 그런 수준의 성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진정한 현인들은 그들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처럼 명성이 아닌 익명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매우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자신의 "깨달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사람은 단지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How can people who make such claims, other than at the end of their lives, and then only to those who inherit the teaching, be doing anything but deluding and confusing living beings and indulging in gross false claims? 12

오직 죽을 적에 가만히 유언으로 부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중생을 현혹하고 혼란하게 하여 큰 거짓말을 하겠느냐? 12

Good and Wise Teachers

선지식

Members of the Sangha who are truly experienced cultivators of the Dharma, and those of the Sagely Sangha, are our good and wise teachers. For one practicing the Dharma it is absolutely essential, in order to make genuine progress, to secure the guidance of a good and wise teacher. Just as a child needs parents to protect, guide, and teach him while growing up, so too, in world-transcending matters, it is vital as a "child" in things spiritual to have a teacher to protect, guide and give instruction.

진정으로 법을 수행하는 숙련된 승가의 구성원들과 성스러운 승가의 구성원들은 우리의 선지식들입니다. 법을 수행하는데 진정 진전하기 위해서는 선지식의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지도하고 가르칠 부모가 필요한 것처럼, 출세간의 문제에서도 보호하고 지도하고 가르침을 줄 스승은 영적인 '아이'에게 필수적입니다.

For example, as we progress in our Dharma practice and develop skill in meditation, we may experience some unusual states. These are all quite normal and often a sign of progress, although to the novice they may seem unusual and disconcerting. A good and wise teacher is familiar with these states and can interpret them, thus allaying any fears or equally deflating any pretensions of a beginner. Without mature and wise guidance, it is very easy to go down a wrong road. The closing volume of

the Shurangama Sutra describes fifty states in particular which cultivators may experience and should be aware of.

예를 들어, 수행이 진전하고 명상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 우리는 몇 가지 특이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초심자들에게는 이례적이고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들은 모두 꽤 정상적이고 종종 진전의 신호입니다. 선지식은 이러한 상태들에 익숙하고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완화하거나 초심자의 허세를 똑같이 약화시킵니다. 성숙하고 현명한 지도가 없다면 쉽게 잘못된 길로 갑니다. 능엄경의 마지막 권에서는 특히 수행자들이 경험할 수 있어 알아야 할 50가지 경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Some inexperienced (and even experienced) meditators encounter these states and mistakenly think they have become enlightened. It is easy to see how a person without proper guidance could make this kind of critical error in judgment. The following is the first of the fifty states the Buddha describes in the Shurangama Sutra.

경험이 부족한 어떤 명상가들은 이러한 경계들을 접하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적절한 지도가 없는 사람은 이런 종류의 결정적인 판단 실수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처님이 능엄경에 묘사한 50가지 경계 중 첫 번째 경계입니다.

Ananda, be aware that as you sit in the Bodhimanda (a place, such as a monastery, where the Dharma is practiced), you are doing away with all thoughts. When those thoughts come to an end, you are free of all thinking. You enter a state of unadulterated clarity. Your mind no longer shifts between movement and stillness, and remembering and forgetting become one and the same.

아난다여, 수행자가 도량에 앉아서 모든 생각을 없애어서 그 생각이 만약 다하면 그 생각을 여읜 경지에 일체가 정미롭고 밝아져서 동(動)에도 정(靜)에도 끌리지 않고, 생각함과 잊음이 한결 같아지면

When you dwell in this place and enter Samadhi, you are like a person with clear vision who

lives in utter darkness. The wonderfully pure mind that is your pristine nature does not yet emit light. This is called the region of the form skandha. 13

이러한 경지에서 삼매(三昧)에 들게 되는 것인데, 그 때 마치 눈 밝은 사람이 큰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아서 정미로운 성품은 묘하고 청정하나 마음이 아직 빛을 내지 못하니 이것을 색음(色陰)의 구역이라고 한다. 13

If the person's eyes become clear, then he experiences the ten directions as an open expanse and the darkness is gone. This is called, "the end of the form skandha." This person transcends the kalpa turbidity and can now contemplate its cause. This person can see that false notions of firmness and solidity form the basis of the form skandha.

만약 눈이 밝고 맑아 시방세계가 환하게 열리면서 다시는 어두워지거나
캄캄해지지 않을 것이니 이것을 이룸하여 ‘색음이 다 없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된
사람은 능히 겁탁(劫濁)을 초월할 것이니 그 색음의 원인을 관찰하면 견고한
망상이 그 근본이었던 것이다.

Ananda, at this point, when you are intently investigating that wondrous clarity, the four elements are no longer united, and soon the body can transcend obstructions. This is called "your essential light merging into the environment." It is a temporary state in the course of cultivation and does not indicate you are a Sage. If you do not think you have become a Sage, this could be a good state. But if you think you have become a Sage, you will make yourself vulnerable to the demons' influence. 14

수행자가 이 가운데 있으면서 묘하고 밝은 성품을 정밀하게 연구하여
사대(地水火風)가 서로 얹히지 않으면 잠깐 동안 몸이 걸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밀하고 밝은 성품이 앞 경계에 훌러 넘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것은 다만 수행의 힘으로 잠시 그렇게 된 것이지 성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아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내지 않으면 훌륭한 경계라고 하겠지만 만약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곧 많은 마(魔)들의 유혹을 받게 된다. 14

If we mistake any one of these states for an Enlightened state, we will certainly run spiritually aground. If, further, we then try to teach others,

even if our intentions are pure, we will end up only confusing them as well and creating serious bad karma for ourselves. The importance of a genuine good and wise teacher becomes obvious when one studies the Sutras. His extensive personal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of the Buddha's teachings has spelled, and will continue to spell, the difference between success and failure for students of the Dharma.

만약 우리가 이 경계 중 하나를 깨달음의 경계로 착각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좌초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비록 의도가 청정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자신에게 심각한 나쁜 업을 짓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선지식의 중요성은 경전을 공부할 때 분명해집니다. 선지식의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광범위한 개인적 경험과 이해는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설명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Good man, if you wish to accomplish All-wisdom, you must find a true, good and wise teacher. Good man, never tire of seeking for him, and upon encountering him, never grow weary of him. You must follow all of his teachings. And you must not find fault with his skill-in-means. 15
선남자여, 만약 모든 지혜를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진실한 선지식을 찾아야 합니다. 선남자여, 선지식을 찾는 것에 지치지 말고, 그를 만나도 그에게 삶증을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의 모든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에게 결점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15

Conclusion

결론

Taking refuge with the Buddha, the Dharma and the Sangha is the first step on the road to enlightenment and solving the problem of existence. "Why do I exist?" and "Who am I really?" These are questions all of us must grapple with and decide. They certainly deserve our very careful consideration. The unexamined life is a life lived in vain.

불법승에로의 귀의는 깨달음의 길로 가는 첫걸음이며 존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나는 진정 누구인가?" 이것들은 우리 모두가
해결하고 결정해야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것들은 확실히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숙고하지 않은 삶은 헛됩니다.

1 Six Paramitas Sutra 1 육바라밀경

2 Acts of the uddha (Buddhacharita) by Master Ashvagosha

2 마명 불소행찬(佛所行讚)

3 ibid 3 동일경

4 Sutra in 42 Sections, BTTS,

4 42장경

5 ibid 5 동일경, 6 ibid 6 동일경, 7 ibid 7 동일경

8 Six Paramitas Sutra. 8 육바라밀경

9 Sutra in 42 Sections, BTTS, 9 42장경

10 Dharmapada,

10 법구경

11 See chapter 4 for complete list of the ten Powers.

11 십력에 대한 전체 목록은 4장을 참고하십시오.

12 Shurangama Sutra, Volume 6, BTTS.

12 능엄경 6권

13 Skandha" literally means "aggregate" or "bundle", it refers to the five constituents of existence mentioned in Chapter 1: physical form, feelings, thoughts, volitional formations, and consciousness.

13 온은 더미 혹은 끓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1장에서 언급한 존재의 다섯가지 구성 요소: 색수상행식을 의미합니다.

14 Shurangama Sutra, Volume 8. The importance of the Shurangama Sutra is verified by the Buddha when he says that it will be the first Sutra to disappear in our world when the Dharma begins to perish. Refer to the Sutra of the Ultimate Extinction of the Dharma which appears in the practice in the preface of Shurangama Sutra, Volume 1, BTTS.

14 능엄경 8권. 능엄경의 중요성은 부처님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마가 불법을 파괴하기 시작할 때 능엄경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첫번째 경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5 Entering the Dharma Realm, Chapter 39, Part 1, Flower Adornment Sutra, BTTS

15 화엄경 39 입법계품 BTTS

The Venerable Tripitaka Master Hsuan Hua

삼장 법사 선화 상인

PART II

The Schools of Buddhist Practice

2부

불교 수행의 종파

Below, by way of an introduction to this subject, is an interview with Venerable Tripitaka Master Hsuan Hua conducted by Karl Ray, which originally appeared in the former Shambala Review under the title "Back to the Source".

아래는 이 주제를 소개하기 위해 카를 레이가 삼장법사 선화 상인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이전에 샘발라 리뷰에 게재했습니다.

Karl Ray: The first question I would like to ask is (KR) based on an article in which you suggest that Buddhists forget sectarian lines. Can you suggest practical steps that Buddhist organizations can take to bring this about?

칼 레이(KR):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불자들에게 종파에서 벗어나라고 제안하는 글에 대한 것입니다. 불교 단체들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Master(M): Before the Buddha came into the world there was no Buddhism. After the Buddha appeared, Buddhism came into being, but there was not as yet any division into sects or schools. Sectarianism is a limited view, a view of small scope, and cannot represent Buddhism in its entirety. The complete substance of Buddhism, the totality, admits no such divisions. When you divide the totality of Buddhism into sects and schools, you merely split it into fragments. In order to understand Buddhism in its totality, one must eliminate views of sects and schools

and return to original Buddhism. One must return to the root and go back to the source.

마스터(M):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불교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이 출현한 후 불교가 생겨났지만, 아직 종파나 종으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종파는 제한된 관점, 작은 범위의 관점이며 불교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불교의 완전한 실체, 전체는 그러한 분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전체를 종파와 종으로 구분하면 불교를 단지 조각으로 나눌 뿐입니다. 불교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파와 종의 견해를 없애고 본래의 불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고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KR: That brings me to a question about the different teachings taught here at Gold Mountain Monastery. I understand that you teach five different schools, including the Ch'an School, the Teaching School, the Vinaya School, the Secret School, and the Pure Land School. Can they all be taught like this together? Do they all belong to the original corpus of Buddhist teachings?

KR: 그것은 여기 금산사에서 가르치는 다른 가르침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선종, 교종, 율종, 밀종, 정토종 등 5개의 다른 종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와 같이 모두 함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모두 원래 불교의 가르침에 속합니까?

M: The Five Schools were created by Buddhist disciples who had nothing to do and wanted to find something with which to occupy their time. The Five Schools all issued from Buddhism. Since they came forth from Buddhism, they can return to Buddhism as well. Although the Five Schools serve different purposes, their ultimate destination is the same. It is said, There is only one road back to the source, But there are many expedient ways to reach it.

M: 오종은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을 보낼 무언가를 찾고 싶어하는 불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오종은 모두 불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불교에서 왔기 때문에 불교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비록 다섯 부류의 종이 의도는 다르지만, 최종

목적지는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뿐이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lthough there are five different schools, they are still included within one "Buddhism". If you want to understand the totality of Buddhism, you need not divide it up into schools or sects. Originally there were no such divisions. Why make trouble when there is none? Why be divisive and cause people to have even more false thoughts than they already have?

비록 다섯 부류의 다른 종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의 "불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교 전체를 이해하고 싶다면, 불교를 종이나 종파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는 그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구분이 없는데 왜 문제를 만드나요? 왜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망상을 일으키나요?

People think that the Five Schools are something really special and wonderful. In fact, they have never departed from Buddhism itself. It is just like the government of a country. The government is made up of different departments. There is a Department of Health, a Department of Economics, a State Department, a 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so forth. People may not realize that all these different departments are under a single government. All they recognize is the department, and they don't recognize the government as a whole. Their outlook is narrow. Now, we wish to move from the branches back to the roots. In the analogy, the roots are the government and the branches are the various departments. People should not abandon the roots and cling to the branches. If you only see the individual departments and fail to recognize the government, you will never be able to understand the problems faced by the country as a whole. You will have no idea what they are all about.

사람들은 오종이 정말 특별하고 멋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들은 불교 자체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는 마치 한 나라의 정부와 같습니다. 정부는 다른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부, 경제부, 국무부, 내무부 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다른 부서들이 하나의 정부 하에 있음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인식하는 것은 부서뿐이고, 정부 전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전망은 좁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지에서 뿌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비유에서 뿌리는 정부이고 지부는 다양한 부서입니다. 사람들은 뿌리를 버리고 가지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개별 부서만 보고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직면한 문제를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전혀 모를 것입니다.

KR: Then one should feel free to pursue any or all of the teachings?

KR: 그렇다면 그 가르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추구해야 할까요?

M: Of course. Religion cannot be allowed to tie one up.

M: 물론이죠. 종교는 사람을 묶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KR: And if one chooses to follow only one certain school, can one reach the goal that all of them aim for?

KR: 누군가가 특정한 종을 따르기로 선택한다면, 그들 모두가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M: All roads lead to Rome. All roads come to San Francisco. All roads will take you to New York. You may ask, 'Can I get to New York by this road?' but you would do better to ask yourself, 'Will I walk that road or not?'

M: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 모든 길은 샌프란시스코로 통합니다. 모든 길은 여러분을 뉴욕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길로 뉴욕에 갈 수 있을까요?'라고 물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그 길을 걸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The following chapters cover three of the most widely practiced schools of Buddhism.

다음 장에서는 불교에서 가장 널리 수행하는 세 가지 종파에 대해 다룹니다.

The Great Master Hui Neng, Sixth Chan Patriarch in China¹

중국의 육조 혜능 선사

Chapter Six

The Chan (Zen) School

6장

선종

Once when Shakyamuni Buddha was about to speak the Dharma, the Great Brahma Heavan King² presented him with a golden lotus. The Buddha held up the flower before the assembly without saying anything. At that time,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gods and people who were present were silent, unaware of its significance. Only Mahakashyapa³ responded by smiling. Then the Buddha said,

한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을 설하려 할 때, 대법천왕²이 그에게 황금색 연꽃을 선물했습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그 꽃을 회중 앞에 들어올렸습니다. 당시 수십만 명의 신들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직 마하가섭만이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I have the Treasury of the Proper Dharma Eye, the wondrous mind of Nirvana, the Reality beyond appearances, a subtle and wondrous Dharma-door, which is not based on the written or spoken word. It is a special transmission outside the teachings. I entrust this to Mahakashyapa."*⁴

*"나에게 정법안장열반묘심, 실상무상미묘법문, 불입문자, 교외별전, 총지임자, 범부성불, 제일의제가 있는데, 지금 바야흐로 마하가섭에게 부축한다."*⁴

This event 2500 years ago was the beginning of the Chan (Zen) School. The Japanese word "Zen" comes from the word "Chan" in Chinese. The word Chan itself is a transliterated and abbreviated version of the

Sanskrit word "Dhyana". Originally the Chinese took the word Dhyana and transliterated it as Chan Na. Later they shortened it to just Chan. 2500년 전의 이 사건은 선(젠)종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어 "Zen"은 중국어의 "Chan"에서 유래했습니다. 선이라는 단어 자체는 산스크리트어 단어 "Dhyana"의 번역되고 축약된 버전입니다. 원래 중국인들은 Dhyana라는 단어를 Chan Na라고 번역했습니다. 나중에 Chan으로 줄여서 불렀습니다.

Chan is distinguished by four characteristics:

선은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It is not established by words,
1. 언어로 세울 수 없습니다.
2. It is a special transmission outside the teachings,
2. 그것은 가르침 밖에서 특별히 전해집니다.
3. It directly points to the human mind,
3. 인간의 마음을 직접 가리킵니다.
4. Through it, one sees one's own nature and becomes a Buddha.
4. 그것을 통해 본성을 보고 부처님이 됩니다.

Chan is transmitted directly from one mind to another mind. Its teaching simply directs the individual to see one's own inherent, true mind, referred to as "seeing the nature and returning to the source." That is, the enlightened teacher, profoundly aware of the mind of his student, certifies that the student's mind is indeed truly "awakened". This is a direct certification, mind to mind, that can only be done by a Sage.

선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전해집니다. 그 가르침은 단지 개인에게 "본성을 보고 근원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고유하고 진정한 마음을 보도록 지시합니다. 즉, 제자의 마음을 깊이 인식한 깨달은 스승은 제자의 마음이 진정 "깨어났음"을 인가합니다. 이는 오직 현자만이 할 수 있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전하는 인가입니다.

Chan is also known as the "unfixed teaching", because both the means and the ends of Chan focus on nonattachment and subduing the ordinary "mad" mind that habitually tries to fix and shape reality to fit its own whims and preconceptions. A genuine and skilled Chan master employs a creative variety of techniques, tests, and teachings to help the student "stop the mad mind". These techniques can range from riddles, humor, and gentle scoldings to unorthodox strategies like total silence, expulsion from the monastery, or a slap in the face. The techniques themselves hold no significance or special power, rather their effectiveness lies in being uniquely suited to a particular individual at a particular time. The success of the unfixed teaching depends completely on the teacher's wisdom to spot what is appropriate to transform the student and the timing of delivery. These methods can take many different forms, but the results are identical: healthy, spiritual growth.

선은 또한 "고정되지 않은 가르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의 수단과 목적이 모두 집착하지 않고 보통의 미친 마음을 조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미친 마음은 습관적으로 자신의 변덕과 선입견에 따라 현실을 조정하고 만들어 나갑니다. 진정 숙련된 선사는 학생이 "미친 마음을 멈추도록" 돋기 위해 독창적인 다양한 기술, 테스트 및 가르침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수수께끼, 유머, 온화한 꾸짖음에서부터 완전한 침묵, 사찰에서의 추방 또는 뺨 때리기와 같은 비정통적인 전략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기술 자체가 중요하거나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효과는 어떤 특정한 때에 특정한 개인에게 적합합니다. 정해지지 않은 가르침의 성공은 스승의 지혜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는 제자를 변화시키기에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언제 가르침을 전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여러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건강한 영적인 성장이라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One bestows the teachings for the sake of the individual. One prescribes the medicine according to the illness.

개인을 위해서 가르침을 줍니다. 병에 따라 약을 처방합니다.

All of the ancient Chan Patriarchs from Mahakashyapa up through the Tang Dynasty, some 1200 years later when the Chan School branched out into five separate lineages, were outstanding members of the Bhikshu Sangha. Stern and pure in their upholding of the moral discipline, they taught by their unassailable life-style, actual accomplishment, and genuine humility. They were exemplars of lofty virtue and profound practice.

마하가섭에서 당나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고대 선 조사와 약 1200년 후 선종이 다섯 개의 다른 법맥으로 갈라진 후의 일부 선 조사들은 뛰어난 승가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 규율을 엄격하고 청정하게 지켰고 그들의 확고한 삶의 방식, 실제적인 성취, 진정한 겸손으로 본보기를 보입니다. 그들은 송고한 덕과 심오한 수행의 표본이였습니다.

During the Ming Dynasty (1368–1644 AD), the Great Master Han Shan wrote the following essay that shows even during his time people with genuine realization in Chan were few. They are undoubtedly more rare in the present time.

명나라 (1368년-1644년) 시대에, 한산대사는 다음과 같은 수필을 썼습니다. 이를 통해 그 당시에도 진정 선을 깨달은 사람들은 극소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현재 깨달은 사람들은 더욱 드뭅니다.

Good Teachers Are Hard to Find

좋은 스승은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In the past, when the Chan movement flourished, clear-eyed good and wise teachers abounded. The monks who investigated were many; so too the instances of genuine realization.

선 운동이 번성했던 과거에는 눈 밝은 현명한 스승들이 많았습니다. 참구한 스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정 깨달은 사례도 많았습니다.

Now, however, it isn't Chan which is lacking, but rather, that good teachers are hard to find. Now the home of Chan has become lonely and desolate. It has been that way for a long time already. Sure, there are

those who impulsively resolve to investigate Chan. And they may even be fortunate enough to meet good and wise teachers who employ provisional techniques to help them make progress according to their propensities, and certify them according to their potential. Nonetheless, these students have shallow faculties, and easily jump to the conclusion that they already have some attainment. Moreover, they do not believe in the Sagely Teachings of the Thus Come One, do not seek the true and proper path, and insist on muddling along in their own confusion. Consequently they settle for cheap imitation "seals of approval". Not only do such people delude themselves, they misguide others as well. Isn't this something to be apprehensive about?

지금 부족한 것은 선이 아니라 좋은 스승입니다. 좋은 스승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선의 집은 외롭고 황량해졌습니다. 벌써 오래 전부터 그러하였습니다. 물론, 선을 참구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운이 좋으면 선지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선지식들은 잠정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제자들의 성향에 따라 진전을 돋고 그들을 인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근기가 얇고, 스스로 이미 어느 정도 성취했다고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게다가, 그들은 '여래'의 성인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진실하고 올바른 길을 찾지 않으며, 자신들의 미혹 속에서 혼란스러운 길을 고집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값싼 모조품과 같은 "인가"에 만족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합니다. 이것이 우려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Moreover, prime ministers and others among the laity, who had some level of attainment as recorded in the Annals of the Transmission of the Light (1004-1107 AD) were just a handful. Within the wearisome dust of this present age, there are those who can't even uphold the major precepts, and whose false thinking is wild and turbid. And yet, relying on their worldly intelligence, they read a few of the records of the virtuous ones of old and start believing that they themselves have unsurpassed superior faculties. Thereupon they become extremely conceited and, thinking themselves already enlightened, engage monks in a Chan battle

of wits. This is a sickness of the times; it is a case of one blind person leading a hoard of blind people.

게다가, 전등록(1004-1107 AD)에 기록된 어떤 단계를 성취한 재상들과 다른 재가자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 시대에 주요한 계율조차 지키지 못하고, 망상이 거칠고 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속적인 사고에 의존하여, 옛사람들의 덕망 있는 자들의 몇 가지 기록을 읽고 그들 자신이 위없는 수승한 근기를 지니고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도로 자만하고,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스님들과의 법거량에 참여합니다. 이는 우리 시대의 병폐입니다. 한 장님이 한 무리의 장님을 이끄는 경우와 같습니다.

Today this old monk has pointed out some essential aspects of working hard at cultivation as was practiced by the Buddha and the Patriarchs. Those of you who are clear-headed and intelligent should rectify yourselves according to these standards.

오늘날 이 노승은 부처님과 조사들이 행했던 것처럼 열심히 수행하는 본질적인 측면들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중 머리가 맑고 영특한 자들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스스로를 고쳐나가야 합니다.

The purpose of including this essay in this introduction is to emphasize that genuine attainment in Chan requires hard work and long effort under a good teacher. Moreover, genuine attainment is difficult to recognize as it manifests in a self-effacing, low profile. Someone with true achievement does not wish to advertise or call attention to himself/herself. A teacher's only concern is to carry on the teachings by training students sincerely motivated to walk the Way.

이 수필을 서론에 포함시키는 목적은 선을 진정 성취하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 밑에서 열심히 오래도록 노력을 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게다가, 진정한 성취를 이룬 사람은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성취를 이룬 사람은 자신을 알리거나 주위의 관심을 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스승의 유일한 관심사는 제자들이 그 길을 걷도록 진심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가르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Patience, No Greed, and Perseverance: Three Requisites for Sitting in Meditation

좌선에서 세가지 필요한 요건: 인내, 탐하지 않음, 꾸준함

by Venerable Master Hsuan Hua

선화상인

Patience

인내

What must you be patient with? You must learn to bear the pain in your back and the pain in your legs. When you first begin to sit in Chan meditation, you will experience pain in your back and legs because you are unaccustomed to sitting that way. In the beginning this pain may be hard to bear, so you have to be patient.

여러분은 무엇을 인내해야 합니까? 허리의 통증과 다리의 통증을 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처음 좌선을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앓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허리와 다리에 통증을 경험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고통을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아야 합니다.

No Greed

탐하지 않음

Those who investigate Chan should not hope for enlightenment. If you think about how you want to become enlightened, then even if you were meant to get enlightened, that single thought will obstruct your enlightenment and prevent it from happening. Furthermore, you should not, because of greed, seek for quick results in your practice. It is not that you can sit today and get enlightened tomorrow. So many of today's young people are turned upside-down, and although they want to investigate Chan and study the Buddhadharma, they take drugs which they say is a means of becoming enlightened fast. This is a grave mistake

Not only will such people not get enlightened, the more they study in this way, the more confused they become.

선을 참구하는 사람들은 깨달음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하면, 깨달음을 얻을 운명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의 생각이 여러분의 깨달음을 방해하고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욕심으로 수행에서 빠른 결과를 추구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않았다고 해서 내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었고, 선을 참구하고 불법을 공부하고 싶지만, 그들은 소위 말하는 빨리 깨달음을 얻는 수단이라는 약을 복용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실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부할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Therefore, I stress to you; don't try to get a bargain. Don't try to do it fast. Don't think that without putting out any effort you can cash in on welfare. There is nothing of value obtained without working for it.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흥정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복지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하지 않고는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Perseverance

꾸준함

You must be constant in your practice of Chan. The best way to sit is in full-lotus. Full-lotus simply requires placing your left ankle on your right thigh, and then lifting your right ankle onto your left thigh. This posture can quiet your mind. It is your foundation in sitting in Chan. You should train yourself to sit that way. Some of you protest, "My legs are stiff and I can't sit that way."

여러분은 선을 꾸준히 수행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좌법은 결가부좌입니다. 결가부좌는 왼쪽 발목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오른쪽 발목을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리면 됩니다. 이 자세는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이것이 좌선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앉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다리가 뻣뻣해서 그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라고 항의합니다.

Well, then try sitting in "half" lotus, which is when your left ankle is on your right thigh.

자, 그러면 왼쪽 발목을 오른쪽 허벅지에 올리고 "반가부좌"로 앉아 보세요.

"But I can't even do that!" some may say.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Well, then you'll just have to sit in a cross-legged position, in whatever way is possible for you. But you should be working to get into half-lotus and eventually into full-lotus. Full-lotus is the foundation for sitting in meditation. Since it is fundamental, work to master it. If you try to build a house on bare ground, the first big rain that comes along will wash it away. The first big wind that blows will dismantle it. The same is true for meditation without a foundation.

그럼 가능한 어떤 식으로든 다리를 틀고 앉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반가부좌를 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결국에는 결가부좌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가부좌는 명상 좌법의 기반입니다. 결가부좌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 자세를 숙달하도록 하세요. 만약 맨땅에 집을 지으면, 큰 비에 씻겨져 나갈 것입니다. 강한 바람에 해체될 것입니다. 기초가 없는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Once your legs are in full-lotus, hold your body erect. Sit up straight, head looking straight ahead, and do not lean forward or backward; do not incline to the left or right. Keep your spine absolutely straight. Curl your tongue back against the roof of your mouth. Then if you salivate you can swallow the saliva. So, people who cultivate Chan should also not smoke cigarettes or take drugs because they turn your saliva bitter.

일단 다리를 결가부좌하면, 몸을 똑바로 세우세요. 똑바로 앉아 머리를 정면을 바라보면서 앞이나 뒤로 기울이지 말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기울이지 마십시오. 척추를 완전히 똑바로 유지하세요. 혀를 입천장에 대고 뒤로 마세요. 침이 나오면 침을 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거나 약을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이 씁쓸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Your eyes are neither completely open nor closed. If you leave your eyes open while meditating, it is very easy to have false thinking about what you see. If you completely close your eyes while sitting, it is very easy to fall asleep. So keeping your eyes partially open is a good way to counteract both problems.

눈은 완전히 뜨지도, 감지도 않습니다. 명상을 하는 동안 눈을 뜨고 있으면, 보이는 것에 대해 망상을 하기 쉽습니다. 만약 앉아 있는 동안 눈을 완전히 감으면, 잠들기 매우 쉽습니다. 따라서 눈을 반개하는 것이 두 가지 문제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As to your mind don't think of anything. Don't entertain any false thoughts. Don't think about what state you are experiencing or hope to experience, and I don't think about how you want to get enlightened. The affairs of this world are not that simple. A thief who steals other's money ends up with wealth that is not his own. If you work and earn money then the wealth you accumulate is your own. The same principle applies to Chan. Don't be greedy for quick results, hoping to become enlightened fast. Don't be greedy to get a bargain. If in your cultivation you are greedy for small benefits, then you will never get the big ones. Meditation, like all cultivation, must be practiced daily without interruption.

마음에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망상을 품지 마세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하기를 바라는 상태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는 도둑은 결국 자신 소유가 아닌 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일을 해서 돈을 번다면, 여러분이 축적한 재산은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선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빨리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며 빠른 결과에 욕심내지 마세요. 값을 깎으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수행에서 작은 것을 욕심낸다면 결코 큰 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명상은 모든 수행과 마찬가지로 매일 끊임 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But when will I be enlightened?" you ask.

"하지만 내가 언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라고 여러분은 물습니다.
It all depends on how hard you work. If you investigate all day from morning to night, while walking, standing, sitting and lying down, your skill will mature and you will certainly become enlightened. For example, you cannot see the trees grow, but every day they become taller. Meditation is like the wild grass growing in the spring: you cannot see it grow, but daily it becomes more profuse.

그것은 모두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걷고, 서고, 앓고, 누우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참구하면 실력이 늘고 분명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없지만, 매일 그들은 자랍니다. 명상은 봄에 자라는 틀풀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없지만, 매일 그것은 더 풍부해집니다.

Of course, everyone wants to become enlightened quickly, but if you don't do the work, how can you? When you went to school, you passed through grades from elementary school to high school to the University and then perhaps went on to get a Master's or a Doctorate. It is much harder to become a Buddha.

물론 모든 사람들이 빨리 깨달음을 얻고 싶어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학교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년이 올라가고 대학교를 가고 석사나 박사 학위로 올라갑니다. 부처님이 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A Verse from the Song of Enlightenment

증도가

by the Great Master Yung Chia (7th Century),
with an explanation by the Venerable Master Hsuan Hua
7세기의 위대한 영가 스님이 지었고
선화 상인이 설명합니다.

*Dharma wealth is lost: merit and virtue destroyed,
Due to nothing else than the conscious mind.
Through the door of Chan the mind comes to rest,
And one suddenly enters the powerful, unborn knowledge and vision.*

법의 재물을 덜고 공덕을 없애는 것은
심의식으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선문에서는 마음을 물리치고
남이 없는 지경의 힘으로 단박에 들어가도다.

Explanation: Why is it that cultivators of the spiritual path are not successful? Why don't they get a response from their sitting or other methods they happen to cultivate? Why is it that although we do meritorious deeds we lose our merit and virtue? It happens for no other reason than this: our conscious mind acts up. Our "mind" engages in false thinking; our "intellect" is busy calculating; and our "consciousness" is busy discriminating. Because our thoughts have not become focused and concentrated, we cannot "quiet our thoughts".

설명: 영적인 도를 닦는 수행자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좌선이나 다른 수행 방법으로 감응을 얻지 못하나요? 선행을 해도 공덕을 잃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작용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망상을 하고, 우리의 "머리"는 계산하기 바쁘고, 우리의 "의식"은 분별하느라 바쁩니다.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조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Sitting in Chan is called "the quieting of thoughts". It means putting all errant thoughts to a complete rest. However, it is not easy for us to stop our automatic thinking system. The invisible wind of karma stirs up the sea of consciousness – huge billows and waves surge up, one wave after another without cease. Do our false thoughts have a physical appearance? No. You may be aware they are there, but upon further scrutiny, you discover that they have no substance. Our false thoughts

fly everywhere, from one place to the next, like ocean waves crashing on the shore. Sometimes they resemble huge breakers; other times they are like small ripples. At ordinary times we are unaware of these false thought waves because we live right in the midst of them and therefore do not recognize them as false thoughts. However, when we sit quietly, even for a short moment, we become aware of how these uncountable numbers of thoughts surge up in our minds like countless waves on the ocean.

좌선은 "생각을 고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망상을 완전히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동 사고 시스템을 멈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업의 바람이 의식의 바다를 휘젓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며, 끊임없이 파도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망상은 형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망상이 거기 있음을 알지도 모르지만, 더 자세히 참구해 보면, 망상의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망상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모든 곳으로 날아갑니다. 이는 해안에 부딪치는 파도와 같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파도이고, 때로는 작은 물결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망상의 파도를 평소에는 지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파동 바로 그 가운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망상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조용히 앉아 있으면 우리는 이 셀 수 없는 생각들이 바다 위의 무수한 파도처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솟구치는지 알게 됩니다.

Therefore, The Song of Enlightenment says, Dharma wealth is lost, merit and virtue destroyed, due to nothing other than the conscious mind. When our thoughts are not focused, and we indulge in casual discrimination, then our eighth consciousness is torn by many thoughts of right and wrong, which rise and sink like waves. Because the mind, intellect, and consciousness are so busily involved in discursive thinking and speculation, we have an uncountable number of false thoughts. As a result, our Dharma wealth and merit and virtue are completely lost.

그러므로 증도가에서는 이르길 법의 재물은 상실되고, 공덕은 파괴된다고 합니다. 이는 오직 의식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지 않고 일상적인

분별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팔식은 파도처럼 오르내리는 많은 옳고 그름의 생각에 의해 찢겨집니다. 마음과 사고, 의식이 산만한 생각과 사색에 너무 분주하게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수한 망상을 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법의 재물과 공덕은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Through the door of Chan the mind comes to rest. The door of Chan refers to the Dharma-door, the method, of investigating Chan, which one does not pursue the discriminations of the intellect, but instead brings all thoughts to a single focus, thereby quieting the mind. Then the mind reaches a state of unadulterated purity. For this reason, in the Chan School we investigate a meditation topic, such as "What was my original face before my parents gave birth to me?" Actually, the meditation topic is also a false thought. That being so, why do we still want to use it? Because the meditation topic is a "mantra" to keep the monkey (the mind) in check. If we did not have a method to keep the monkey in check, then this monkey would scamper all about with wild abandon, jumping up and down. We might investigate "Who is mindful of the Buddha?" and try to find out "who is reciting Amitabha".

그러므로 선문에서는 마음을 물리치고 선문은 선을 참구하는 법문입니다. 선을 참구하는 방법은 머리로 분별하지 않고 모든 생각을 하나에 집중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완전히 청정한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부모가 낳아주기 이전에 어떤 것이 나의 본래면목인가?"와 같은 명상 주제를 참구합니다. 사실 명상 주제도 망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나요? 왜냐하면 명상 주제는 원숭이(마음)를 견제하기 위한 "만트라"입니다. 만약 원숭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면, 이 원숭이는 마구 뛰어다니며 방방 뛸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부처님을 염하는가'를 참구하고 '누가 아미타불을 염하는가'를 알아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Someone might answer, "It's me who is reciting!"

누군가는 답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염불하고 있습니다!"

Well, you say you are reciting, but have you ever seen this person who is reciting? Do you recognize who you truly are? Your present body is a

false union of the four elements of earth, water, fire, and air. When those four elements disperse, where have you gone to?

글쎄요. 여러분은 자신이 염불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염불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몸은 지수화풍 사대가 거짓으로 결합된 것입니다. 이 사대가 흩어지면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For this reason, we look into "Who is mindful of the Buddha?" We bore into our topic, as if using a drill. The tougher the resistance, the more steadfastly we have to bore through. We investigate, boring deeper and deeper into this question until: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누가 부처님을 염하는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는 드릴을 사용하는 것처럼 주제를 깊이 파고 듭니다. 저항이 강할수록 더 확고하게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될 때까지 이 질문에 대해 더 깊게 지루하게 참구합니다.

The mountains crumble and the waters dry up And it is uncertain whether there is a road ahead at all.

산이 무너지고 물이 마릅니다. 앞길이 전혀 불확실합니다.

Then right in the shadow of the willows and bright flowers appears another village. 7

그리고 바로 버드나무와 밝은 꽃들의 그늘에 또 다른 마을이 나타납니다. 7

To put it in a nutshell: Chan is not manipulated or controlled by the discriminating consciousness.

간단히 말해서 선은 분별식에 의해 조종되거나 통제되지 않습니다.

And suddenly one enters the powerful, unborn knowledge and vision.

Before you have understood, then even when you are sitting in Chan you are constantly engaged in false thinking, and that way, you will never become enlightened. The requirement for enlightenment is concentration. If all the false thoughts in your head can cease, then your

true wisdom will be revealed. Becoming enlightened means to understand; to no longer be deluded.

남이 없는 지경의 힘으로 단박에 들어가도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전에, 좌선할 때에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코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집중력입니다. 머리 속에 있는 모든 망상을 멈출 수 있다면, 진정한 지혜가 드러날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미혹하지 않습니다.

Those of you who sit in Chan, do not be afraid of the pain in your legs or back. Have a vajra-like resolve. Use the three qualities of firmness, sincerity, and perseverance. Be resolute, unchanging, and constant in your effort. The virtuous monks of ancient times would practice sitting for several decades. This work is not simple. It is not like you can "have peonies today and trade them for lotuses tomorrow". You cannot be enlightened in only one day of meditation. You must develop patience and always attend classes on Chan.

좌선하는 사람들은 다리나 등의 통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금강과 같은 결심을 하세요. 단호함, 성실함, 인내의 세 가지 자질을 사용하세요. 단호하게, 변하지 않으며, 꾸준하게 노력하세요. 과거의 덕있는 스님들은 수십 년 동안 좌선을 수행했습니다. 이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란을 가지고 내일 연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명상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인내심을 키우고 항상 선 수업에 참석해야 합니다.

And in what way should you practice meditation? Look at the way a girl pursues her boyfriend or a boy pursues his girlfriend. If you can use the same kind of fervor and dedication in every passing thought during the investigation of your meditation topic, then you will obtain success without fail.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명상을 수행해야 할까요? 여자가 남자친구를 쫓거나 남자가 여자친구를 쫓는 것을 보세요. 명상 주제를 참구하는 동안 지나가는 모든 생각에 같은 종류의 열정과 헌신을 사용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1 Although the Master was illiterate, he had reached a profound level of Enlightenment. As one of the greatest Chan Masters, he is so venerated that the record of his life and teachings, known as the Sixth Patriarch Sutra, is considered to be a canonical text.

1비록 선사는 문맹이었지만, 그의 깨달음의 단계는 심오했습니다. 그는 육조대사로 가장 위대한 선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기록은 매우 존경을 받습니다. 육조단경은 표준경으로 간주됩니다.

2 The Brahma Heaven King is the ruler over the First Dhyana Heavens. See Appendix I under the Form Realm Heaven for further information.

2 범천왕은 초선천의 통치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I에서 색계천을 참조하십시오.

3 Mahakasyapa was one of the Buddha's great disciples. He is foremost in the cultivation of ascetic practices.

3 마하가섭은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고행 수행에 최고입니다.

4 Sutra of the Great Brahma Heaven King Questioning the Buddha to Resolve his Doubts.
4대범천왕문불결의경입니다.

5 See Chapter 3 for detailed explanation of the Five Moral Precepts.

5오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장을 참조하십시오.

6 This instructional talk appears in Listen to Yourself, Think it Over, Volume 2, BTTS.

6 이 법문은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생각하기, 2권, BTTS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7 A common Buddhist saying in China. Origin unknown.

7 중국의 잘 알려진 불교 속담입니다. 출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The Buddha Amitabha

(Limitless light) in the Western World, Ultimate Happiness

서방극락정토의 아미타불(무량광)

Chapter Seven

Pure Land School

7장

정토종

Moreover, Shariputra, in that Buddhaland there is always divine music and the ground is yellow gold. In the six periods of the day and night a heavenly rain of mandarava (white lotus) flowers fall, and throughout the clear morning, each living being of that land, offers sacks full of the myriad of wonderful flowers, to the hundreds of billions of Buddhas in the other directions…

"사리불이여, 저 불국토에서는 항상 천상의 음악이 연주되고, 황금으로 땅이 되었고 밤낮으로

하늘에서 만다라꽃이 내려오며, 그 불국토의 중생들은 새벽마다 바구니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을 담아 가지고 다른 세계로 다니면서 십만억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Shariputra, in that Buddhaland when the soft wind blows, the rows of jeweled trees and jeweled nets give forth subtle and wonderful sounds, like one hundred thousand kinds of music played in symphony. The hearts of all those who hear are naturally inspired with mindfulness of the Buddha, mindfulness of the Dharma, and mindfulness of the Sangha... 1

사리불이여, 그 불국토에서 미풍이 불면 보석으로 장식된 가로수와 망라(網羅)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데, 마치 백천 가지 악기가 동시에 연주하는 듯하여,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자연히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할 마음이 우러나나리. 1

A Buddha's "Pure Land" is a world-system imbued with many special characteristics: the three evil destinies of the hells, ghosts and animals are absent; the earth is gentle and even; the landscape beautiful and distinctively lovely. Life there resembles our vision of living in blissful heaven. Yet, unlike the heavens, the luxury and grandeur of a Pure Land is designed to inspire in the inhabitants mindfulness of the Triple Jewel. Dwellers there always get to hear the Buddha and his retinue of Bodhisattvas teaching the Dharma. All beings born in the Pure Lands eventually become Buddhas themselves in other world-systems, or they purposely remain high Bodhisattvas to help living beings. Once born in a Pure Land one never again falls into the three lower realms of existence or retreats from the Buddha's path.

부처님의 "정토"는 많은 특별한 특징이 있는 세계입니다: 지옥, 아귀, 축생의 삼악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땅은 온화하고 고릅니다; 풍경은 아름답고 독특하게 사랑스럽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안락한 천국과 닮았습니다. 하지만, 천국과 달리, 정토의 호화로움과 웅장함은 정토에 있는 존재들이 삼보를 염하도록 고취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정토의 존재들은 항상 불보살님들이 법을 가르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정토에서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결국 다른 세계에서 부처가 되거나, 중생을 돋기 위해 의도적으로 높은 보살로 남아 있습니다. 정토에 태어난 사람은 다시는 삼악도에 떨어지거나 불도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Amitabha Buddha established a Pure Land called the "Land of Ultimate Happiness", situated billions of world-systems from us in the west. Amitabha means "Measureless Light" and Amitayus, another one of his names, means "Measureless Life". Beings in our world have close affinities with Amitabha Buddha, therefore our Buddha, Shakyamuni, spoke the Amitabha Sutra on our behalf. The Amitabha Sutra will be the last Sutra to remain in our world as the Dharma declines. After the Amitabha Sutra disappears, the only Buddhadharma remaining in the world will be the words "Namo (Homage to) Amitabha Buddha". These words will survive for one hundred years bringing liberation to limitless

beings who sincerely recite them. After that, only the words "Amitabha Buddha" will endure as an efficacious method for seeking liberation. After another hundred years Amitabha Buddha's name will disappear leaving no more Buddha-dharma in our world, until the next Buddha, Maitreya, appears in about ten million years.

아미타불은 서쪽의 수십억 세계에 위치한 "극락정토"라고 하는 정토를 세웠습니다. 아미타는 "무량광"을 의미하고, 그의 또 다른 이름인 아미타유스는 "무량수"를 의미합니다. 우리 세계의 중생들은 아미타불과 인연이 깊기 때문에 우리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미타불을 대신하여 말하였습니다. 법이 쇠퇴함에 따라 아미타경은 우리 세상에 남아 있는 마지막 경이 될 것입니다. 아미타경이 사라진 뒤 세상에 남아 있는 불법은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말뿐입니다. 이 말은 백년 동안 남아서 진심으로 염하는 무한한 중생들을 해탈하게 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아미타불이라는 말만이 지속되어 해탈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아미타불의 이름은 사라질 것이고, 약 천만 년 후에 다음 부처님인 미륵불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 세상에는 더 이상 불법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This explains why the method of reciting the name of Amitabha Buddha is considered to be so important in Buddhism. There are three prerequisites for being reborn in the Land of Ultimate Happiness.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미타불의 명호를 염하는 방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극락정토에 왕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 Faith. There must be a basic faith in oneself: that by turning away from the bad and going towards the good we can transform ourselves to a degree that merits this superior rebirth. We also, must believe the Pure Land does indeed exist.

1 믿음.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쁜 것에서 벗어나 좋은 것으로 향함으로써 우리는 이 수승한 왕생에 합당한 수준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정토가 실제로 존재함을 믿어야 합니다.

In Buddhism, faith is extremely important. It says in the Flower Adornment Sutra,

불교에서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화엄경'에 이릅니다.

*Faith is the source of the Path,
the mother of merit and virtue.
It nurtures all good dharmas.2*

믿음은 불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라.

일체의 선한 법을 다 길러 내느니라.2

2. Vows. We must make vows to be reborn in the Pure Land, and also, make great vows to benefit all sentient beings.

2. 서원. 우리는 정토에 왕생하기 위해 서원을 세워야 하며, 또한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위대한 서원을 세웁니다.

3. Practice. We need to really cultivate the Buddha's teachings, and diligently recite the Buddha's name.

3. 수행.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정정 수행하고, 부처님의 명호를 열심히 염해야 합니다.

The Buddha said that one who wishes to be reborn in Amitabha Buddha's Pure Land must cultivate the following virtues:

아미타불 정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덕목을 길러야 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First, one must be filial to and serve one's parents, respect teachers and elders, have a kind heart and not kill any being, and practice the ten kinds of good karma.3

첫째,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며 마음이 착하고 어떤 존재도 죽이지 않으며 십선업을 수행해야 합니다.3

Second, one must receive the three refuges (taking refuge in the Triple Jewel), and perfect the various moral regulations.

둘째, 삼귀의(삼보에 귀의)를 해야 하며, 여러 가지 도덕적 규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합니다.

Third, one must resolve to become Enlightened, have deep faith in cause

*and effect, recite the Great Vehicle Sutras, and diligently practice according to them.*4

보리심을 내고 인과의 도리를 믿고 경전을 독송하고 그에 따라 부지런히 수행합니다.4

In the Sixth Patriarch Sutra, the Great Chan Master Hui Neng said,

육조단경에서 혜능선사는 이르길

Common, deluded people do not understand their inherent nature and do not know that the Pure Land is within themselves. Therefore they make vows for the East and West. To enlightened people, all places are the same. As the Buddha said, "In whatever place one dwells, there is constant peace and happiness."

일반적인 미혹한 사람들은 그들의 고유한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토가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동서양을 위해 서원을 세우느니라. 깨달은 사람들에게 모든 곳은 같으니라. 부처님이 이른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안란하느니라."

If the is mind-ground without only unwholesomeness, the West is not far from here. If one harbors unwholesome thoughts, one may recite the Buddha's name, but it will be difficult to be reborn there.

다만 마음에 깨끗치 않음이 없으면 서방정토가 여기서 멀지 않고, 마음에 깨끗치 아니한 생각이 일어나면 염불하여 왕생하고자 하여도 이르기 어렵느니라.

Instructions on Reciting the Buddha's Name

염불의 지침

by the Venerable Master Hsuan Hua

The reason this simple method is so efficacious is that in former lives, when Amitabha Buddha was cultivating, he practiced many Dharmas and suffered innumerable bitter experiences all of which he found difficult to use and perfect. Accordingly, he made forty eight great vows, one of

which states that any person who recites his name will be assured rebirth in his world system

이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효과적인 이유는 전생에 아미타불이 수행할 때 그는 많은 법을 수행하고 수많은 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완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그는 48가지 위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 중 하나는 그의 명호를 외우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세계에서 왕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in the West, the Pure Land of Ultimate Happiness, and there become enlightened. Our recitation is like sending a telegram to Amitabha Buddha in the West. At the end of our lives, the Bodhisattvas will guide us to be reborn in his Western Pure Land.

서방극락정토에서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의 염불은 서방의 아미타불에게 전보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날 때, 보살은 우리를 그의 서방 극락 정토에 왕생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From morning to night, moving or quiet, at all times, you can recite. While moving, you can recite and change motion into stillness; when still, you can recite and turn stillness into motion. When there is neither motion nor stillness, your telegram to Amitabha Buddha has gotten through and you have received his response.

아침부터 밤까지,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간에, 언제나 염불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동안, 염불하고 움직임을 고요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요할 때, 여러분은 염불하고 고요함을 움직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고요하지도 않을 때, 아미타불에게 보내는 전보는 통과되고, 그의 답장을 받습니다. If you maintain your recitation with undivided attention morning and night without stopping, you may recite to the point that you don't know that you are walking when you walk, you don't feel thirsty when you are thirsty, and you don't experience hunger when you are hungry, you don't know you are cold in freezing weather, and you don't notice the heat in hot weather. People and things are empty, and you and Amitabha Buddha become one. 'Amitabha Buddha is me and I am Amitabha

Buddha.' The two cannot be separated. Recite single-mindedly and sincerely without false thinking. Pay no attention to worldly concerns. When you don't know the time and don't know the day, you may arrive at a miraculous state.

아침저녁으로 쉬지 않고 주의를 기울여 염불하다 보면 걸을 때 걷는지 모르고, 목이 마를 때 갈증을 느끼지 않고, 배고플 때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며, 추운 날씨에 추운 줄도 모르고, 더운 날씨에도 더위를 모를 정도로 염불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물건은 공하고, 여러분과 아미타불은 하나가 됩니다. '아미타불은 나이고 나는 아미타불입니다.' 그들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망상 없이 진실하게 염불하세요. 세속적인 문제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시간을 잊고 날짜를 잊을 때, 기적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You may ask, "But isn't that just being dumb?"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바보가 되는 것 아닌가요?"

In fact, rather than having become dumb, you will have experienced 'great wisdom which seems like stupidity'.

사실, 여러분은 바보가 되기보다는 '어리석은 것 같은 위대한 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The Bodhisattva Great Strength explains the practice of reciting the Buddha's name in the Shurangama Sutra, (Volume 5):

대세지보살은 능엄경(5권)에서 염불 수행에 대해 설명합니다.

If two people remember each other until the memory of each is deep, then in life after life they will be together like a form and its shadow, and they will never be at odds.

두 사람이 서로 기억해서 이렇게 기억하는 두 생각이 깊으면 이와 같이 이생에서 저생에 이르도록 형체에 그림자가 따르듯이 서로 어긋나지 않으리니,

Out of pity for living beings, the Thus Come Ones of the ten directions are mindful of them as a mother remembers her child. If the child runs away, what use is the mother's regard for him? But if the child

remembers his mother in the same way that she remembers him, then in life after life the mother and child will not be far apart.

시방 여래는 중생을 가엾게 생각하심이 마치 어미가 아들을 생각하듯 하시나니 만약 아들이 도망하여 간다면 비록 생각한들 무엇하겠느냐? 아들이 만약 어머니를 생각함이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할 때처럼 한다면 어미와 아들이 여러 생을 지내더라도 서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

If living beings are always mindful of the Buddha, certainly they will see the Buddha now or in the future. They will never be far from the Buddha, and their minds will awaken by themselves, without the aid of expedient methods.

만약 중생의 마음이 부처님을 기억하면서 염불하면 지금이나 뒷 세상에 반드시 부처님을 보게 되어 부처님과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방편을 빌리지 않고서도 저절로 마음이 열려진다.

1 Amitabha Sutra, BTTS.

1 아미타경, BTTS입니다.

2 Worthy Leader, Chapter 12, Flower Adornment Sutra.

2 화엄경 12장 현수품입니다.

3 The ten kinds of good karma are: not killing, not stealing, not engaging in sexual misconduct, abstaining from lying, gossiping, abusive speech, and back-biting speech, and not having thoughts of greed, hatred, and stupidity.

3 십선업: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양설, 불기어, 불탐, 부진, 불치

4 The Sutra of Contemplating Measureless Life Buddha.

4 관무량수경

The Bodhisattva Observer of the Worlds' Sounds (Avalokiteshvara),
Foremost in Compassion
자비 제일의 관세음보살

Chapter Eight
The Secret School
8장
밀종

The Secret School derives its name from the fact that the response that one receives from the power of reciting mantras is secret. No one can tell you about it. You must cultivate it yourself and then you will know the mantra's influence for yourself; just as when you drink water you yourself know whether it is warm or cold. It is not that the mantras themselves are secret.

밀종의 어원은 만트라를 염함으로써 얻는 감응이 비밀이라는 점에서 유래됩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수행을 하면 만트라의 효과에 대해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물을 마셔야 그것이 따뜻한지 차가운지를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만트라 자체가 비밀이 아닙니다.

The Secret School specializes in holding mantras. Mantras have the following four meanings:

밀종은 전문적으로 만트라를 합니다. 만트라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¹

1. All mantras are the names of god and ghost kings. When you recite the names of the god and ghost kings, the small gods and ghosts are well-behaved, and do not dare to cause you trouble. Why? It is because they wonder, "How do you know our ghost king? How do you know our god king?"

1. 모든 만트라는 신왕과 귀신왕의 이름입니다. 신왕과 귀신왕의 이름을 염할 때 작은 신들과 귀신들은 얌전하게 굴어서 감히 문제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은 우리의 귀신왕을 어떻게 압니까?"라고 궁금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왕을 어떻게 알죠?"

2. Mantras are also like a soldier's password. In the army there is a different password every day. Only your own people know it and the people outside do not. Let's say the password is "victory". If you meet a soldier whom you do not know, then you ask him what the password is. If he says "victory", then you say "right". You know that he is one of us. But if you ask him the password and he says "lucky", you know that he is not one of us. Mantras work the same way. As soon as the gods and ghosts hear you recite the mantra, they say, "Oh, that is our password," so they are all well-behaved. Otherwise they would want to fight with you.

2. 만트라는 군인들이 쓰는 암호와도 같습니다. 군대에서는 매일 다른 암호가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사람들만이 그것을 알고 있고 밖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암호가 "승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르는 군인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암호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가 "승리"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옳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가 우리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암호를 물었을 때 그가 "운이 좋다"고 말한다면, 그는 우리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만트라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신들과 귀신들은 여러분이 만트라를 염하는 것을 듣자마자, "오, 그것은 우리의 암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바르게 행동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여러분과 싸우고 싶어할 것입니다.

3. Mantras are a kind of secret language, which only certain people understand. An analogy will make this clear. Suppose there is a person who is very poor and lowly. He goes abroad where people do not know him. He tells them, "I am the king of a certain country, but the generals revolted and there was a change of government. I secretly escaped and came to this country." The king of this country really does not know whether he is genuine or not. He is a phony, but the king thinks that he is genuine, so he gives him one of the princesses for a wife. This makes him

a prince, a member of the king's household. He was not a king before, but he acts like it. Day in and day out he is always losing his temper.

3. 만트라는 특정한 사람들만 이해하는 일종의 비밀 언어입니다. 이는 비유를 통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는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는 외국으로 갑니다. 그는 그곳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어느 나라의 왕인데, 장군들이 반란을 일으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몰래 탈출해서 이 나라에 왔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그는 사기꾼이지만, 왕은 그를 진짜라고 생각해서 그를 공주와 결혼시킵니다. 이로써 그는 왕가의 일원으로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에는 왕이 아니었지만, 그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는 매일 화를 냅니다.

Then a person comes to this country who knows that this impostor was a poor and lowly person, and says to the princess who is married to him, "When he gets angry, you need only say these few sentences: 'Originally you were a poor and lowly person who drifted in from another country far away. Why must you have such a big temper?' As soon as you say this, he will know, 'Oh, she knows my humble origins,' and will not get angry anymore." A mantra has the same effect. As soon as you recite the mantra, the gods and ghosts will assume that you understand their origins, that you know what they are all about, and so they will not dare to cause you trouble.

이 사기꾼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 나라에 와서, 그와 결혼한 공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화를 낼 때, 다음 몇 마디만 하면 됩니다. 원래 너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으로 멀리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는가?" 여러분이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는 '아, 그녀는 나의 보잘것없는 출신을 알고 있구나'라고 알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만트라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문을 외우자마자, 신들과 귀신들은 여러분이 그들의 출신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감히 여러분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4. Mantras are the mind-imprint of all Buddhas. "Mind imprint" alludes to the way in which the minds of two enlightened beings interact and

acknowledge each other. They are the secret language of all Buddhas which can only be known by them. Because all other living beings do not understand them, mantras are left untranslated.

4. 만트라는 모든 부처님의 마음의 각인입니다. "마음의 각인"은 깨달음을 얻은 두 존재의 마음이 상호작용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방식을 암시합니다. 그것들은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모든 부처님들의 비밀 언어입니다. 다른 모든 중생들이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트라는 번역하지 않습니다.

In the Sutras it clearly explains that people who keep mantras must very carefully uphold the moral regulations. For example, the Buddha, in the Shurangama Sutra, gave these instructions on what is required for mantra cultivation:

경전에서 만트라를 지니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규칙을 매우 신중하게 지켜야 함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능엄경에서 부처님은 만트라 수행에 필요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To do so, they must find as their teacher a foremost Shramana (Bhikshu) who is pure in the precepts. If they do not encounter a member of the Sangha who is truly pure, then is absolutely certain that their deportment in moral precepts cannot be perfected. After perfecting the precepts, they should put on fresh, clean clothes, light incense in a place where they are alone, and recite the spiritual mantra spoken by the Buddha of the mind² one hundred and eight times.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스승으로서 계율에 청정한 가장 중요한 슈라마나(비구)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청정한 승가의 구성원을 만나지 못한다면, 도덕적인 가르침에서의 그들의 행동은 완벽할 수 없음은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계율을 완성한 후에는 신선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혼자 있는 곳에 향을 피우고, 마음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주문을 백팔 번 읊어야 합니다.

And in the Sutra of the Bodhisattva's Wholesome Precepts it says:
그리고 경에는 다음과 같이 이릅니다.

One who receives and keeps this spiritual mantra (Shurangama Mantra) is prohibited from eating meat, or the five pungent plants (garlic, onions, leeks, chives and scallions); taking intoxicants; engaging in sexual misconduct; eating or drinking in impure abodes.³

이 만트라(능엄주)를 수지하는 사람은 고기, 오신채(마늘, 양파, 부추, 달래, 흉거), 술, 사음, 청정하지 않은 곳에서 먹거나 마시는 것을 금합니다.³

And in the Sutra of the Inquiries of Wonderful Arms Bodhisattva it says:
묘비보살이 이르길

If in reciting and keeping the mantra (Shurangama Mantra) one violates propriety, or if one does not keep the moral precepts, or if one is not pure not only will one be unsuccessful with this Dharma, one will bring harm upon oneself.⁴

만트라(능엄주)를 수지하지만 도덕적인 계율을 지키지 않거나, 청정하지 않으면
이 법을 성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해를 끼칠 것입니다.⁴

A person who follows the moral regulations and diligently practices mantra recitation achieves a great deal within the Dharma. In the *Great Compassion Heart Dharani Sutra, Bodhisattva Observer of the World's Sounds*⁵ says:

도덕적인 규칙을 따르고 열심히 주문을 외우는 사람은 법 안에서 많은 것을 성취합니다.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If you can apply your mind with pure sincerity, maintain vegetarianism and the moral precepts, and repent of and reform all your past offenses on behalf of living beings; if you can repent and confess your own various evil acts committed throughout countless eons past; and if you can recite the Dharani continuously, without skipping a single sound, then in this very life you may certify to the four fruits of a Shramana. You will be endowed with a keen disposition, wise contemplation, and expedient methods. You will obtain the status of the Ten Grounds without difficulty. Even more will you be rewarded with small blessings. You will obtain everything you seek.

진심으로 채식과 도덕적 계를 지키고 중생을 대신하여 과거의 죄를 모두 참회하고 고칠 수 있다면; 과거의 수많은 세월 동안 저지른 자신의 여러 악행을 참회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다라니를 한 음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념할 수 있다면, 바로 이 생에서 여러분은 사문의 네가지 과를 증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리한 기질과 현명한 관, 방편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십자를 얻을 것입니다. 작은 복과 함께 더 많은 것들로 보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Om Mani Padme Hum

The Secret School

옴마니반메훔

밀종

by Tripitaka Master Hsuan Hua8

삼장법사 선화8

These six words together make up the Brilliant Mantra of Six Words. Each word is able to emit brilliant light. Mantra study and practice comes under the province of the Secret School, one of the five major divisions or "schools" of the Buddha's teachings. The five schools are:

이 여섯 음이 합쳐져 육자대광명진언을 구성합니다. 각각의 음은 찬란한 빛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만트라 연구와 수행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다섯 가지 주요한 "종" 가운데 하나인 밀종의 영역에 속합니다. 오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he Chan School 선종
2. The Teaching (Scholastic) School 교종
3. The Vinaya (Ethics) School 율종
4. The Secret School 밀종
5. The Pure Land School. 정토종

The Chan School exclusively investigates Chan (Dhyana or Zen) meditation. The Teaching School emphasizes scholastic inquiry, exegesis, lecturing sutras and interpreting and expounding Dharma. The Vinaya School focuses on questions of ethics and cultivating moral self-discipline. Vinaya students strive to be "awesome, majestic, and pure in Vinaya, great models for the three realms of existence". Then there is the Secret School. "Secret" means "no mutual knowing". And finally, the Pure Land School teaches the exclusive mindfulness and recitation of "Na Mo A Mi To Fo" ('Homage to Amitabha Buddha') the "Vast Six Character Name".

선종은 선(Dhyana 또는 Zen) 명상만을 참구합니다. 교종은 학문적 탐구, 주석, 경전 강의, 법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강조합니다. 율종은 윤리와 도덕적 자기 수행에 대한 질문에 초점을 맞춥니다. 율을 배우는 학생들은 "율에 있어서 훌륭하고, 장엄하고, 청정하며, 삼계의 훌륭한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밀종이 있습니다. "비밀"은 "서로 알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토종에서는 '나무 아미타불'(아미타불께 경의를 표한다), 6글자의 광대한 이름의 염불을 가르칩니다.

Some people say that Chan School is the highest of the five. Others claim that the Teaching School, or the Vinaya School, is highest. Cultivators of the Secret School say "The Secret School is supreme". Practitioners of the Pure Land Dharma-door say, "The Pure Land Dharma door is first, it is superior". Actually, all Dharmas are equal; there is no high or low. "Highest" is everyone's own personal opinion; whatever school you like, you claim to be the highest.

어떤 사람들은 선종이 다섯 종 중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종 혹은 율종이 최고라고 주장합니다. 또는 율종이 최고입니다. 밀종의 수행자들은 "밀종이 최고"라고 합니다. 정토 법문 수행자들은 "정토 법문이 첫째이고 우월하다"고 합니다. 사실, 모든 법은 평등합니다; 높거나 낮은 것은 없습니다. "최고"는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을 좋아하든, 여러분은 최고라고 주장합니다.

Now I will explain the Secret School. In fact, the Secret School is not secret. Within the secret teaching, the apparent and the secret perfectly penetrate. The apparent teaching also includes the Secret School. For example, the Great Compassion Mantra and the Brilliant Mantra of Six Words both belong to the Secret School. The Shurangama Mantra is even more "secret".

이제 밀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밀종은 비밀이 아닙니다. 밀교 안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비밀은 완벽하게 관통합니다. 명백한 가르침은 밀종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대비주와 육자진언은 둘 다 밀종에 속합니다. 능엄주는 훨씬 더 "비밀"스럽습니다.

Foolish people say that secret things are the best. Why? Because they are secret, and they are not available to everyone. So people who do not understand Buddhism speak of the supernatural and mysterious saying, "Oh! I cannot tell this to you! It is from the Secret School, and it cannot be spoken for you to hear!" If they cannot speak of it to others, why mention it? Why do they say they cannot talk about it? If it is really the Secret School, and it is best not to speak of it, why do they say, "I cannot tell you"? Their "not talking" is just talking about it. Isn't this refusal to speak of it, speaking of it? Why do they talk this way? Because they do not understand the Buddha-dharma, and are completely unaware of what the Secret School really signifies.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밀스러운 것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들은 비밀이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이고 신비하게 말을 합니다. "오! 나는 이것을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밀종이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다면, 왜 그것에 대해 언급합니까? 왜 그들은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합니까? 그것이 진정 밀종이고, 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면, 왜 그들은 "나는 말할 수 없다"고 합니까? 그들의 "말하지 않는" 것은 단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들은 왜 이런 식으로 말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불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밀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Now I will tell you something about the Secret School. It is not that mantras are secret. The Secret School is the efficacious response which comes from your recitation of mantras; I can't know your response. I recite mantras and have my efficacious response, and you do not know of it. This is "no mutual knowing". The ability and power are unfathomable and unknown, and are therefore called the Secret School. It is not the mantras themselves, but the power of mantras that is secret. This is the meaning of the Secret School.

이제 밀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은 만트라가 아닙니다. 밀종은 만트라를 암송할 때 일어나는 효과적인 감응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감응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만트라를 염하고 효과적인 감응을 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모릅니다. 이것은 "서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능력과 힘은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밀종이라고 합니다. 비밀은 만트라 자체가 아니라 만트라의 힘입니다. 이것이 밀종의 의미입니다.

If mantras are really secret, they should not be transmitted to other people; for if you transmit a mantra to someone else, it is no longer secret. It is the same as the Sixth Patriarch's answer to Hui Ming's question:

만약 만트라가 정말로 비밀이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만트라를 전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혜명의 질문에 대한 육조의 대답과 같습니다.

"He (Hui Ming) further asked, 'Apart from the above secret speech and secret meaning, is there yet another secret meaning?' Hui Neng said, 'What has been spoken to you is not secret. If you return the light and look within (examine yourself) the secret is yours.'"

"그(혜명)는 '위의 비밀스러운 말과 비밀스러운 의미 외에 또 다른 비밀스러운 의미가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혜능은 이르길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등불을 돌려 안을 들여다본다면 비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Speak it and it is not secret. Take a look; he said it very clearly. Once spoken, it is no longer secret. The "secret" is that which is not transmitted. If it can be transmitted, it is not "secret". The secret cannot be transmitted; it is on your side, within you; it is where you are.

그것을 말하면 비밀이 아닙니다. 보세요. 그가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말하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은 전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을 전한다면, 그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은 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I believe that even many Secret School Dharma Masters do not understand how to explain "secret" dharma correctly. They think that mantras are secret. But all mantras can be orally transmitted to people; there are no mantras which cannot be spoken. If they could not be spoken, there would be no way to transmit them. Isn't that right? If it is transmittable, it is not secret and by that odd logic, it would be no longer be the Secret School. Because the "secret" is untransmittable, I say that the "secret" is the mantra's power, and there is no way anyone can tell you about it. No one can say, "This mantra has this power, and when you recite it, such and such will happen." There is no way to explain it. It is like drinking water; you yourself know whether it is hot or cold. The "secret" is what you know and others do not. The power is secret, the response is secret, the subjective experience is secret; it is not the mantra that is secret. Now does everyone understand?

나는 심지어 많은 밀종 법사들도 "비밀"을 설명하는 방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만트라가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만트라는 사람들에게 구두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말로 전하지 못하는 만트라는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말로 할 수 없다면, 그들을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만약 그렇게 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 이상한 논리에 따르면, 더 이상 밀종이 아닙니다. "비밀"은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은 만트라의 힘이며,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만트라에 이런 힘이 있는데, 염하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더운지 추운지 알고 있습니다. "비밀"은 여러분이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힘은 비밀이고, 감응은 비밀이고, 주관적인 경험은 비밀입니다; 비밀은 만트라가 아닙니다. 이제 모두 이해했나요?

Many people who do not understand Buddhism think I have spoken incorrectly about this dharma. Incorrect or not, I will still speak this way. And if you say I am right....there is no way for you to say that, either. Since you basically do not understand this dharma, how can you say that I understand? I do not understand, I am even more confused. Previously, however, I had a teacher who taught me with great clarity so that I understood, and this confused person changed into one who could speak and explain the Brilliant Mantra of Six Words according to the Secret School.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법에 대해 잘못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맞거나 틀리거나 간에, 나는 여전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내가 옳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방법도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이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스승이 있었는데, 이 혼란스러운 사람이 육자진언을 말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The Secret School is divided into five divisions, East, West, North, South and Center. In the East is the Vajra Division, which protects and maintains the proper Dharma; in the South is the Jeweled Production Division; the West, the Lotus Division; the North, the Karma Division; and in the Center, the Buddha Division. The Shurangama Mantra explains these five divisions in great detail.

밀종은 동, 서, 북, 남, 중앙의 다섯 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동쪽에는 정법을 보호하고 지키는 금강부가 있습니다. 법; 남쪽에는 보생부, 서쪽에는 연부, 북쪽에는 업부, 중앙에는 불부가 있습니다. 능엄주는 이 다섯 가지 부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If there is one person who can recite the Shurangama Mantra, the demon kings cannot appear in the world. If no one can recite it, demons can enter all of the billion world systems. Why? Because no one watches over them; no one works in the five divisions, so the demons are able to infiltrate the world. If one person, however, can recite the Shurangama Mantra, demons dare not enter. It is just because of this that we hope more people will learn to recite the Shurangama Mantra. During the first summer session, the first test was to recite the Shurangama mantra from memory; two people were able to do so. Later, many more were able to recite the mantra from memory. Now I will talk about the Brilliant Mantra of Six Words.

능엄주를 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마왕은 세상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염할 수 없다면, 마들은 수십억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도 그들을 감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다섯 사단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마들은 세상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능엄주를 념할 수 있다면 마는 감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능엄주를 염하는 것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첫 여름 학기의 첫 번째 시험은 능엄주를 암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만트라를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육자진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The first word is "Om". When you recite "Om" once, all ghosts and spirits must place their palms together because this signifies their intent to maintain the rules and regulations. By conforming to the regulations, they stay on the proper way. Recite this once and all ghosts and spirits do not dare rebel and create confusion; they do not dare disobey orders. This is the first sound in the mantra.

첫 번째 단어는 "옴"입니다. "옴"을 한 번 외울 때, 모든 귀신은 그들의 규칙을 지키려는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손을 합장해야 합니다.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그들은 올바른 길을 따릅니다. 이 말을 한 번 외우면, 모든 귀신들이 감히 반항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못하고, 감히 명을 거역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만트라의 첫 번째 음입니다.

"Mani" means "silent wisdom". Using wisdom one is able to understand all truths, and thus abide in the state of quiescence that is without birth. It is also defined as, "separating from filth", which means living a morally pure life free of defilement. It can be compared to the "precious as-you-will pearl" which is extremely pure and immaculate. Whatever you wish to excel in can be done if you have the "precious as-you will pearl". It can also fulfill your wishes in accord with your thoughts. Every vow you make will be fulfilled. These are its benefits.

"마니"는 "침묵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를 사용하면 모든 진리를 이해할 수 있고, 생이 없는 정지 상태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더러움에서 분리됨"으로 정의되며, 이는 도덕적으로 더럽지 않은 청정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극히 청정하고 깨끗한 "귀중한 여의주"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귀중한 여의주"만 있으면 여러분이 뛰어나게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생각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이 세우는 모든 서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점입니다.

"Padme" means "light perfectly illuminating", and is also defined as "the opening of the lotus". This is the wonderful mind of Avalokiteshvara Bodhisattva. This is "Padme".

"반메"는 "완벽하게 비추는 빛"을 의미하며, "연꽃이 피어남"으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묘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반메"입니다.

Next comes "Hum", which means to "give rise to". Anything at all can be created from this character "Hum". It also means "to protect and support". Recite this word and all Dharma protectors and good spirits come to support and protect you. It also means "eradicating disasters". Recite this word and whatever difficulties you encounter will be eradicated. It also means "success"; whatever you cultivate can be accomplished.

다음은 "훔"으로, "낳다"는 뜻입니다. "훔"에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외우면 모든 호법과 선신들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보호하려 옵니다. 그것은 또한 "재난을 근절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외우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근절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성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수행하든 성취될 수 있습니다.

Recite the Brilliant Mantra of Six Words once, and the immeasurable Buddhas, Bodhisattvas, and Vajra Dharma protectors support and protect you. Therefore, when Avalokiteshvara Bodhisattva finished saying this Brilliant Mantra of Six Words, there were seven million Buddhas who came to support, protect, and surround him. The power and capacity of the Brilliant Mantra of Six Words are inconceivable; "the Path and the response intertwine in an inconceivable way."

육자대광명진언을 한 번 외우면 헤아릴 수 없는 불보살, 금강호법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관음보살이 이 육자대광명진언을 외우면, 700만 명의 부처님들이 와서 그를 지지하고 보호하고 둘러쌉니다. 육자대광명진언의 힘과 역량은 불가사의합니다. "도와 감응은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얹혀 있습니다." Therefore it is called the Secret School. If one were to explain in detail, the meanings would be limitless and boundless. They cannot be completely spoken. So I have just given this simple explanation for everyone.

그래서 그것을 밀종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한다면 그 의미는 무한하고 한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Now I will tell you a little about what cannot be told of the Secret School's power. Why do I say "what cannot be told"? Because my talking does not even comprise one ten-thousandth part of it. What is it? If you are able to constantly recite and maintain the Brilliant Mantra of Six Words, the darkness of the six paths of existence will change into bright light. You must be single-minded when reciting this mantra to achieve this type of samadhi. Then, not only will the six paths of existence emit light, but all of the ten dharma realms will become "a great storehouse of light". So now we know something of the power of the Brilliant Mantra of Six

Words. I hope everyone will set aside time from their activities to recite the Brilliant Mantra of Six Words.

이제 밀종의 힘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왜 내가 "말할 수 없다"고 하나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은 만분의 일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육자대광명진언'을 끊임없이 외우고 지닐 수 있다면 육도의 어둠은 밝은 빛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런 삼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만트라를 외울 때 일심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육도가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십법계가 모두 "빛의 위대한 창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육자대광명진언의 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는 일을 멈추고 시간을 내어 육자대광명진언을 외우기를 바랍니다.

' Excerpted from lectures by the Venerable Tripitaka Master Hsuan Hua.
삼장법사 선화상인의 강의에서 발췌했습니다.

2Shurangama Sutra, Volume 6, BTTS.

2능엄경, 6권, BTTS

3 Shurangama Mantra, Volume 1, BTTS.

3 능엄주, 1권, BTTS

4 ibid. 동일 경전

5 Observer of the Worlds Sounds is a translation of Chinese Kuan Shih Yin and Sanskrit Avalokiteshvara.

5 관세음은 중국 관시음과 산스크리트 관음을 번역한 것입니다.

6The four fruits of a Shramana are the four levels of Arhats. See explanation in Chapter under "Sangha of the Sages".

6 사문의 사과는 네단계의 아라한입니다. 성인의 승가 장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7The Ten Grounds are the levels of Enlightenment immediately preceding Equal Enlightenment and the complete Enlightenment of a Buddha. See Chapter 5, under "Sangha of the Sages", for a brief description of the Bodhisattva's Enlightenment. Refer to

Flower Adornment Sutra, Ten Grounds, Chapter 26, Volume One and Two, BTTS, for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Ten Grounds.

7 십지는 등각과 부처님의 원각 바로 전 단계입니다. 보살의 깨달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5장 "현인들의 승가"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화엄경 26장 (권1,2 BTTS)을 참조하십시오. 십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8 This lecture appeared in the periodical of Buddhist studies, Vajra Bodhi Sea, Issue No. 11, February,

8 이 법문은 불교학의 정기 간행물인 금강 보리해 2월 11호에 실렸습니다.

Introduction to Chart of Samsara

삼사라 도표의 소개

The chart on the following pages lists the states of existence within Samsara, the realm of birth and death. In Samsara there are three distinct levels of existence. The highest is the Formless Realm, in which there are the greatest gods who have transcended the physical body, having mentality only. There are four heavens on this level.

다음 장에 게재된 표는 생사의 영역인 삼사라 내 존재의 단계를 나열합니다.

삼사라에는 세 가지 다른 존재의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무색계로 육신을 초월하고 오직 정신력만 있는 가장 위대한 신들이 있습니다. 무색계에는 4가지 종류의 천이 있습니다.

The next level, the Form Realm, also, only consists of heavens. The gods in these eighteen heavens have a form, but they have gone beyond the greed and lust for the pleasures of the five senses. They have attained a state of very profound and sublime happiness that it a result of their skill in meditative concentration. Their greed for the five senses has been eclipsed by means of the force of their concentration-power. This is just like when a boulder is placed on grass, the grass is temporarily unable to grow. In the same way, their meditative power and ability has temporarily suppressed their thirst for the pleasures of the five senses, but it is still latent. The only way it can be eliminated forever, is by means of prajna wisdom. The Sages, that is the Arhats and Bodhisattvas as mentioned in , attain permanent states of Enlightenment in which this greed is truly extinguished.

다음 단계는 색계로 천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열여덟 천에 있는 신들은 형태가 있지만, 오감의 쾌락에 대한 탐욕과 욕망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명상 집중의 결과로 매우 심오하고 숭고한 행복의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오감에 대한 그들의 욕심은 집중력에 의해 가려졌습니다. 이는 마치 돌을 잔디 위에 올려놓을 때, 잔디가 일시적으로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명상의 힘과 능력은 일시적으로 오감의 쾌락에 대한 갈증을 억누르고 있지만, 여전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영원히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야 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현들, 즉 아라한들과 보살들은 이 욕심이 진정으로 소멸되는 영원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On the next level, the Realm of Sensual Desire, there are six heavens, the realms of Asuras, human beings, animals, ghosts, and the denizens of hell. The minds of all the beings in these states are dominated by the drive for sensual pleasures. Those in the heavens here enjoy an incredible happiness associated with the senses as a result of their practice of good karma in the past.

다음 단계는 욕계로 육욕천, 아수라, 인간, 축생, 아귀, 지옥이 있습니다. 이 단계의 모든 존재들은 감각적 즐거움에 의해 마음이 지배됩니다. 이곳 천상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선 업을 수행한 결과로 감각과 관련된 믿을 수 없는 행복을 누립니다.

Those in the three lowest states, also known as the Three Evil Destinies, that is animals, ghosts, and denizens of the hell, undergo much suffering and difficulty.

삼악도라고도 알려진 가장 낮은 상태에 있는 세 종류의 존재들, 즉 축생, 아귀, 지옥의 존재들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As mentioned in the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e Buddha's teachings is to see that all states of existence in Samsara lack substantial reality. As it says in the Shurangama Sutra (Volume 7) they:

머릿말에서 언급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삼사라의 모든 존재 상태가 실질적으로 실재하지 않음을 보는 것입니다. 능엄경(제7권)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Come into being from false thoughts, and their subsequent karma comes from false thoughts. Within the wonderful perfection of the fundamental mind that is unconditioned, they are like strange flowers in space, for there is basically nothing to cling to. They are entirely vain and false, and they have no source or beginning.

망상에서 존재가 생기고, 이어서 업이 망상에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매달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위의 기본적인 마음의 묘한 완벽 안에서 그것들은 허공의 이상한 꽃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헛되고 거짓이며, 근원도 시작도 없습니다.

Appendix I

부록 1

Chart of Samsara

The Realm of Birth and Death

Divided into the Three Realms of Existence

삼사라의 도표

생사의 계:

삼계로 나뉘어 짐

Key:		
Kalpa = 16 million years Small Kalpa = 1,000 Kalpas Middle Kalpa = 20 Small Kalpas Great Kalpa = 4 Middle Kalpas Yojana = 28 Miles	Asankhyeya Mahakalpa 1.28 billion years X 10 to the 63rd power or 1.28 billion X vigintillion years	Our Buddha, Shakyamuni, in order to perfect his "blessings and wisdom", cultivated for many, many lifetimes in a period of time covering three Asankhyeya Mahakalpas. He then further practiced for 100 Great Kalpas to perfect the 32 Hallmarks and 80 Subsidiary Features of a Buddha.

겁=천육백만년 소겁=1000겁 중겁=20소겁 대겁=4중겁 요자나=28마일	아승지 마하겁 1.28조X10^63 혹은 1.28조X백만년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의 복혜를 완성하기 위해 3아승지 마하 겁의 수많은 생동안 수행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32상과 80종호를 완성하기 위해 100대겁을 더욱 수행하였습니다.
--	---	---

Name of Sphere of Existence	Average Lifespan	Average Height	Comments
Heaven of Neither Thought Nor NonThought	80,000 Great Kalpas(102.4 quadrillion years)		Gods in the Formless Heavens have no bodies. They only have consciousness.
Heaven of Boundless Consciousness	60,000 Great Kalpas		
Heaven of Nothing Whatsoever	40,000 Great Kalpas		
Heaven of Boundless Space	20,000 Great Kalpas		

명칭	평균 수명	평균 키	
비상비비상처천 非想非非想處天	80,000대겁(102.4 X100조 년)		무색계의 신은 몸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의식만 있습니다.
식무변처천 識無邊處天	60,000 대겁		
무소유(처)천	40,000 대겁		

無所有處天			
공무변처천 空無邊處天	20,000 대겁		

Form Realm

Name of Sphere of Existence	Average Lifespan	Average Height	Comments
5 Heavens of No-Return:			
Ultimate Form Heaven	16,000 Great Kalpas (20.48 quadrillion years)	16,000 Yojanas (448,000 miles)	The Five Heavens of NoReturn are also known as the Pure Abodes or Pure the Dwellings. Gods in Heavens of No-Return are Sages who have certified to the Third Stage of an Arhat. The gods of all the other heavens cannot even see these heavens, because they are beyond their scope.
Good Manifestation Heaven	8,000 Great Kalpas	8,000 Yojanas	
Good View Heaven	4,000 Great Kalpas	4,000 Yojanas	These heavens correspond to the

No Heat Heaven	2,000 Great Kalpas	2,000 Yojanas	meditation called Ground of Purity from Renouncing Thought. In this state, subtle thoughts cease.
No Affliction Heaven	1,000 Great Kalpas	1,000 Yojanas	
Fourth Dhyana Heavens:			
No Thought Heaven	500 Great Kalpas (640 trillion years)	500 Yojanas (14,000 miles)	
Vast Fruit Heaven	500 Great Kalpas	500 Yojanas	
Love of Blessings Heaven	250 Great Kalpas	250 Yojanas	
Birth of Blessings Heaven	125 Great Kalpas	125 Yojanas	

색계

명칭	평균 수명	평균 키	
5 불환천 不還天:			
색구경천 色究竟天	16,000 대겁 (20.48 십조 년)	16,000 요자나 (448,000 마일)	불환의 5천은 또한 정거천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불환천에 있는 신들은 아나함을 증득한 성인입니다. 다른 천의 신들은 그들이 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 천을 볼 수 없습니다.

선현천善現天	8,000 대겁	8,000 요자나	
선견천善見天	4,000 대겁	4,000 요자나	
무열천無熱天	2,000 대겁	2,000 요자나	
무번천無煩天	1,000 대겁	1,000 요자나	
사선천四禪天			
무상천無想天	500 대겁(640 조년)	500 요자나 (14,000 마일)	
광과천廣果天	500 대겁	500 요자나	
무운천無雲天	250 대겁	250 요자나	
복생천福生天	125 대겁	125 요자나	

Form Realm

Name of Sphere of Existence	Average Lifespan	Average Height	Comments
Third Dhyana Heavens:			
Pervasive Purity Heaven	64 Great Kalpas (81.92 trillion years)	64 Yojanas (1,792 miles)	These heavens correspond to the state of dhyana
Limitless Purity Heaven	32 Great Kalpas	32 Yojanas	meditation called the Ground of Wondrous Bliss from Leaving Joy. In this state coarse thoughts cease.
Lesser Purity Heaven	16 Great Kalpas	16 Yojanas	
Second Dhyana Heavens:			
Light-Sound Heaven	8 Great Kalpas (10.24 trillion	8 Yojanas (224 miles)	The heavens correspond to the

	years)		state of dhyana meditation called the Ground of Joy from Producing Samadhi. In this state outer breath ceases. Beings in the Light-Sound Heaven use light to speak, the way a TV uses light to create pictures.
Limitless Light Heaven	4 Great Kalpas	4 Yojanas	
First Dhyana Heavens:			
Great Brahma Heaven	3 Middle Kalpas (960 billion years)	1 ½ Yojanas (42 miles)	These heavens correspond to the Ground of Joy Arising from Separation. In this state the pulse stops.
Ministers of Brahma Heaven	2 Middle Kalpas	1 Yojana	
Multitudes of Brahma Heaven	1 Middle Kalpa	½ Yojana	

색계

명칭	평균 수명	평균 키	Comments
삼선천三禪天			
변정천偏淨天	64 대겁 (81.92 조년)	64 요자나 (1,792 마일)	이 천은
무량정천無量淨天	32 대겁	32 요자나	이생희락지離生喜樂地 라고 하는 선정의 경계에 해당합니다. 이
소정천少淨天	16 대겁	16 요자나	경계에서는 거친 생각이 그칩니다.
이선천二禪天			
광음천光音天	8 대겁 (10.24 조년)	8 요자나 (224 마일)	이 천은 정생희락지定生喜樂地

무량광천無量光天	4 대겁	4 요자나	라고 하는 선정의 경계에 해당합니다. 이 경계에서는 외호흡이 그칩니다. 텔레비전이 빛으로 화면을 만들듯이 광음천의 존재들은 빛으로 말합니다.
소광천少光天	2 대겁	2 요자나	
초선천初禪天			
대법천大梵天	3 중겁 (960 billion years)	1 ½ 요자나 (42 마일)	이 천은 이희묘락지離喜妙樂地 에 해당합니다. 이
범보천梵輔天	2 중겁	1 요자나	경계에서 맥박이 멈춥니다.
범중천梵衆天	1 중겁	½ 요자나	

All the gods in the Form Realm Heavens are without the sense of smell and taste, and they do not eat food, sleep, or have sexual desire. However, the desires for these things are still latent and once their heavenly life comes to an end, they can still return to any lower realm of existence in accordance with their karma. These desires are also latent the gods in the Formless Heavens. The Third and Fourth Stage Arhats and the Bodhisattvas, because of prajna wisdom, have ended these desires at their origin, so they will never arise again.

색계천의 모든 신들은 후각과 미각이 없어 음식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성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고 일단 천상의 삶이 끝나게 되면,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업보에 따라 낮은 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욕망들은 또한 무색계천의 신들에게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아나함, 아라한, 보살들은 반야 지혜로 이러한 욕망들의 근원을 끝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욕망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In the "comments" above, in the right-hand column, it describes specific things that happen to a human being who enters the levels of dhyana meditation which correspond to the Dhyana Heavens. In addition to the

above, when one enters the First Dhyana meditation state one can sit for seven days without getting up from one's seat. At that time one can also go without eating, drinking or sleeping. In the Second Dhyana one can sit for 49 days. In the Third Dhyana one can sit for three years. And in the Fourth Dhyana one can sit for nine years. The happiness experienced in dhyana meditation far surpasses the happiness connected with the five senses.

위 표의 오른쪽 열에는 디야나 천에 해당하는 선정의 단계에 들어가는 인간에게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들을 설명합니다. 위에 추가로, 초선에 들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7일 동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에 사람들은 또한 먹거나, 마시거나, 잠을 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선에서는 49일 동안 앉을 수 있습니다. 삼선에서는 3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선에서는 9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정에서 경험하는 행복은 오감과 관련된 행복을 훨씬 넘어섭니다.

Sensual Desire Realm

감각적인 욕계

Name of Sphere of Existence	Average Lifespan	Average Height	Comments
Six Desire Heavens:			
Self-Mastery Over Others' Transformations Heaven	16,000 Heaven years (9.2 billion years)	4,500 feet 1 day =	They usurp other's happiness. 1,600 human Many demons and their retinues years dwell here, like Mara, the king of demons.
Bliss From Transformations	8,000 Heaven years (2.3 billion	3,500 feet 1 day = 800 human	Can transform their own

Heaven	years)	years	happiness. Food and clothing appear as they think about them.
Contentment (Tushita) Heaven	4,000 Heaven years (576 million years)	3,000 feet 1 day = 400 human years	Heaven of "Joyful Contentment". Gods totally free from all worries very content.
Well-Divided Time (Suyama) Heaven	2,000 Heaven years (144 million years)	2,250 feet 1 day= 200 human years	Gods are always joyful, singing songs from morning till night: "Merrily indeed, I am so happy!"
Heaven of the Thirty-three (Trayastrimsha)	1,000 Heaven years (36 million years)	1,500 feet 1 day = 100 human years	Ruled by Lord Shakra, King of Gods, also known as Indra, and the God of the Christian Bible.
Heaven of the Four Kings	500 Heaven years (9 million years)	750 feet 1 day = 50 human years	Ruled by Four God Kings—one in each direction. Newborns are as big as a 5 year old human.

욕계천

명칭	평균수명	평균키	Comments

육욕천:			
타화자재천 他化自在天	16,000 천년 (9.2 조 년)	4,500 feet 1일 = 1,600년	그들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습니다. 마왕인 마라를 포함해서 많은 마와 권속이 여기에 주합니다.
화락천化樂天	8,000 천년 (2.3 조 년)	3,500 feet 1일 = 800 년	그들만의 행복을 화할 수 있습니다. 음식과 웃이 생각만으로 나타납니다.
도솔천兜率天	4,000 천년 (576 백만년)	3,000 feet 1일 = 400 년	Heaven of "Joyful Contentment". 신은 완전히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고 만족합니다.
도리천忉利天	2,000 천년 (144 백만년)	2,250 feet 1일= 200 년	신은 항상 즐겁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래를 부릅니다. 매우 즐겁고 행복합니다.
야마천夜摩天	1,000 천년 (36 백만년)	1,500 feet 1일 = 100 년	신의 왕인 제석천이 지배합니다. 인드라로도 알려진 제석천은 기독교의 신입니다.
사왕천四王天	500 천년 (9 백만년)	750 feet 1일 = 50 년	사천왕이 사방을 지배합니다. 갓 태어난 존재는 인간의 5살 아이와

		같습니다.
--	--	-------

Gods in the Desire Heavens still have desires connected with the five senses, including the desires for food, sleep and sex, with marriages as in the human realm. Yet the happiness they experience is much greater than that of the human realm. The human realm compared to even the lowest Desire Heaven is like a toilet pit. The gods in the first two Desire Heavens fulfill their sexual desire in the same way as those in the human realm. In the Suyama Heaven they fulfill it by holding hands. In the Tushita Heaven they fulfill it by smiling at each other. In the Bliss From Transformations Heaven, it is fulfilled by mutual gazing. And the Heaven of SelfMastery Over Others' Transformations it is fulfilled by merely glancing. All the heavens beginning with the Suyama Heaven and above do not have a sun or a moon. In those heavens, the bodies of these gods emit their own light.

욕계천의 신들은 인간계와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며 식욕, 수면욕, 성욕을 포함한 오감과 관련된 욕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하는 행복은 인간계보다 훨씬 더 큽니다. 가장 낮은 욕계천에 비하면 인간계는 화장실 구덩이와 같습니다. 첫 두 욕계천의 신들은 인간계에 있는 신들과 같은 방식으로 성욕을 충족합니다. 도리천에서는 그들은 손을 잡음으로써 성욕이 충족됩니다.

도솔천에서는 서로 미소 지으며 성욕을 만족합니다. 화락천에서는 서로를 응시함으로써 성욕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타화자재천은 단지 흘끗 보는 것만으로 성욕이 충족됩니다. 도리천 이상의 천에는 해나 달이 없습니다. 저 천에서, 이 신들의 몸은 그들만의 빛을 발산합니다.

Asuras

아수라

Although asuras are an individual realm by themselves, they also can appear in both of the other good paths of gods and humans as well as in the three evil destinies of the hells, the ghosts and animals. In general,

regardless of what path they are in, they like to pick fights and have bad tempers. They enjoy bossing others around and like to be supervisors, but they cannot stand being supervised by others. Among people, asuras can be good or bad. The good asuras include military officials and troops, and bad asuras are thieves, thugs, murderers and the like.

비록 아수라는 그 자체로 개별적인 계이지만, 그들은 지옥, 아귀, 축생의 삼악도뿐만 아니라 신과 인간의 다른 선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이 어떤 길을 택하든, 그들은 싸움을 좋아하고 성질이 나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지시관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지시를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아수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아수라에는 군 관료와 군대가 포함되며, 나쁜 아수라에는 도둑, 강匪, 살인자 등이 포함됩니다.

Asuras are unruly beings that love to fight. Their name means "ugly". It also means "ungodly" because, although some asuras enjoy heavenly blessings, nonetheless, they lack authority in the heavens.

아수라는 싸움을 좋아하는 제멋대로인 존재이다. 그들의 이름은 "못생겼다"라는 뜻이다. 또한 어떤 아수라들은 천상의 복을 누리기는 하지만, 천에서 권위가 없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다"는 의미도 있다.

There are four categories of asuras in the three realms of existence. Asuras in the path of ghosts use their strength to protect the Dharma and can with spiritual penetrations travel through space. They are born from eggs and belong to the destiny of ghosts.

이 삼계 가운데 다시 네 가지 부류의 아수라의 무리가 있으니 만약 귀신의 길에 있는 아수라는 힘을 써서 법을 보호하고 신통력으로 우주를 다닌다. 그들은 알에서 태어나며 귀신의 세계에 간섭받으며,

Those who have fallen from virtue and been expelled from the heavens dwell in places near the sun and moon. They are asuras born from wombs and belong to the destiny of humans.

만약 하늘 가운데에서 덕이 모자라 아래로 떨어져서 그가 거처하는 곳이 해나 달을 이웃한 이러한 아수라는 태에서 생겨나나니 사람의 세계에 간섭받으며,

There are also asura kings who support the world with a penetrating power and fearlessness. They vie for position with the Brahma Lord, the God Shakra, and the Four Heavenly Kings. These asuras come into being by transformation and belong to the destiny of gods.

어떤 수라왕은 세계를 집착하여 지켜서 힘이 세고 두려움이 없어서 범왕과 제석천과 사천왕과도 세력을 다투나니 이러한 아수라는 변화로 인하여 생겼으므로 하늘의 세계에 간섭받느니라.

Ananda, there is another, base category of asuras. Their minds dwell on the sea; they live submerged in underwater caves. During the day they roam the skies; at night they return to their watery realm. These asuras come into being because of moisture and belong to the destiny of animals.¹

아난아, 그 밖에 따로 한 등급 낮은 아수라가 있으니 큰 바닷속에서 생겨나 수혈구(水穴口)에 잠겨 있으면서 아침에는 허공에 돌아다니다가 저녁에는 물로 돌아와서 자곤 한다. 이러한 아수라는 습기로 인해 생겨났으므로 축생의 세계에 간섭받느니라.¹

Human Beings

인간

All Buddhas become Buddhas in the human realm. The human realm presents the best state of existence for spiritual cultivation because it has a balance of good and bad. In the heavens life is too blissful to arouse concern over the problems of birth and death. In the three evil destinies (hells, animals, ghosts), intense suffering precludes any other awareness. One merely longs to escape the immediate agony, and is unable to consider the deeper significance of suffering as a universal condition of all the states of conditioned existence.

모든 부처님은 인간계에서 부처님이 됩니다. 인간계는 좋고 나쁨의 균형이 있어서 영적 수행을 하기에 최적입니다. 천에서는 생사의 문제에 대한 고뇌를 하기에는

삶이 너무 안락합니다. 삼악도(지옥, 축생, 아귀)는 극심한 고통으로 다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할 뿐, 모든 존재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고통의 의미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The Buddha once held up a clump of dirt in his hand and asked his disciples which was greater, the dirt in his hand, or the dirt of the whole earth. The disciples answered that of course the dirt of the earth was far greater than the dirt in the Buddha's hand. The Buddha said that those beings who secure a human form are like the dirt in his hand; whereas those who had human form but have lost it (regressing into the three evil destinies) are as many as the dirt covering the entire earth. Thus we see that human life is extremely precious and fragile.

부처님은 손에 흙덩어리를 들고 제자들에게 손에 든 흙이 더 많은지, 아니면 온 땅의 흙이 더 많은지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땅의 흙이 부처님 손에 든 흙보다 훨씬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형상을 갖춘 자는 손에 든 흙과 같다고 말하였고, 인간의 형상을 가졌으나 잃어버린 자(삼악도로 후퇴하는 자)는 온 땅을 덮고 있는 흙과 같이 많다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삶이 매우 소중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he Three Evil Destinies

삼악도

If you wish, you can enter the realms of existence mentioned above to try them out—put on a play—but you should not play around with the three remaining realms. If you try these out you may not be able to escape. It is said that after one life in a human body, 10,000 kalpas may pass before that form can be obtained again. Playing around with the three evil destinies can be very dangerous.

원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존재의 영역에 가보고자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세 영역에 대해서는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가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몸을 받고 나면, 10,000 겁이 지나야 그 몸을 다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삼악도의 운명을 가지고 노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Animals

축생계

*Eager animals feed on greed,
Never sated by a lot.
Because they make what is black white,
They don't distinguish wrong from right.*

욕심 많은 축생들은 욕심을 먹고 삽니다.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검은 색을 흰색으로 만들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There are billions of animals, an infinite variety flying, crawling, swimming and walking on land, in the water and in the sky. Beings become animals as a result of one thing: greed. For them, no matter what it is, the more the better. Animals lack the ability to reason. They become muddled and ignorance envelops them so that they become totally oblivious to anything rational—even to the point that they are greedy to eat excrement.

땅 위를 날고, 기고, 헤엄치고, 걷고, 물 속과 하늘 위를 걷는 무한한 다양한 이 수십억 마리의 축생들이 있습니다. 존재들은 한 가지로 인해서 축생이 됩니다. 그것은 탐욕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축생들은 추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혼란스럽고 무지가 그들을 감싸서 심지어 배설물을 먹고 싶어할 정도로 이성을 완전히 망각하게 됩니다.

Ghosts

아귀

*The ghostly crew delights in hate,
Deluded by effects, confused about cause.*

*Their ignorance and upside-downness
Grows greater each day, deeper each month.*

귀신들은 효과에 현혹되고
원인에 대해 혼란스러운 증오를 즐깁니다.
그들의 무지와 전도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매달 깊어집니다.

Almost everyone has heard of ghosts, but not everyone believes in them. Ghosts are masses of yin energy which have shadow and no form, or form and no shadow. There are as many different kinds of ghosts as there are grains of sand in the Ganges River. Some ghosts are affluent and reign as kings over the ghost realm; some ghosts are poverty stricken and devoid of authority—it is often the poor ghosts who bother people. If you want to investigate ghosts in detail, work hard at your spiritual cultivation, open the Five Eyes and Six Spiritual Penetrations, and then explore for yourself.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 들어보았지만, 모든 사람이 귀신을 믿지는 않습니다. 귀신은 그림자는 있지만 형태가 없거나 형태는 있지만 그림자가 없는 음의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갠지스 강에는 모래알만큼 다양한 종류의 귀신이 있습니다. 어떤 귀신들은 부유하고 귀신의 왕국을 다스리고, 어떤 귀신들은 가난에 찌들고 권위가 없습니다. – 종종 가난한 귀신들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귀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영적 수행을 열심히 하고 오안과 육신통을 열어 스스로 탐구하세요.

Hells

지옥

*The hells' anxiety and suffering
Is devoid of doors yet one bores right in.
Giving rise to delusion deeds are done.
The retribution is born in due accord.3*

지옥의 불안과 고통은 문은 없지만
사람들은 바로 들어갑니다.
망상을 일으키고 행합니다.
그에 따른 업보를 받습니다.³

Anyone who would like to take a vacation in the hells can do so at any time at all. I can guarantee that. But the hells are a miserable place. Lamentation plants the seeds for hells; happiness plants the seeds for heavens. Unlike jails, the hells, although man-made by people who commit offenses, haven't any doors. However, if you are due to go to the hells, when you arrive it is just as if a door opened, because you find yourself worming and boring in where there was no entrance.

지옥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비참한 곳입니다. 한탄은 지옥을 위한 씨앗을 심고, 행복은 하늘을 위한 씨앗을 심습니다. 감옥과 달리, 지옥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문이 없습니다. 지옥에 도착하면 문이 열린 것과 같습니다.

¹Shurangama Sutra, Volume 7, BTTS.

1 능엄경, 7권, BTTS

²See Chapter 5 under "Sangha of the Sages" for an explanation of the Five Eyes and the Six Spiritual penetrations.

2 오안과 육신통에 대한 설명은 "현인들의 승가" 제5장을 참조하십시오.

³The Ten Dharma Realm are not Beyond a Single Thought, BTTS. The verses and the explanations of the Three Evil Destinies are excerpted from the Venerable Tripitaka Master Hsuan Hua's commentary on the Ten Dharma Realms.

3 십법계는 한 생각을 넘지 않는다. BTTS 삼악도에 대한 구절과 설명은 십법계에 대한 삼장법사 선화 상인의 해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The Bodhisattva Universal Worthy
(Samantabhadra), Foremost in Practice
수행 제일 보현보살

Appendix II

부록2

The Ten Great Practices of All Bodhisattvas
보살의 10대행

In the Flower Adornment Sutra, considered the king of kings of Sutras, the Buddha tells how all Bodhisattvas everywhere and throughout all time practice these ten conducts of the Bodhisattva Universal Worthy (Samantabhadra), in order to become Buddhas:

경전의 왕 중의 왕인 화엄경에서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이 되기 위해 보현보살의 열 가지 수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Worship all Buddhas

모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Before the Lions Among Men (the Buddhas)
throughout the worlds of the ten directions,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With body, mouth, and mind entirely pure,

I bow before them all omitting none.

가이없는 시방세계 그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께

맑고맑은 몸과 말과 뜻을 기울여

빠짐없이 두루두루 예경하옵니다.

Praise the Thus Come Ones

항상 여래를 찬탄합니다.

With each oceanic sound I let fall everywhere Words and phrases,
wonderful and endless, Which now through all the eons of the future,
Praise the wide, deep ocean of the Buddha's merit and virtue.

몸몸마다 한량없는 음성으로써
다함없는 묘한 말씀 모두 내어서
오는 세상 일체겁이 다할 때까지
부처님의 깊은 공덕 찬탄합니다.

Extensively Make Offerings

널리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I vow to always meet the Thus Come Ones face to face
And the hosts of disciples who surround them.
Untiringly to the end of future time, I will make offerings to them vast
and great.

넓고 크고 수승하온 이내 슬기로
시방삼세 부처님을 깊이 믿삽고
보현보살 행원력을 모두 기울여
일체제불 빠짐없이 공양합니다.

Repent of and Reform Karmic Obstacles

쌓인 업장을 참회합니다.

All the evil deeds I have done From beginningless ignorance, greed, and
hate,
Created by my body, mouth and mind: I now repent of and will reform
them all.

지난세상 지은바 모든 악업은
무시이래 탐심 진심 어리석음이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내가 이제 남김없이 참회합니다.

Rejoice in and Follow Merit and Virtue

공덕을 따라 기뻐합니다.

I rejoice in the merit and virtue Of all beings in the ten directions,
Those still learning and those beyond, And all Thus Come Ones and
Bodhisattvas.

시방삼세 여러 종류 모든 중생과
성문연각 유학무학 여러 이승과
일체의 부처님과 모든 보살의
지니시온 온갖 공덕 기뻐합니다.

Request that the Wheel of Dharma be Turned

부처님께 법륜을 굴리길 청합니다.

Before the Lamps of the Worlds (the Buddhas) of the ten directions,
Those who first Enlightenment won,
I now beseech them all
To turn the supremely wondrous wheel of Dharma.

시방세계 계시옵는 세간 등불과
가장 처음 보리도를 이루신님께
위없는 묘한 법문 설하시기를
내가 이제 지성다해 권청합니다.

Beseech the Buddhas to Remain in the World

부처님이 세간에 거주하기를 원하옵니다.

If there are Buddhas who wish for Nirvana,
I beseech with deep sincerity
That they stay in the world for eons as many as dust motes in worlds,
To benefit and bring happiness to every living being.
부처님이 반열반에 들려하시면

찰진겁을 이 세상에 계시오면서
일체중생 이락하게 살펴주시길
있는 지성 기울여서 권청합니다.

Always Follow the Buddhas and Learn from Them
부처님을 따라 배웁니다.

All future Teachers of gods and Humans (the Buddhas).
Whose quest for happiness has been fulfilled
I will learn from and follow them
throughout the three periods of time. And quickly attain great
Enlightenment.

여러가지 즐거움이 원만하도록
오는 세상 부처님께 공양하옵고
삼세의 부처님을 따라배워서
무상보리 속히 얻기 원하옵니다.

Always Comply with Living Beings
항상 중생들에 순응합니다.

Ending their sufferings in the paths of evil.
And bringing happiness to everyone equally,
May I for eons like the particles of dust in a world
Ever benefit all in the ten directions.

일체 악과 온갖 고통 모두 없애고
중생에게 즐거움을 고루 주기를
찰진겁이 다하도록 쉬지않으며
시방중생 위하는 일 한이 없으리.

Transfer All Merit to Living Beings

모든 공덕을 회향합니다.

All the merit and virtue that I have acquired from worshipping the Buddhas,

Up to and including according with living beings,
I transfer to all living beings everywhere Throughout the Dharma Realm
and the reaches of space.¹

예경하고 찬양하고 공양한 복덕
오래계서 법문하심 청하온 공덕
기뻐하고 참회하온 온갖 선근을
중생들과 보리도에 회향합니다.¹

¹'Universal Worthy's Conduct and Vows, Chapter 40, Flower Adornment Sutra, BTTS,
1 화엄경 40장 보현보살행원

The Ideals of the Dharma Realm Buddhist Association

법계불교총회의 이상

Members of the Dharma Realm Buddhist Association feel that it is extremely important for followers of the Dharma to maintain the high standards of ethics and practice originally taught by the Buddha.

Although we may fall short of these standards, it is a mistake to dilute the teachings and bring them down to the level of our own personal inability and limited views. Rather we should recognize our faults and limitations and "try our best" to really change and go towards the ideal good as exemplified by the Buddhas and Bodhisattvas.

법계불교총회의 회원들에게 부처님이 가르친 높은 윤리와 수행의 기준을 불자들이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기준에 미치지는 못할지라도, 가르침을 희석시키고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무능과 제한된 견해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결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불보살이 보여주는 이상적인 선을 향해 변화하고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A Bodhisattva reflects to himself,
보살은 다음과 같이 자신을 참회합니다.

From beginningless kalpas in the past, because of greed, hatred and stupidity, in body, speech, and thought, I have created measureless, limitless bad karma. If this bad karma had a substance and appearance, exhausting the reaches of space it could not be contained within. I now completely purify my three karmas, and sincerely repent of all this before all the Buddhas and assemblies of Bodhisattvas throughout the Dharma Realm in the world systems as numerous as the particles of dust in a world. I will never do any of it again, rather I will always abide in the merit and virtue of the pure moral precepts.¹

과거 무시겁 아래로부터 탐진치로 인해서 신구의로 한량없이 무한한 악업을 지었습니다. 이 악업이 모양과 형태가 있다면, 허공이 다하여도 이 악업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제 삼업을 완전히 정화하고, 미진처럼 많은 법계의 모든

불보살님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다시는 잘못을 짓지 않고 항상 청정한 도덕적인 계의 공덕을 지키겠습니다.1

The more we study the Sutras and actually practice the teachings, the more we become aware of how great our ignorance and faults are.

Indeed, the key to genuine wisdom is the ability to see our ignorance and faults. For how can we solve the problem of our ignorance, the root of suffering, if we do not even realize to what extent it exists?

경전을 더 많이 공부하고 실제로 가르침을 수행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무지와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 인지합니다. 진정한 지혜의 열쇠는 자신의 무지와 결점을 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무지의 정도를 모른다면 어떻게 고통의 근원인 무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If we really have faith and some understanding of the Buddha's teachings, then, when we realize our faults, or when others point them out to us, we are truly happy, because we have the opportunity to change and go towards Enlightenment.

진정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스스로의 잘못을 알아차렸을 때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진정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하고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The Sage has few errors.

The superior man changes his errors.

The petty man covers his errors.

The foolish man sees no errors.2

현자는 잘못이 거의 없습니다.

군자는 잘못을 고칩니다.

소인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을 보지 못합니다.2

No matter how great our faults are, or how obstructed we are by our greed, hatred, and delusion, we always have the potential to recognize this and change. One of the most remarkable things about the Dharma is that, although the criteria of the Buddha's ultimate purity and wisdom

make our own state seem so coarse and impure by comparison, yet all of us still have the potential to become just like the Buddha.

우리의 결점이 아무리 크더라도, 혹은 우리의 탐진치가 우리를 장애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이것을 인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부처님의 궁극적인 청정과 지혜의 기준과 비교해서 우리 자신의 상태는 너무 거칠고 불순하게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여전히 부처님과 똑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The kindness of the Buddhas and Bodhisattvas is difficult to repay. If it were not for their great compassion we would not have the opportunity even to know about our true, enlightened nature, let alone the way to practice in order to realize it.

불보살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그들의 대비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하는 방법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진정한 각성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I am a good doctor for those who are suffering from sickness. I show the proper road to those who have lost their way. I am a bright light for those within the dark night. And I enable those who are poor to discover hidden treasures. A Bodhisattva in this way equally benefits all living beings....

나는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좋은 의사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줍니다. 어두운 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숨겨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살은 모든 중생에게 똑같이 혜택을 줍니다.

Why? Because all Buddhas, the Thus Come Ones, take a heart of great compassion as their substance. Because of living beings, they give rise to great compassion. From great compassion, the Bodhi-mind is born.

Because of the Bodhi-mind they realize the Equal and Right

Enlightenment.3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불여래는 대비심의 마음을 그들의 체로 삼기 때문입니다. 중생들 때문에, 그들은 대비심을 낳습니다. 대비심에서 보리심이 생깁니다. 보리심 때문에 그들은 등정각을 깨닫습니다.3

If we maintain the high standards of the Buddha's teachings, then we are giving ourselves and others the opportunity to realize the ultimate happiness and wisdom which come from studying and practicing them. The precious treasure of the Dharma must be carefully protected.

부처님의 가르침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불법을 공부하고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행복과 지혜를 실현할 기회를 줍니다. 귀중한 법보는 신중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Activities of the Dharma Realm Buddhist Association

법계불교총회의 활동

The Dharma Realm Buddhist Association (DRBA), formerly known as the Sino-American Buddhist Association, was established in 1959 as a state and federally approved non-profit religious and educational corporation for the purpose of bringing the orthodox teachings of the Buddha to the entire world.

예전에 중미불교협회로 알려진 법계불교총회는 부처님의 정통적인 가르침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9년에 설립하고 연방 정부가 승인한 비영리 종교 및 교육 법인입니다.

At all of its monasteries, DRBA offers a rigorous schedule of Buddhist practice seven days a week from 4.00 a.m. to 10.00 p.m. The daily schedule includes approximately seven to eight hours religious services, repents, and group meditation, as well as lectures on the Buddhist scriptures. At the City of 10,000 Buddhas in Mendocino County, California the main training center of DRBA, there are also daily courses in Buddhist and canonical language studies, week-long intensive recitation and meditation sessions every other month, a month-long 10,000 Buddhas Repentance Ceremony in the spring (April/ May), and a three to ten week Buddha recitation and Chan meditation session in the winter (December/ January). Residents gain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essential teachings of the major schools of Buddhism, develop skill

in scripture languages, and become adept at a wide variety of spiritual practices. The foundation of the practice is a high standard of ethics; all residents hold the Five Buddhists Precepts which prohibit killing any living being (includes vegetarianism), stealing, improper sexual conduct, false speech, and taking intoxicants (alcohol, drugs, and tobacco), and all strive to perfect the Six Guiding Principles: not contending with anyone, not being greedy, not seeking for anything, not being selfish, not wanting personal advantage, and not lying.

법계불교총회(DRBA)의 모든 사찰에서는 일주일 내내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엄격하게 불교 수행을 합니다. 하루 일정은 약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예불, 참회, 단체 명상, 불교 경전에 대한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DRBA의 주요 훈련 장소인 캘리포니아 멘도시노 카운티의 만불성성에서는 불교와 표준어 연구, 격월로 일주일간의 집중 염불 명상 안거가 진행됩니다. 봄(4월/5월)에 한 달간의 만불 참회 의식, 겨울(12월/1월)에는 3주에서 10주간의 염불과 좌선 안거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불교의 주요 종의 본질적인 가르침에 대해 철저하게 이해하며, 경전 용어에 대한 실력을 쌓으며, 다양한 영적 수행을 능숙하게 합니다. 이러한 수행의 기초는 높은 도덕 기준입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불살생(채식 포함),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의 다섯 가지 불교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리고 모두는 여섯 가지 지침을 완벽히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탐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이득을 구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The activities of DRBA are offered through a federally approved four year Sangha (monastic) and four year Laity Training Program. The Sangha Training program is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receiving the Complete Precepts of a Bhikshu/ Bhikshuni (celibate Buddhist monk/nun) through traditional ordination procedures. In 1972 DRBA held the first Complete Precept Platform in the United State at Gold Mountain Monastery in San Francisco. Since that time, the full ordination for Bhikshus and Bhikshunis has been held at the Sagely City of 10,000 Buddhas every three or four years.

DRBA는 연방정부가 승인한 4년의 승가와 4년의 재가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승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비구/비구니가 구족계를 받기 위한 일부 요건을 갖춥니다. 1972년 DRBA는 샌프란시스코의 금산사에서 미국 최초로 구족계 수계를 위한 계단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로, 비구와 비구니에 대한 구족계 수계산림은 3, 4년마다 만불성성에서 거행되었습니다.

One of the DRBA's major tasks is the translation of the main Buddhist scriptures from Classical Chinese and Sanskrit into the world's languages, primarily English. To date, under the auspices of the Buddhist Text Translation Society, DRBA has published over 150 volumes in English, Chinese, Vietnamese and Spanish. Works in English include the Flower Adornment (Avatamsaka) Sutra, Lotus Flower of The Wonderful Dharma (Saddharma-Pundarika) Sutra, Shurangama Sutra, Vajra Prajna Paramita (Diamond) Sutra, Sutra in 42 Sections, Great Compassion Heart Dharani Sutra of Avalokiteshvara Bodhisattva, Sutra of the Past Vows of Earth Store (Kshitigarbha) Bodhisattva, Amitabha (Sukhavati-Vyuha) Sutra, Brahma Net Sutra, Sixth Patriarch's Sutra, 100 Dharmas Shastra, Shramanera Vinaya and Rules of Deportment, and Song of Enlightenment.

DRBA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고대 중국어와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주요 불교 경전을 세계적 언어, 주로 영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불교 텍스트 번역 협회의 후원으로 DRBA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및 스페인어로 150권 이상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영어 경전으로는 화엄경, 묘법연화경, 능엄경, 금강경, 42장경,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경, 지존보살본원경, 아미타경, 범망경, 육조단경, 100법론, 승가율, 증도가가 있습니다.

DRBA has established various educational and social service programs to promote peace, happiness, and a high standard of ethical conduct for the world. The Sagely City of 10,000 Buddhas also includes Dharma Realm Buddhist University, Developing Virtue Secondary School, and Instilling Goodness Elementary School. The elementary school emphasizes the development of reverence to one's parents; the

secondary school stresses loyalty to one's country; and the university is based on the cardinal virtue of benevolence.

DRBA는 세계에 평화, 행복, 윤리의 높은 기준을 세우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만불성성에는 또한 법계 불교대학, 덕행중등학교, 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존경을 강조합니다; 중등학교에서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합니다; 대학교는 자선의 기본적인 덕목을 기반으로 합니다.

DRBA presently has branch monasteries in the United States in San Francisco, Los Angeles, Long Beach, Sacramento, San Jose and Seattle; in Canada in Vancouver and Calgary, as well as in Taiwan, Malaysia and Hong Kong.

DRBA는 현재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새크라멘토, 산호세, 시애틀, 캐나다의 밴쿠버, 캘거리, 대만, 말레이시아, 홍콩에 지사 절이 있습니다. The spiritual guide of DRBA is its founder, the most Venerable Tripitaka Master Hsuan Hua.

DRBA의 정신적 스승은 DRBA의 설립자이자 가장 존경하는 삼장법사 선화 상인입니다.

1 Universal Worthy Bodhisattva's conduct and vows, Chapter 40, Flower Adornment Sutra, BTTS.

1 화엄경 40장 보현보살 행원품 BTTS

2 Analects of Confucius.

2 공자의 논어

3 Universal Worthy Bodhisattva's Conduct and Vows, Chapter 40, Flower Adornment Sutra, BTTS.

3 화엄경 40장 보현보살 행원품 BTTS

THE TRUE MEANING OF TAKING REFUGE

귀의의 진정한 의미

An Introduction

소개

The Dharma Realm Buddhist Association

법계불교총회

The Dharma Realm Buddhist Association (DRBA), was founded by the Venerable Master Hsuan Hua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1959. Taking the Dharma Realm as its scope and the propagation of the genuine teachings of the Buddha throughout the world as its goal, the Association is dedicated to translating the Buddhist canon, propagating the Orthodox Dharma, and promoting ethical education for the benefit and happiness of all beings.

법계 불교회 (DRBA)는 1959년 미국에서 선화 스님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협회의 목표는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에 불교 경전을 번역하고, 정통법을 전하며,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윤리 교육에 전념합니다.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strive to follow the Six Guidelines established by the Venerable Master, which are: no fighting, no greed, no seeking, no selfishness, no pursuing personal advantage, and no lying. Furthermore, they follow the Three Great Principles:

회원들은 선화상인이 정한 여섯 가지 지침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싸우지 않는다, 탐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 이기적이지 않는다,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3대 원칙을 따릅니다.

Freezing, we do not scheme.

얼어 죽어도 인연에 기대지 않는다. 동사불반연 凍死不攀緣

Starving, we do not beg.

굶어 죽어도 구걸하지 않는다. 아사불화연 餓死不化緣

Dying of poverty, we ask for nothing.

가난해 죽어도 인연을 구하지 않는다. 궁사불구연 窮死不求緣

According with conditions, we do not change.

인연을 따르되 변하지 않고, 수연불변 隨緣不變

Not changing, we accord with conditions.

변하지 않되 인연을 따른다. 불변수연 不變隨緣

We adhere firmly to our three great principles.

우리의 3대 종지를 굳게 지킨다. 포정아문삼대종지 抱定我們三大宗旨

We renounce our lives to do the Buddha's work.

부처님의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사명위불사 捨命爲佛事

We take responsibility to mold our own destinies.

근본적인 일을 위해 운명을 개척한다. 조명위본사 造命爲本事

We rectify our lives to fulfill the Sangha's role.

승가의 일을 위해 삶을 바르게 한다. 정명위승사 正命爲僧事

Encountering specific matters, we understand the principles.

일에 임해 도리를 분명히 하고, 즉사명리 卽事明理

Understanding the principles, we apply them in specific matters.

도리를 분명히 해서 일에임한다. 명리즉사 明理即事

We carry on the single pulse of the Patriarchs' mind-transmission.

조사로부터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법을 보급한다. 추행조사일맥심전

推行祖師一脈心傳

Over the years the Association has founded various international spiritual communities, such as Gold Mountain Monastery, the City of Ten Thousand Buddhas, and the City of the Dharma Realm. Sangha members

at these places are required to uphold the Buddha's regulations of eating only one meal a day before noon and wearing their precept-sash at all times.

수년에 걸쳐 협회는 금산사, 만불성, 법계성과 같은 다양한 국제적인 영적 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곳의 승가는 정오 전에 하루에 한 끼 먹고 항상 가사를 착용하는 부처님의 규율을 지켜야 합니다.

They observe the precepts, recite the Buddha's name, study the teachings, and practice meditation, dwelling in harmony and dedicating their lives to Buddhism. The Association has established the International Translation Institute, the Sangha and Laity Training Programs, Dharma Realm Buddhist University, elementary and high schools, and other programs to promote education and the translation of the Buddhist canon.

그들은 계를 지키고, 부처님 명호를 외우고, 가르침을 연구하고, 명상 수행을 하며, 화합하며 불교에 일생을 헌신합니다. 협회는 국제번역원, 승가와 재가자의 양성 프로그램, 법계불교대학,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불교 경전의 교육과 번역을 촉진하기 위한 다른 프로그램들을 설립했습니다.

The Association's branch organizations are open to those of all faiths and nationalities. Any person who wishes to devote himself or herself to kindness, virtue, and truth, who wishes to understand his or her own mind and inherent nature, is welcome to study and cultivate in these communities.

협회의 지부 조직은 종교와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자애, 덕, 진리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과 본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공동체에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Venerable Master Hsuan Hua

선화상인

The Venerable Master Hua was also known as An Tse and To Lun. The name Hsuan Hua was bestowed upon him after he received the transmission of the Wei Yang Lineage of the Chan School from Venerable Elder Master Hsu Yun. He was born in Manchuria at the end of the Qing dynasty and left the home-life at the age of nineteen. He lived in a tiny hut by his mother's graveside for three years, as an act of filial respect. During that time, he meditated and studied the teachings. Among his many practices of purity were eating only one meal a day before noon and never lying down to sleep. He travelled widely to study and draw near Elder Masters of great virtue, in particular Elder Master Hsu Yun.

선화 스님은 안제와 도륜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선화는 위양종의 허운 스님으로부터 법을 전수받은 후에 받은 법명입니다. 그는 청나라 말기에 만주에서 태어났고 19세에 출가했습니다. 그는 효를 다하기 위해 3년 동안 어머니의 무덤 옆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시묘살이를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명상을 하고 가르침을 공부했습니다. 그의 많은 청정행 중에는 정오 전에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절대 누워서 자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는 대덕스님들, 특히 허운스님을 친견하기 위해 널리 다니면서 공부했습니다.

In 1948 the Master arrived in Hong Kong, where he founded the Buddhist Lecture Hall and other monasteries. In 1962 he brought the proper Dharma to America and the West, where he lectured extensively on the major works of the Mahayana Buddhist canon and delivered over ten thousand speeches on the Dharma. He was a pioneer in establishing the Triple Jewel in America.

1948년에 선사는 홍콩에 도착했고 그 곳에서 불교 강당과 다른 수도원들을 설립했습니다. 1962년 그는 미국과 서양에 정법을 들여왔으며, 그곳에서 그는

대승 불교의 주요 경전을 광범위하게 강의했고 만번 이상의 법문을 설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삼보를 세운 선구자였습니다.

Over the years, the Master founded the Dharma Realm Buddhist Association and its various branch organizations. He taught Eastern and Western students to practice Buddhism in daily life and trained disciples to translate the Buddhist canon and establish schools. Under his guidance, the monastic communities of the Association have become a Sangha that genuinely practices the Buddhist teachings. On June 7, 1995 the Master entered the stillness in Los Angeles, U.S.A., and the world mourned the setting of the sun of wisdom. Although he manifested entry into stillness, the example that he set will continue to live. Throughout his life he worked selflessly, teaching with wisdom and compassion and inspiring many people to correct their faults and walk upon the pure and noble path to enlightenment.

수년에 걸쳐, 선사는 법계 불교 협회와 다양한 지부 조직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동서양의 제자들에게 일상 생활에서 불교를 실천하도록 가르쳤고, 제자들을 훈련시켜 불교의 경전을 번역하고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협회의 공동체들은 진정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승가가 되었습니다. 1995년 6월 7일, 선사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적에 들었고 세계는 지혜의 태양이 지는 것을 애도했습니다. 비록 그는 적에 들었지만, 그가 세운 본보기는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사심 없이 일하면서 지혜와 연민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깨달음의 순수하고 고귀한 길을 걷도록 격려했습니다.

VERSE FOR OPENING A SUTRA

개경계

The unsurpassed, deep, profound, subtle, wonderful Dharma,
무상심심미묘법 (無上甚深微妙法) 더없이 높고 깊은 부처님법 묘한 진리
In hundreds of thousands of millions of eons, is difficult to encounter;
백천만겁난조우 (白天萬劫難遭遇) 백천만겁 지내어도 만나뵙기 어려워라
I now see and hear it, receive and uphold it,
아금문견득수지 (我今聞見得受持) 제가 이제 듣고 보고 얻어 받아 가지니
And I vow to fathom the Tathagata's true and actual meaning.
원해여래진실의 (願解如來眞實義) 부처님의 참뜻 원하오니 깨닫게 하소서

Contents

목차

- The Greatest Thing in Life— Taking Refuge with the Triple Jewel**
삶에서 가장 위대한 것-삼보에 대한 귀의
- Turn of the Head Is the Other ShoreTaking Refuge with the Triple Jewel**
고개를 돌리면 피안이다-삼보에 귀의
- Those Who Take Refuge with the Triple Jewel Should Observe the Precepts**
삼보에 귀의한 사람들은 계율을 지켜야 합니다.
- You Should Not Take Refuge Just to Join the Crowd**
군중에 합류하기 위해 귀의해서는 안됩니다.
- Quickly Walking on the Path to Buddhahood**
빨리 불도를 걸으세요.

The Greatest Thing in Life –Taking Refuge with the Triple Jewel

삶에서 가장 위대한 일-삼보에 귀의

A talk by the Venerable Master Hua on March 28, 1993,

at Long Beach Monastery

1993년 3월 28일 롱비치 사원에서

The greatest thing in life is to take refuge with the Triple Jewel. You have to be serious about this. Don't treat it casually, and don't act on a whim. First of all, you have to choose a teacher of genuine understanding and wisdom to take refuge with. That way, when there is some principle you do not understand, you will receive the proper guidance that will allow you to gain insight into the Buddha's knowledge and views. Don't join "external sects" [sects that seek truth outside the mind] or listen to the instructions of misguided teachers.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삼보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진지해야 합니다.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제멋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우선, 여러분은 귀의할 만한 진정한 이해와 지혜를 갖춘 스승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원칙을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분이 부처님의 지식과 견해를 통찰할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지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외도의 종파" [마음 밖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종파]에 가입하거나 잘못된 스승들의 지침을 듣지 마세요.

It is not only now that external sects and misguided teachers have become so popular. They were also very numerous when the Buddha was in the world. At that time, there were ninety-six external sects and seventy-two cults. These flourished even more than the Proper Dharma. People joined these cults simply because they did not understand the truth. Such cults are very harmful, for they can easily lead you astray. You start out hoping to gain some benefit, but once you go astray, you will only be harmed. It is very dangerous.

외도 종파와 잘못된 스승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것은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부처님 재세시에 그것들은 또한 매우 많았습니다. 그 당시, 96개의 외도 종파와

72개의 사이비 종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법보다 훨씬 더 번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이비 종파들에 참여했습니다. 그러한 사이비 종교로 여러분은 쉽게 길을 잊기 때문에 매우 해롭습니다. 여러분은 이로움을 얻기를 바라며 시작하지만, 한 번 길을 잊으면 해를 입을 뿐입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If you want to take refuge with the Triple Jewel and enter the Treasury of the Proper Dharma Vision and the Wonderful Mind of Nirvana, you must look for wise teachers. However, even among left-home people, the wise and the unwise are intermingled; they are not all the same. If you make the mistake of joining an external sect, you will suffer great harm; and if you mistakenly follow the teachings of a misguided teacher, the harm is even greater.

삼보에 귀의하고 정법의 보물과 열반의 묘심에 들기 위해서는 현명한 스승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출가자들 사이에서도 현명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외도 종파에 가담하는 잘못을 저지르면 큰 해를 입게 되고, 잘못된 스승의 가르침을 잘못 따르게 되면 그 해악은 더욱 커집니다.

Therefore, all of you who are studying the Buddhadharma, don't let it happen that you seek to ascend but end up falling into the hells instead. Don't let it be that you want to find happiness, but suffer boundless misery instead. That's why I said that taking refuge is a matter of the highest priority, nothing is more important. When you take refuge with me, you have to consider everything clearly and recognize the path you're taking.

그러므로 불법을 공부하는 여러분 모두는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닌 무한한 불행을 겪게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귀의는 최우선 사항이고, 어떤 것도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귀의할 때 모든 것을 분명히 고려하고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을 인식해야 합니다.

Each of you should bring forth the utmost sincerity in repenting of your past offenses before the Buddhas. If you are really sincere in repenting, then your offenses will be eradicated, and your good roots will grow. But if you are not sincere, your offenses will still remain, and your good roots will not grow. So, it all depends on your sincerity and concentration. Do not let your mind get distracted; avoid deluded thoughts; and restrain your wild mind. You have to be true and sincere when taking refuge. If you simply go through the motions, you will not get a response.

부처님 전에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칠 때 지극한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참회한다면, 잘못은 근절될 것이고, 선근은 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이 아니라면, 잘못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고, 선근은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의 진심과 집중력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하고, 현혹된 생각을 피하며, 거친 마음을 억제하십시오. 여러분은 귀의할 때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몸으로만 따라 한다면, 감응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If your faith is solid and your conduct is pure, then from the time you formally take refuge until you become a Buddha, you will not run into any great difficulties. If your faith is weak and your conduct is impure, then you can forget about becoming a Buddha. You will have a hard time just being a person. Not only laypeople, but even left-home people will fall into the hells if they do not cultivate.

믿음이 굳건하고 행이 청정하다면 정식으로 귀의해서 부처가 될 때까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고 행이 청정하지 않다면 부처가 되는 것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으로서 힘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재가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출가자들도 수행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Therefore, all you laypeople should do your best and work hard. Do not be absent-minded and disrespectful toward Buddhism. You should revere the Triple Jewel, make offerings to the Triple Jewel, believe in the

Triple Jewel, and serve the Triple Jewel all your life. Then you will have a response in the Way. If you cannot do this after you take refuge, and you still act as if you had not taken refuge at all, then you will not have any responses.

그러므로, 모든 재가자들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불교를 망각하고 불경하게 대하지 마세요. 삼보를 공경하고, 삼보에 공양을 올리고, 삼보를 믿으며, 평생 삼보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 후 도에 감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의한 후에도 이렇게 할 수 없고, 여전히 여러분이 귀의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감응도 없을 것입니다.

Every morning when you get up, you should make the Four Vast Vows before the Buddhas. These are vows that every Bodhisattva should make. Make these vows in the morning, and in the evening ask yourself, "Living beings are limitless; have I saved them? I have vowed to cut off the endless afflictions. Have I cut them off? If not, I must cut them off. If I haven't saved living beings, then I must save them. And if I haven't gotten rid of my afflictions, I must cast them out. I have vowed to learn the boundless Dharma-doors. But have I learned them? No? Then I must do so. No matter how busy I am, I ought to devote time to reciting Sutras and reading Buddhist books in order to learn the boundless Dharma-doors. I have vowed to accomplish the unsurpassed Buddha Way, but I am still an ordinary person, not a Buddha. I must hurry and cultivate in order to realize Buddhahood." You should contemplate in this way every day. In the morning make the Four Vast Vows, and in the evening reflect to see whether you have fulfilled them.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여러분은 부처님 앞에서 사홍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들은 모든 보살들이 해야 하는 서원들입니다. 아침에 서원을 세고, 저녁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중생은 무한하다. 나는 그들을 구했는가? 나는 끝없는 번뇌를 끊겠다고 서원했다. 나는 번뇌를 끊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번뇌를 잘라내야 한다. 내가 중생을 구하지 못했다면, 나는 그들을 구해야 한다. 만약 내가

내 번뇌를 없애지 못했다면, 나는 그들을 없애야 한다. 나는 무한한 법문을 배우겠다고 서원했다. 하지만 내가 법문을 배웠나? 하지 않았나? 그럼 법문을 배워야 한다. 아무리 바빠도 독경하고 불교 서적을 읽는데 시간을 쏟아야 끝없는 법문을 배울 수 있다. 나는 위없는 불도를 이루겠다고 서원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부처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다. 불도를 깨닫기 위해 서둘러서 수행을 해야한다." 여러분은 매일 이런 식으로 관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사홍 서원을 세우고, 저녁에는 여러분이 그 서원을 이행했는지 되돌아보십시오.

*참고: 사홍서원(四弘誓願)

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번뇌무진서원단(煩惱無盡誓願斷)

법문무량서원학(法門無量誓願學), 불도무상서원성(佛道無上誓願成)

A Turn of the Head Is the Other Shore-Taking Refuge with the Triple Jewel

고개를 돌리면 피안이다-삼보에 귀의

A talk by the Venerable Master Hua on January 17, 1993, at the Taipei County Stadium in Banqiao, Taiwan

1993년 1월 17일 대만 타이베이 경기장에서

"The sea of suffering is boundless; a turn of the head is the other shore." Taking refuge is the first step. Right at the first step you must go forward vigorously. Do not turn around and retreat. This is the way to Buddhahood. If you turn around and retreat, you will fall into the three paths of suffering and wander among the eight difficulties. Therefore, it is said,

"고통의 바다는 끝이 없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피안입니다." 귀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돌아서서 후퇴하지 마세요. 이 길이 부처님의 길입니다. 돌아서서 후퇴하면 고통의 세 길로 빠져들어 여덟 가지 어려움 사이를 헤매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The Master brings you in the door, But you yourself must cultivate. 스승은 여러분을 문으로 데려오지만, 여러분이 수행해야 합니다.

You yourself have to eat to get full;

배가 부르려면 자기 스스로 먹어야 합니다.

You must put an end to your own birth and death.

여러분은 자신의 출생과 죽음을 끝내야 합니다.

Do not say, "I have taken refuge, so I can rely on the Buddha, the Dharma and the Sangha." Although the Buddha, the Dharma and the Sangha have awesome spiritual power, they cannot help you cultivate to realize Buddhahood. They cannot help you to fathom the Buddhadharma or help you to understand the path of cultivation. It is the Sangha which must propagate the Dharma and make it known in the world.

"내가 귀의를 했으니 불법승에 의지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불법승이 엄청난 신통력이 있지만, 불도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불법을 헤아리거나 수행의 길을 이해하는 것을 도울 수 없습니다. 승가가 법을 전파하고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Although you have now taken refuge with the Triple Jewel, you still have to work hard in order to make progress. If you can refrain from killing, stealing, engaging in sexual misconduct, telling lies, and taking intoxicants, then you have truly received the five precepts. If you continue to kill, steal, engage in sexual misconduct, lie, and take intoxicants, then you have not really received the five precepts.

지금은 삼보에 귀의했지만, 진전하기 위해서 여전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살생, 절도, 사음, 망어, 음주를 삼갈 수 있다면 진정한 오계를 받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고, 훔치고, 사음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취한다면, 오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If you fail to uphold the precepts after you receive them, your offenses are even more severe because you are fully aware that you are committing them. People who violate the precepts are destined to fall. You cannot say, "Oh, I've taken refuge with the Triple Jewel and received the five precepts, so I have protection. It doesn't matter if I kill, or steal,

or commit sexual misconduct. It's all right for me to tell lies and take intoxicants."

계를 받은 후에 지키지 못하면 그 죄를 범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더욱 심합니다. 계를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쓰러집니다. "아, 내가 삼보에 귀의하여 오계를 받았으니, 내가 보호를 받는구나. 내가 죽이거나, 훔치거나, 사음을 저지르거나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거짓말을 하고 술을 먹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Someone is protesting in his mind, "If the retribution for laypeople who receive and then violate the five precepts is so severe, what about left-home people who violate the precepts? Wouldn't it be even worse for them?" You should have this attitude:

어떤 이는 마음속으로 "오계를 받고 계를 어겼을 때 재가자가 받는 보가 그렇게 심하다면, 계율을 어긴 출가자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항변합니다. 그들은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Mahasattvas do not pay attention to others. Amitabha Buddha looks after himself.

마하살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아미타불은 스스로를 보살핀다.

You should watch over yourself all day long, being mindful in everything you do. Reflect upon yourself. Seek within yourself. Ask yourself every day, "Am I holding the precepts, or have I violated any of them? Since taking refuge with the Triple Jewel, have I been a true Buddhist, or have I gone over to Christianity, Judaism, Islam, or other religions? Do I study the teachings of external sects?" After you have taken refuge, your attitude should be: "Even if someone said he would kill me if I believed in the Buddha, but would let me live if I didn't, I would still refuse to believe in external sects."

여러분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주의하면서 종일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면에서 찾으세요. 여러분은 날마다 스스로 물어 보십시오. '내가

계율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계율을 어겼는가 ? 삼보에 귀의한 후, 진정한 불자가 되었는가, 아니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혹은 다른 종교로 넘어갔는가 나는 외도의 가르침을 공부하는가?" 귀의를 한 후에는 "누군가가 부처님을 믿으면 죽이고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고 해도 외도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External sects refer to the demons of the Heaven of Ease and to all the other demons from the heavens. The demons from the heavens possess spiritual powers. They can manifest endless transformations and make their spiritual powers function in mysterious ways. They constantly show off their spiritual powers. Buddhist disciples, on the other hand, do not manifest their spiritual powers. If they possess such powers, they should not reveal them or talk about them. People who claim to have spiritual powers, such as the powers of the heavenly eye and the heavenly ear, can be considered as belonging to the retinue of demons discussed in the "Fifty Skandha-demon States" chapter of the Shurangama Sutra; or else they are followers of demons from the heavens, or followers of external sects.

외도들은 안락한 천상의 마구니들과 천상에서 내려온 다른 모든 마구니들을 말합니다. 천상에서 내려온 마구니들은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화현을 나타낼 수 있고 그들의 영적인 힘을 신비로운 방식으로 작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힘을 뽐냅니다. 그러나 불교 제자들은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거나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천안이나 천이의 힘과 같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능엄경의 "50온마경"장에서 논의된 마구니의 권속에 속한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천상에서 온 마구니의 추종자이거나 외도의 추종자입니다.

Buddhists should possess Dharma-selecting Vision and not be greedy for easy rewards. If you are greedy in your quest for the Dharma, then you might study the manifest practice today because you hear it being

praised, but then study the esoteric practice tomorrow because you hear that being praised. You may study for your whole life, but because you do not stick to your principles and concentrate on one thing, you end up wasting all your time.

불자들은 택법안이 있어야 하고 쉬운 보상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법에 대한 탐구에 욕심이 있다면, 오늘은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명료한 수행을 공부할 수도 있지만, 내일은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난해한 수행을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공부해도 좋지만, 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한 가지에만 집중하지 않다 보니 결국 모든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Now that you have taken refuge, you should refrain from transgressing the five precepts. You should diligently practice according to the Three Refuges and strictly uphold the five precepts. The five precepts are the basis for attaining Buddhahood. Laypeople have five precepts, and left-home people have 250 precepts. Bhikshunis have 348 precepts. Although these precepts are very detailed and numerous, you have to truly uphold them without transgressing any of them. Basically, precepts are rules for restricting and regulating our behavior. If you try your best to follow the rules and to avoid making mistakes, then you are upholding the precepts. On the other hand, if you receive the precepts but fail to keep them, you are still a common person.

이제 귀의하였으니 오계를 범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삼귀의에 따라 부지런히 수행하고 오계를 엄수해야 합니다. 오계는 불도를 이루는 기반입니다. 재가자에게는 오계가 있고, 출가자에게는 250계가 있습니다. 비구니는 348계가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계율은 매우 자세하고 많지만, 여러분은 그 어느 것도 어기지 않고 진정으로 지켜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율은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고 규제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규칙을 따르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은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반면 계율을 받았지만 지키지 못하면 여전히 범부입니다.

The Buddha, the Dharma, and the Sangha are very fair. Anyone who cultivates can attain the fruits of cultivation. However, if you don't cultivate, you won't attain anything. Therefore, all of you should be like generals who don't even bother to dismount, but just keep going forward.

불법승은 매우 공정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수행의 과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수행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장군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Let's see who will be the first to make it to Buddhahood or to the Land of Ultimate Bliss. The merit that you gain by holding the five precepts, or by leaving the home-life to cultivate the Way, can enable you to be reborn in the Land of Ultimate Bliss. Once you get there, don't just stay there and forget about living beings; you have to come back and save living beings. Therefore, you should bring forth a great resolve to attain Bodhi and save all living beings.

누가 먼저 불도를 이루는지, 혹은 극락 정토로 가는지 지켜봅시다. 오계를 지키거나 출가하여 도를 수행함으로써 얻는 공덕이 극락정토에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거기 가면 중생을 잊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돌아와서 중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보리를 구하고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는 큰 결심을 해야 합니다.

Some people say they would like to save living beings right away. If you have not even saved yourself yet, how can you save other living beings? You are like a Bodhisattva made out of clay, who can barely save himself as he crosses the sea. You first have to save yourself. If you try to save living beings before you have saved yourself, you are simply renouncing the root to pursue the branchtips and overlooking what is near to seek that which is far away. If you help other people plow their fields but neglect your own field, you are making a big mistake.

어떤 사람들은 당장 중생을 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자신을 구하지도 않았다면, 어떻게 다른 중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바다를 건널 때 간신히 자신만을 구할 수 있는 마치 흙으로 만든 보살과 같습니다. 먼저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자신을 구하기도 전에 중생을 구하려 한다면, 단순히 뿌리를 버리고 나뭇가지 끝을 쫓고, 멀리 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가까운 것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남의 밭갈이를 도와주고 자기 밭을 소홀히 한다면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Therefore, everyone should work hard. Don't rely on your teacher and say, "My teacher has great wisdom." Your teacher cannot give you any of his wisdom. Even if your teacher has attained the Way, you still have to cultivate on your own. If you don't cultivate, then even if the Buddha appeared before you, it's not for sure that he could help you.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승님은 지혜가 대단해요."라고 말하면서 스승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스승은 여러분에게 그의 지혜를 줄 수 없습니다. 스승이 도를 얻었다고 해도 스스로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행하지 않는다면, 부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고 해도, 그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Those Who Take Refuge with the Triple Jewel Should Observe the Precepts

삼보에 귀의한 사람들은 계율을 지켜야 합니다.

A talk by the Venerable Master Hua on November 18, 1988, at the Buddhist Center in Kuala Lumpur, Malaysia

1988년 11월 1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불교 센터에서

You have formally taken refuge with the Triple Jewel and the precepts today. Originally, people did not take refuge with the precepts when they took refuge with the Triple Jewel. However, since the Buddha has entered Nirvana, living beings should take the precepts as their teacher. That's why the Ceremony for Taking Refuge included taking refuge with

the precepts. What are precepts? Precepts consist of doing no evil and practicing all good. Do not neglect to do a good deed just because it is small, and don't do an evil deed even it is slight.

여러분은 오늘 공식적으로 삼보와 계율에 귀의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삼보에 귀의할 때 계율과 함께 귀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열반에 든 아래로 중생들은 그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귀의식에는 계율에 귀의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계율이란 무엇일까요? 계율은 악을 행하지 않고 모든 선을 행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작다고 선행을 계율리 하지 말고, 경미하더라도 악을 행하지 마세요.

Many Buddhists make the mistake of praising their religion when they are in it and denouncing it after they have left it. Some people are always going from one place to another, believing in one cult today, another cult tomorrow, and yet another cult the day after that. Believing in all these different cults, they end up falling into the hells before they know it. Since they don't have a definite principle, they go around hoping to find a bargain. Their craving for new and strange things leads them to study esoteric dharmas or to join some bizarre, clandestine cult that wouldn't dare show itself in the light of day. As a result, they unwittingly become hungry ghosts, suffer in the hells, or fall into the animal realm to undergo their retributions. How pitiful!

많은 불자들은 그 종교를 믿을 때는 종교를 찬탄하고, 종교를 떠난 후에는 비난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닙니다. 오늘은 한 종교를 믿고 내일은 다른 종교를 믿고 그 다음 날 또 다른 종교를 믿습니다. 이 모든 다른 종교들을 믿으면서, 그들은 어느새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확실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쌈 물건을 찾기를 바라며 돌아다닙니다. 새롭고 이상한 것에 대한 그들의 갈망은 난해한 법을 연구하거나 기이하고 비밀스러운 컬트(종교)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종교들은 헛빛에 감히 자신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아귀가 되고,

지옥에서 고통받거나, 그들의 보를 받기 위해 축생계로 떨어집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During the refuge ceremony today, we first took refuge with the Buddhas "Having taken refuge with the Buddha, I would rather give up my body and life..." I'd rather give up this body and life than ever take refuge in external sects or with the demons of the heavens, such as Ishvara, the demon of the Heaven of Ease. Ease refers to the happiness found in such places as the Kingdom of Heaven, or perhaps some earthly kingdom. You've never been to such places, but you are so intrigued by their names that you want to go without knowing exactly where you're going. Thus, "Entering the belly of a horse and coming out of the womb of a mule, you pass by King Yama's court several times. Having just gone by Lord Shakra's palace, you return to King Yama's pot again." Transmigration in the six paths is dangerous business. If you keep running around looking for advantages, you may end up getting reborn in the animal realm. Therefore, we would rather give up our bodies and lives than take refuge with the demon Ishvara.

오늘 귀의식 때, 우리는 먼저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하였으니 차라리 몸과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천상의 마구니인 이쉬바라나 안락한 천마들 혹은 외도에 귀의하느니 이 몸과 생명을 포기하겠습니다. 안락은 천상의 왕국, 혹은 아마도 어떤 지상의 왕국 같은 곳에서 발견되는 행복을 말합니다. 그런 곳에 가 본 적은 없지만, 그 이름에 너무 흥미를 느껴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가고 싶어합니다. 그리하여 "말의 뱃속으로 들어가 노새의 자궁에서 나오면서 염라대왕의 궁정을 여러 번 지나게 됩니다. 제석천의 궁전을 지나 염라대왕의 솔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육도로 이주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익을 찾으려고 계속 뛰어다니다가 축생계에 다시 태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마 이쉬바라에 귀의하느니 몸과 생명을 포기하겠습니다.

The demons of the heavens and the followers of external sects are forever bragging about how great they are. They always promote

themselves. As the saying goes, "Old lady Wang sells melons; she sells and advertises them herself." These teachers also boast about how great they are, saying, "If you believe in my teaching, you can get enlightened instantly! You can become a Buddha in this very life. You can become a Buddha without having to follow precepts, be vegetarian, or stay away from the opposite sex!" They teach all sorts of dharmas, such as the dharma which involves coupling between men and women. Confused by all these dharmas, you think they're really wonderful and so you go around learning them. Running from one place to another, you end up straying down the wrong road, and it's not easy to turn back.

천상의 마구니들과 외도 종파의 추종자들은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끝없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스스로를 홍보합니다. "왕 할머니는 참외를 팝니다. 직접 팔고 광고도 합니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 스승들은 또한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며, "만약 제 가르침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즉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이 생에서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계율을 지키거나 채식주의자가 되거나 이성을 멀리하지 않아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남녀간의 결합을 수반하는 법과 같은 모든 종류의 법을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에 혼란스러워하면서, 여러분은 그것들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배우려 다니게 됩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달리다가 결국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고, 되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Therefore, we should not be greedy for advantages, ease, happiness, or enjoyment. Having taken refuge with the Triple Jewel, we should be content with our lot. We should live our lives peacefully, in accord with the decree of Heaven. We don't want to be opportunistic, take shortcuts, or flatter people. We should not take refuge with Ishvara, the demon of the Heaven of Ease. Rather, we should take refuge with the perfectly enlightened Tathagata, that is, with the Buddha, who is greatly wise. The World Honored One, the Buddha, is the one whom we should honor and respect.

그러므로 우리는 이로움, 편안함, 행복, 또는 즐거움에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삼보에 귀의했으니 우리 운명에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명을 받들어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회주의적이거나 지름길을 택하거나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락한 천상의 마인 이쉬바라에 귀의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원각의 여래, 즉 매우 지혜로운 부처님께 귀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해야 할 분은 세존, 부처님입니다.

Having taken refuge with the Dharma, we would also rather give up our lives than take refuge with the books of external sects. The "books of external sects" refers to the scriptures, doctrines, and books that followers of external sects publish and circulate. Not taking refuge with them means not reading them. If you don't even read them, how much the less would you take refuge with them? So you should not read the books of external sects. After you have taken refuge with the orthodox Dharma, you should not study the misguided doctrines found in the books of external sects.

법에 귀의했으니 우리는 외도 종파의 책에 귀의하느니 차라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외도 종파의 책"은 외도 추종자들이 출판하고 유통하는 경전, 교리, 서적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귀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들을 읽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들을 읽지도 않는다면, 얼마나 그들에게 귀의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외도 종파의 책을 읽으면 안 됩니다. 정법에 귀의한 후에는 외도 종파의 서적의 잘못된 교리를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Everyone should be aware of this. It should not be that after taking refuge with the Triple Jewel, you are still so muddled that when you see a statue of the local guardian spirit, you bow to it; when you see a pile of cow manure, you bow to that, too; and when you see some dog excrement, you bow to that as well. Such behavior is really pathetic. You should not read any of the books written or published by the external sects.

모두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삼보에 귀의한 후에 다음과 같이 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너무 혼란스러워서 동네 수호신 동상을 보면 절을 하고, 소똥 더미를 보면 절을 하고, 개똥을 보면 절을 하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그런 행동은 정말 한심합니다. 외도 종파가 쓰거나 출판한 책을 읽으면 안 됩니다.

Taking refuge with the Sangha means taking refuge with the Sangha of worthies and sages throughout the ten directions, not with the followers of misguided cults. If you take refuge with those cults, you will fall into the hells together with them. So you should not take refuge with them. What kind of Sangha should you take refuge with? You should take refuge with the pure Sangha, which is like a field where people can plant blessings. Why should you take refuge with the Sangha? Because the Dharma is transmitted by the Sangha. If you take refuge with the Sangha you have a chance to understand the Buddhadharma; understanding the Buddhadharma, you can become a Buddha.

승가에 귀의한다는 것은 잘못된 교단의 추종자들이 아닌 시방 성현의 승가에 귀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이비들에 귀의하면 그들과 함께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들에게 귀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승가에 귀의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복을 심을 수 있는 밭과 같은 청정한 승가로 귀의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은 승가에 귀의해야 합니까? 법은 승가에 의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승가에 귀의하면 부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부처님을 이해하면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Therefore, you should take refuge with the Sangha and not with the demons and external sects that propagate wrong knowledge and views. Don't listen to them talking about how fantastic they are, about how their eyes can emit light, how their noses can talk, and how their ears can eat. Only demons and freaks are like that. Why should a person's eyes emit light? Why should his nose talk? Why should his ears eat? How can such a person be anything but a demon or a freak? In fact, he cannot really do those things either. He just says he can in order to cheat

people. Now that you have taken refuge with the Triple Jewel, you should have proper knowledge and views. Don't cling to wrong knowledge and views.

그러므로 잘못된 지식과 견해를 전파하는 마와 외도 종파들에게 귀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환상적인지, 그들의 눈이 어떻게 빛을 내는지, 그들의 코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그들의 귀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지 마세요. 마와 괴짜들만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서 왜 빛을 발산해야 할까요? 왜 그의 코가 말을 해야 하나요? 왜 그의 귀가 먹어야 할까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마나 괴물이 아닐 수 있죠? 사실, 그는 그러한 것들을 정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삼보에 귀의하였으니 올바른 지식과 견해가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지식과 견해에 연연하지 마세요.

What is meant by a pure Sangha that is like a field of blessings? Pure means being free from defilement. Someone who is free from defilement will teach you not to fight, not to be greedy, not to seek things, not to be selfish, not to pursue personal benefit, and not to lie. A person who is able to hold the precept of not having money is truly a pure Sangha member who is a field of blessings. Even if he had access to money, he would not want it. Such a person doesn't know what money could be good for. If you give someone a little money and he is overjoyed, you ought to question his motives. If a person is always clear and unruffled whether or not he receives any offerings, if he does not flatter the rich or look down on the poor, then he is a pure Sangha member, who is like a field for planting blessings. You should distinguish clearly between the two. If you cannot recognize the difference, then you are still, and will always be, confused.

복전과 같은 청정한 승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청정이란 더러움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러움이 없는 사람은 싸우지 않을 것, 탐하지 않을 것, 구하지 않을 것, 이기적이지 않을 것,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 등을 가르칠 것입니다. 돈을 지니지 않는다는 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복전인 청정한 승가 일원입니다. 비록 그가 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그는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돈이 무엇이 좋은지 모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약간의 돈을 줬는데 너무 기뻐한다면, 그의 동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어떤 공양을 받든 받지 않은 간에 항상 맑고 평온하다면, 부자에게 아첨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다면, 그는 청정한 승가 일원으로 복전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 둘을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혼란스럽고, 앞으로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Next, we take refuge with the precepts. Taking refuge with the precepts means doing no evil and practicing all good. You should not even have the thought of evil in your mind.

다음으로, 우리는 계율에 귀의합니다. 계율에 귀의하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은 모두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마음속에 악한 생각조차 가져서는 안 됩니다.

"But bad thoughts often pop up in my mind," you say. "What should I do?"

"하지만 나쁜 생각들이 종종 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라고 당신은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You can try to gradually reduce the bad thoughts and avoid getting carried away by them. Suppose the thought comes up, "Oh! I really want to kill that person." If your reaction is, "Okay, fine, I'll go kill him right away!" then you've been carried away by the thought.

여러분은 점차적으로 나쁜 생각들을 줄이고 그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오! 정말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라는 생각이 떠오른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여러분의 반응이 "좋아, 좋아, 내가 당장 그를 죽이려 갈게!"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Suppose you think, "Oh! He has a diamond worth such-and-such an amount. It's a very rare gem. I'm going to figure out a way to steal it." That's an evil thought.

여러분이 "오! 그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 그것은 매우 희귀한 보석이야. 그걸 훔칠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In general, if you do not have any bad thoughts, such as the thoughts that men and women have about each other, then your thoughts are proper. When a man and a woman daydream about each other, their thoughts are improper and unwholesome. Therefore, we should diligently cultivate morality, concentration, and wisdom and extinguish greed, anger, and stupidity. Again, the old saying, "Do not do an evil deed just because it is slight, and don't overlook a good deed just because it is small." To follow this principle is to take refuge with the precepts.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등과 같은 나쁜 생각이 없다면, 당신의 생각은 올바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 대해 공상을 할 때, 그들의 생각은 부적절하고 불건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덕과 집중과 지혜를 부지런히 기르고 탐진치를 없애야 합니다. 다시 옛말에 이르기를 "악행이 경미하다고 하여 행하지 말고, 선행이 작다고 하여 간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원칙을 따르는 것은 계율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Having taken refuge with the precepts, over the course of time we will accumulate merit and virtue, develop great wisdom, bring wisdom and blessings to perfection, and then realize Buddhahood and unsurpassed perfect enlightenment (anuttarasamyaksambodhi). After attaining unsurpassed perfect enlightenment, we have to turn the ship of compassion around and come back to save all living beings. These are the basic conditions for people who take refuge with the Triple Jewel, and we should know them. Once we have taken refuge, we should not commit offenses, exploit situations for our advantage, or try to get a good deal out of Buddhism. If we did that, we would be making a great mistake! Do you understand? [Everyone: "Yes!"]

계율에 귀의한 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공덕을 쌓고, 위대한 지혜를 기르고, 지혜와 복을 완성하면, 불도와 위없는 원각(아녹다라삼약삼보리)를 깨달을 것입니다. 위없는 원각을 얻은 후, 우리는 자비의 배를 돌려 모든 중생을 구하기 위해 돌아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삼보에 귀의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조건들이며, 우리는 그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귀의하면, 우리는 잘못을 짓거나, 우리의 이익을 위해 상황을 이용하거나, 불교를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모두: "네!"]

We should practice in accord with the Four Vast Vows. The first one is, "Living beings are boundless; I vow to save them all." We should think about it: Have we saved any living beings? If not, then have we saved ourselves? What does it mean to save ourselves? Have we been genuinely good Buddhists after taking refuge with the Buddha, or have we just come to Buddhism for the sake of getting food and clothing? Have we used religion to cheat people out of their money? Are we trying to fool people in Buddhism? If we have been that way, then not only will we be unable to save living beings, we ourselves will fall into the hells. That's the first thing we should know. We should set a good example for living beings and influence them to resolve their minds on enlightenment. It doesn't matter if we can save only one living being. Bit by bit, over the course of time, we will be able to save two beings, three beings, four beings, five beings, and so on. That's how we should go about saving living beings.

우리는 사홍서원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중생은 무한합니다. 나는 그들을 모두 구하겠다고 서원합니다(중생무변서원도, 衆生無邊誓願度)."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중생을 구했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구했나요? 우리 자신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부처님께 귀의한 후 진정 좋은 불자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음식과 옷을 얻기 위해 불교에 온 것일까요? 우리는 사람들을 속여 돈을 빼앗기

위해 종교를 이용해 왔나요? 우리가 불교에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건가요? 만약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온다면, 우리는 중생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사항입니다. 우리는 중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하고, 그들이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결심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한 중생만 구한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두 중생, 세 중생 네 중생, 다섯 중생 등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중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The second VOW make is, we should "Afflictions are endless; I vow to cut them off." Have my afflictions, my bad temper, my obstinate bovine temperament—or my canine or feline temperament, for that matter—been cut off? Is my disposition that of a human being or that of a beast? Do I understand the human temperament? Am I willing to cut off my afflictions? If not, then I have yet to fulfill the Four Vast Vows. Thus, the first thing we should do is cut off afflictions and get rid of ignorance. Once we have done so, we will be true Buddhists. That's why we should not have any temper!

두 번째 서원은 "번뇌는 끝이 없습니다; 나는 그들을 끊을 것을 서원합니다(번뇌무진서원단, 煩惱無盡誓願斷)"입니다. 나의 번뇌, 나쁜 성질, 고집스러운 황소 기질, 혹은 개 기질이나 고양이 기질이 끊어졌나요? 나의 성향은 사람의 성향인가요, 아니면 짐승의 성향인가요? 내가 인간의 기질을 이해합니까? 내가 내 번뇌를 끊을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아직 사홍 서원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번뇌를 끊고 무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진정한 불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질을 부리면 안 됩니다!

"Dharma doors are immeasurable; I vow to learn them all." Have I learned them? Or do I read pornographic novels every day? Am I spending all my time reading romance novels? Am I always reading novels that cause people to think about improper things? Have I studied the Sutras? We

should know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Are we wasting our valuable time doing meaningless things? We must learn the Dharma doors. Why? Because we want to realize the unsurpassed Buddha Way.

"법문은 무량합니다. 나는 법문을 모두 배울 것을 서원합니다(법문무량서원학, 法門無量誓願學)." 내가 법문을 배웠나요? 아니면 매일 포르노 소설을 읽나요? 나는 로맨스 소설을 읽는데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나는 항상 부적절한 것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소설을 읽고 있나요? 내가 경전을 공부했나요?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일을 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나요? 법문을 배워야 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우리는 위없는 불도를 이루고 싶기 때문입니다.

"The Buddha Way is unsurpassed, I vow to realize it." Have we realized the Buddha Way yet? No. Well, do we want to? If so, we must bring forth a great Bodhi resolve and advance courageously and vigorously without ever retreating. If we can do that, then the power of these Four Vast Vows will help us to maintain our practice until we attain the unsurpassed, perfect enlightenment of the Buddha. If you don't do that, then you are simply heading for a fall. Although you have taken refuge with the Triple Jewel, you haven't truly understood what the Triple Jewel is all about.

"불도는 위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를 것을 서원합니다 (불도무상서원성, 佛道無上誓願成)." 불도를 아직 깨닫지 못했나요? 못 했습니다. 그럼 깨닫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후퇴하지 않고 용감하고 힘차게 전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사홍 서원의 힘은 우리가 부처님의 위없는 완벽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우리의 수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추락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삼보에 귀의했지만 삼보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You Should Not Take Refuge Just to Join the Crowd

군중에 합류하기 위해 귀의해서는 안됩니다.

A talk by the Venerable Master Hua on November 7, 1993, in Rochester, New York

1993년 11월 7일 뉴욕 로체스터

Those who have taken refuge before should not take refuge again. Why not?

이전에 귀의한 사람은 다시 귀의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나요?

1. This is to avoid the situation in Buddhism where people compete for disciples and harbor bad feelings toward one another. Because they compete for profit, people get very resentful and antagonistic.

1. 불교에서 제자를 두고 경쟁하며 서로 악감정을 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이익을 위해 경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우 분개하고 적대적이 됩니다.

2. If the people who take refuge are all people who have taken refuge before, Buddhism will not have any new blood. Buddhists who go "temple-hopping" can hardly be considered disciples of the Buddha.

2. 귀의하는 사람들이 모두 전에 귀의했던 사람들이라면 불교는 새로운 피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절을 옮겨 다니는 불자들은 부처님 제자로 여기기 어렵습니다.

3. I don't even have enough virtue to be able to accept as disciples those beginners who are taking refuge with the Triple Jewel for the first time, how much the less those who have already taken refuge. However, if someone who has already taken refuge has permission from his original teacher, or if his teacher has passed away, disappeared, or returned to lay-life, then I will accept him.

3. 나는 처음 삼보에 귀의하는 초심자들을 제자로 받아들일 덕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미 귀의한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들일 만한 덕은 충분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귀의한 사람이 스승의 허락을 받았거나, 스승이 돌아가셨거나, 사라졌거나, 재가로 돌아갔다면, 나는 그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Each of you must be a true Buddhist. Don't be muddled in your practice of Buddhism. What's the point of taking refuge with so many teachers, if you don't have real faith in any of them? Use your Dharma-Selecting Vision; don't just follow along blindly. Buddhists should not look for bargains. They should take more losses and not act exclusively in their own interests. The world is getting worse and worse because people are only concerned about themselves. Driven by desire for profit, people are constantly at each other's throats.

여러분 모두 진정한 불교 신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불교의 수행에 얹매이지 마세요. 만약 스승들 중 누구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귀의를 하면 뭐합니까? 택법안을 사용하세요; 무작정 따라가지 마세요. 불자들은 싼 물건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익에 대한 욕구에 이끌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 다툽니다.

The only thing I know how to do is to take losses. That's why I have never accepted any offerings for myself. However, if you want to make offerings to the temple or to the community, that's all right. I'm trying to support the community, not myself. As for myself, I could starve to death and it'd be fine. So I say,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은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어떤 제의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절이나 공동체에 공양을 올리고 싶다면 괜찮습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지역 사회를 지원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굶어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Freezing, we do not scheme.

Starving, we do not beg.

Dying of poverty, we ask for nothing. According with conditions, we do not change.

Not changing, we accord with conditions.

We adhere firmly to our three great principles.

얼어 죽어도 인연에 기대지 않는다.

굶어 죽어도 구걸하지 않는다.

가난해 죽어도 인연을 구하지 않는다.

인연을 따르되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되 인연을 따른다.

우리의 3대 종지를 굳게 지킨다.

That's the first part of the verse. When we initially bought the City of Ten Thousand Buddhas, people were so overwhelmed by the size of the place that they ran away, fearing that I would ask them for donations. But I never asked for help from anyone. When I work, I don't expect any reward, and I never ask for help. I just go ahead and do the work.

그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만불성성을 샀을 때,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기부를 요청할까봐 그 곳의 크기에 너무 압도되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일을 할 때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저 그 일을 계속합니다.

The second part of the verse says,

We renounce our lives to do

the Buddha's work;

We take responsibility to mold our own destinies.

We rectify our lives to fulfill the Sangha's role.

Encountering specific matters,

we understand the principles.

Understanding the principles,

we apply them in specific matters.

We carry on the single pulse of the Patriarchs' mind-transmission.

이 계송의 두 번째 부분은

부처님의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근본적인 일을 위해 운명을 개척한다.

승가의 일을 위해 삶을 바르게 한다.

일에 임해 도리를 분명히 하고, 도리를 분명히 해서 일에 임한다.

조사로부터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법을 보급한다.

Without regard for our own lives, we are willing to sweat and bleed for Buddhism, never taking a rest. According to the philosophy of self-determination:

우리는 자신의 삶을 고려하지 않고 불교를 위해 기꺼이 땀 흘리고 피 흘리며 결코 쉬지 않습니다. 자기 결정 철학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We create our own destinies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창조합니다.

And seek our own blessings. Blessings and calamities are not fixed; We incur them through our own actions.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복을 구합니다. 복과 재앙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 복과 재앙은 일어납니다.

"We rectify our lives to fulfill the Sangha's role." Left-home people should strictly follow the rules set down by the Buddha. For example, a left-home person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he wears a precept sash. If one does not wear the sash, one is in effect returning to laylife. The Buddha also made the rule of eating one meal a day in the middle of the day. By limiting the amount of food and drink that we consume, we chase away the ghosts and corpse spirits and lessen desires. (Our bodies have three corpse spirits. If we overeat, these three corpse spirits act up. With fewer desires, it is easier to cultivate the Way. Therefore, we do not eat nutritious food. That's our way of doing things at the City of Ten Thousand Buddhas. Although we aren't perfect, we hope each person will work hard to improve himself or herself.

"우리는 승가의 일을 위해 삶을 바르게 한다." 출가자들은 부처님이 정한 규칙을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가자는 가사를 착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사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재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하루에

한 끼를 낮에 먹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우리는 귀신과 시체의 영혼을 쫓아버리고 욕망을 감소시킵니다. (우리 몸은 세 개의 시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식하면, 이 세 시체의 영혼이 작동합니다) 욕망이 적으면 도를 닦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것이 만불성성에서 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각자 자신을 진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Quickly Walking on the Path to Buddhahood

빨리 불도를 걸으세요.

A talk by the Venerable Master Hua on December 28, 1993, at the City of the Dharma Realm

1993년 12월 28일 법계성에서

Today everyone's good roots and Bodhi shoots have sprouted. To take refuge with the Triple Jewel is to be born with your eyes open. Don't go down the wrong road. What is meant by being born with your eyes open It means you start a new life with your eyes open. You must find the right path. You must recognize clearly: Why am I taking refuge? Why do I want to take refuge with the Triple Jewel? This is an important moment.

오늘은 모든 사람의 선근과 보리의싹이 톺습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눈을 뜨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마세요. 눈을 뜨고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당신이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왜 귀의를 합니까? 왜 내가 삼보에 귀의하고자 합니까? 지금은 중요한 순간입니다.

Don't let it be that you take refuge just because others are taking refuge, or that you bow to the Buddha just because others are bowing to the Buddha! Just what exactly is taking refuge with the Triple Jewel?

남들이 귀의한다고 해서 귀의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부처님께 절한다고 해서 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I don't know!"

"모르겠어요!"

What is bowing to the Buddha all about?

부처님께 절하는 것은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I don't know!"

"모르겠어요!"

You come to take refuge not knowing any of these things. Isn't that just blindly cultivating and blindly practicing? Isn't that just following blindly?

이런 것도 모르고 귀의하게 됩니다. 그것은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You should open your eyes; recognize the road clearly; and go straight down the path courageously, without retreating.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눈을 뜨고, 길을 똑똑히 인식하고, 물러나지 않고 용감하게 길을 따라 곧장 내려가야 합니다.

Now is the Dharma-ending Age. What is meant by the end of the Dharma? It means the demise of the Buddhadharma. The Dharma is already coming to its end, and it will soon disappear entirely. The Buddhadharma is already in its autumn. The sun is about to set and the road ahead is already dim. There's not much hope. But it's right at this time that we must bring forth our vigor and courage to move forward and rush down the path so that we can reach our destination. This is the general meaning of taking refuge with the Triple Jewel.

지금은 말법 시대입니다. 말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불법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법은 이미 종말을 고하고 있으며, 곧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불법은 이미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해가 지려고 하는데 앞길이 벌써 어둑어둑합니다.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고 그 길을 달려갈 활력과 용기를 발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때입니다. 이것이 삼보에 귀의하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Today there are many people with deep good roots who are taking refuge with the Triple Jewel. Some are transformation bodies of Bodhisattvas who have come to take refuge. Some are transformation bodies of gods, dragons, and others in the eightfold division who have come to take refuge. Some are human beings who have come to take refuge. There are even ghosts and spirits who have come to take refuge.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Three Refuges have been transmitted at the City of the Dharma Realm. The Ceremony for Taking Refuge is particularly magnificent. The heavenly Dharma-protectors, the gods, dragons, and others of the eightfold division of ghosts and spirits are filling up the space around us. They have come to protect this Way-place. Whatever wishes any of you are making about the future will be completely known by these Dharmaprotectors and good spirits. Each of you should urge yourself on.

오늘날에는 삼보에 귀의하는 선근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귀의하러 온 보살들의 화신입니다. 어떤 이는 신과 용들의 화신이고, 어떤 이는 귀의하러 온 팔부신장입니다. 귀의하러 온 인간도 있습니다. 심지어 귀의하러 온 귀신들도 있습니다. 법계성에서 삼귀의를 전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귀의식은 특히 웅장합니다. 천상의 호법, 신, 용, 팔부신장들이 우리 주변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도량을 지키려 왔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가 미래에 대해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지간에 이 호법과 선신들은 완전히 알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I have made a little vow, which is that whoever takes refuge with me or does not take refuge with me, whoever believes in the Buddha or believes in other religions, as long as they have not become Buddhas—I will wait for them to become Buddhas before I do.

나는 작은 서원을 세웠습니다. 나에게 귀의하거나 나에게 귀의하지 않거나 부처님을 믿거나 다른 종교를 믿거나 누구든지, 그들이 부처가 되지 않는 한, 나는 그들이 부처가 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You should go forward with courageous vigor and not be lazy. Don't steal off to take it easy: don't shirk toil and crave the soft life. You must change your bad habits to good ones: change your faults and renew yourself. Go forward on the path to Bodhi with courage and vigor. Don't make me wait for all of you too long! If I have to wait too long, maybe I won't have the energy to keep waiting. Each of you should be like the general who never dismounts—just keep going forward.

여러분은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몰래 도망가지 마세요: 일을 피하고 부드러운 삶을 갈망하지 마세요.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잘못을 고치고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용기와 활력을 가지고 보리도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모두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다면, 아마 계속 기다릴 힘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절대 내리지 않는 장군처럼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Why should we receive and uphold the Five Precepts?

우리는 왜 오계를 받아야 하나요?

Talks given by Venerable Master Hsuan Hua

선화 상인의 법문

CONTENTS

목차

Don't miss the chance to receive the five precepts

오계를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Who are lay people?

재가자는 누구입니까?

What are the five precepts?

오계는 무엇입니까?

What are the ten good deeds?

십선행은 무엇입니까?

What is loose speech?

기어_騎語는 무엇입니까?

What are the ten good deeds?

십선행은 무엇입니까?

Precepts should be requested from a left-home person—an ordained monk

계율은 구족계를 받은 스님에게 청해야 합니다.

The basic rules to be observed by Buddhists

불자들이 지켜야 하는 기본 규칙

Is smoking allowed?

흡연은 허용되나요?

The importance of receiving the five precepts

오계를 받는 중요성

The benefits of receiving the five precepts

오계를 받는 이로움

Is there no benefit in studying the Buddhadharma?

불법을 공부하는데 이로움이 없습니까?

Will not receiving precepts give you true freedom?

계를 받지 않으면 진정 자유로운가요?

In learning Buddhadharma, we must learn precepts, concentration, and wisdom.

불법을 공부함에 계정혜를 배워야 합니다.

The story of an old cultivator

노수행자의 이야기

Mañjūśrī Bodhisattva's precious pearl

문수보살의 귀중한 진주

Don't act as your own defense attorney

자신을 변호하지 마세요.

What are pure precepts?

청정한 계는 무엇입니까?

VERSE FOR OPENING A SUTRA

개경계

The unsurpassed, deep, profound, subtle, wonderful Dharma,
무상심심미묘법 (無上甚深微妙法) 더없이 높고 깊은 부처님법 묘한 진리
In hundreds of thousands of millions of eons, is difficult to encounter;
백천만겁난조우 (白天萬劫難遭遇) 백천만겁 지내어도 만나뵙기 어려워라
I now see and hear it, receive and uphold it,
아금문견득수지 (我今聞見得受持) 제가 이제 듣고 보고 얻어 받아 가지니
And I vow to fathom the Tathagata's true and actual meaning.
원해여래진실의 (願解如來眞實義) 부처님의 참뜻 원하오니 깨닫게 하소서

DON'T MISS THE CHANCE TO RECEIVE THE FIVE PRECEPTS

오계를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People who receive the five precepts, or the eight precepts, are called Upasaka (for men) or Upasika (for women). If they take the Bodhisattva precepts then they are called Bodhisattvas of initial resolve, because they are making a commitment to uphold the Bodhisattva precepts and follow the Bodhisattva path. Left-home people receive and uphold the Bodhisattva precepts. But since Bodhisattvas of initial resolve are people who wish to learn how to benefit both themselves and others, lay people, too, can receive lay Bodhisattva precepts.

오계, 혹은 팔계를 받은 사람을 우바새(남자) 또는 우바이(여자)라고 합니다. 만약 그들이 보살계를 받는다면, 그들은 보살계를 지키고 보살도를 따르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초심 보살이라고 합니다. 출가자들은 보살계를 수지합니다. 그러나 초심 보살은 자신과 타인을 모두 이롭게 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가자 또한 재가자의 보살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In Buddhism, receiving and upholding precepts is very important. When there is an opportunity to do so, people should not miss the opportunity

불교에서는 계율을 수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A person can receive one precept, two precepts, three precepts, four precepts, or five precepts. He can also receive the eight precepts but he is not eligible to receive the ten precepts, as those are reserved for shramaneras (novice monks) and shramanerikas (novice nuns). But you can take the Bodhisattva precepts, the ten major and forty-eight minor precepts.

여러분은 한 가지 계, 두 가지 계, 세 가지 계, 네 가지 계, 다섯 가지 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팔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미와 사미니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보살계, 10대계, 48소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ceiving one precept is called taking "a minimum share of the precepts," 하나의 계를 받는 것을 "최소한의 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Receiving two precepts is called taking "a half share of the precepts," 두 가지 계율을 받는 것을 "계의 반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Receiving three precepts is called taking "a majority share of the precepts,"

세 가지 계율을 받는 것을 "대부분의 계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Receiving five precepts is called taking "a full share of the precepts."

다섯 가지 계를 받는 것을 전체 계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If someone has a problem with receiving the precept of not killing beings, then that person can refrain from receiving that precept and can receive the precept of not stealing. If someone likes to drink, like my wine-drinking disciple who didn't want to take the precept prohibiting the consuming of intoxicants, then that person can refrain from receiving the precept prohibiting the consumption of intoxicants, but can receive the others.

만약 누군가가 불살생의 계를 받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 계를 받지 않고 불투도의 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제자와 같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음주의 계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는 불음주의 계를 받지 않고 다른 계를 받으면 됩니다.

Someone may say, "I like to boast. I cannot receive the precept against lying." Well, that person can receive the other four precepts.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불망어에 대한 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사람은 나머지 네 가지 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other person may say, "I cannot promise not to kill. Sometimes, unintentionally, I may kill ants and small bugs. If I kill them after receiving the precepts, my offenses will be greater." That person doesn't have to receive the precept against killing. In general, each person can do whatever he or she prefers, receiving one, two, three, or up to five precepts. Just don't miss this opportunity.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살생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의도치 않게, 나는 개미와 작은 벌레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율을 받은 후에 그들을 죽이면 내 죄가 더 커집니다." 그 사람은 불살생에 대한 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각자는 원하는대로 한가지 계, 두가지 계, 세가지 계, 네가지 계, 다섯가지 계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In China, if a person cannot afford to pay (it used to cost two hundred US dollars), then he won't be able to receive the precepts. That money did not go to ward the purchase of a sash and robe. The preceptees had to purchase those items by themselves. They could buy better or lesser quality sashes and robes, depending on what they had to spend. Just to receive the precepts, one had to make an offering to the teacher and his temple of at least two hundred dollars.

중국에서는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면(예전에는 200달러가 들었습니다.), 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가사와 법복을 사는 데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물품들은 수계자들이 직접 구매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금액에 따라 품질이 좋거나 떨어지는 가사와 법복을 살 수 있었습니다. 계를 받기 위해서는 스승과 절에 적어도 200달러를 공양해야 했습니다.

WHO ARE LAY PEOPLE?

재가자는 누구입니까?

A layperson is someone who believes in Buddhism, upholds the five precepts, and practices the ten good deeds and who has not left the home-life.

재가자는 불교를 믿고 오계를 지키고, 십선을 행하고 출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WHAT ARE THE FIVE PRECEPTS?

오계는 무엇입니까?

They are the precepts against killing, stealing, engaging in sexual misconduct, lying and taking intoxicants. People who have received the five precepts are called lay people.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음주에 대한 계율입니다. 오계를 받은 자를 재가자라고 합니다.

WHAT ARE THE TEN GOOD DEEDS?

십선은 무엇입니까?

The ten good deeds are just the opposite of ten bad deeds. The ten bad deeds are: killing, stealing, and sexual misconduct, which are done by the body; greed, hatred, and ignorance, which belong to the mind; and lying, loose speech, harsh speech, and divisive speech, which are committed by the mouth. Notice that the offenses of the mouth account for almost half of the ten.

십선은 십악의 정반대입니다. 십악은 몸으로 하는 몸으로 하는 살생, 투도, 사음, 마음으로 짓는 탐진치, 입으로 저지르는 망어, 기어, 악구, 양설 등이 있습니다. 입으로 짓는 잘못이 10가지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을 주목하세요.

WHAT IS LOOSE SPEECH?

기어는 무엇입니까?

Loose speech is crude or lewd speech, such as talking about how women (or men) behave, or gossiping, and so forth.

기어綺語는 여자(또는 남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험담을 하는 것과 같은 조잡하거나 음탕한 말입니다.

Lying means not telling the truth.

망어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Harsh speech refers to scolding people, which creates mouth karma.

악구는 사람을 꾸짖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구업을 짓습니다.

Divisive speech means being double-tongued in the sense that one backbites and causes schisms. Such a person tells A about B and then B about A, trying to split them up. That is how divisive speech works.

양설은 뒤에서 욕하고 분열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이중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A에게 B에 대해 말하고 나서 B에게 A에 대해 말하고, 그들을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양설입니다.

WHAT ARE THE TEN GOOD DEEDS?

십선행은 무엇입니까?

Turn the ten evil deeds around and they become the ten good deeds. What are the ten good deeds? They are: not killing, not stealing, not indulging in sexual misconduct, not being greedy, not harboring hatred, not being deluded, not using loose speech, not lying, not saying harsh words, and not engaging in divisive speech. If you can refrain from doing all these bad things, then you will be wholesome. Lay people should

practice these ten good deeds. All lay people must observe the five precepts and practice the ten good deeds.

십악행을 돌이키면 십선행이 됩니다. 십선행은 무엇입니까?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성적 부정행위에 탐닉하지 않으며,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증오를 품지 않으며, 현혹되지 않으며, 꾸미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거친 말을 하지 않으며, 이중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모든 나쁜 일들을 자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재가자들은 이 열 가지 선행을 수행해야 합니다. 모든 재가자들은 오계를 지키고 십선행을 수행해야 합니다.

PRECEPTS SHOULD BE REQUESTED FROM A LEFT-HOME PERSON-AN ORDAINED MONK

계는 구족계를 받은 출가자에게서 청해야 합니다.

To uphold precepts is just to do no evil but do all good. How many precepts are there? There are many sets of precepts. First, there are the five precepts. Those who have taken refuge with the Triple Jewel and who like to take another step forward should receive the five precepts. After having received the five precepts, another step forward would be to receive the eight precepts. Following that would come the ten precepts for novice monks and nuns.

계를 지키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고 모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계율이 있나요? 많은 계율이 있습니다. 첫째, 오계가 있습니다. 삼보에 귀의한 후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오계를 받아야 합니다. 오계를 받은 후에, 또 다른 한 걸음은 팔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미와 사미니들을 위한 십계입니다.

Lay people who like to receive precepts must request them from an ordained monk. To transmit precepts means to give the precept substance to the preceptees. The person who transmits the precept

substance to you must be a Bhikshu. In the Vinaya, a Bhikshuni is not permitted to transmit precepts.

계를 받고자 하는 재가자들은 구족계를 받은 스님에게 계를 청해야 합니다. 계를 전수한다는 것은 계체를 수계자에게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계를 전하는 사람은 비구여야 합니다. 비구니는 계의 전수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THE BASIC RULES TO BE OBSERVED BY BUDDHISTS

불자가 지켜야하는 기본 규칙

The five precepts are the most fundamental rules that Buddhists should follow. They are: not killing, not stealing, not engaging in sexual misconduct, not lying and not consuming intoxicants.

오계는 불자들이 따라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죽이지 않고, 훔치지 않고, 성적인 비행을 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If you receive the precept against killing and constantly refrain from killing, you will be rewarded with longevity. You will live a long life. Why is it that some people have long life spans while others have short life spans? Those who had upheld the precept against killing are rewarded with a long life, while people who liked to kill have the retribution of short lives.

살생을 금하는 계를 받고 끊임없이 살생을 하지 않으면 장수의 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래 살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수명이 긴 반면 다른 사람들은 수명이 짧습니까? 살생에 대한 계를 지킨 사람은 장수를, 살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명의 보를 받습니다.

Why should we observe the precept against stealing? It is because stealing causes others to lose their wealth. What is stealing? It is covertly taking away properties and materials belonging to others. What's the retribution for stealing others' things? The retribution will be that of not being able to hold one's own wealth long. For example, someone may be rich, and all of a sudden that person gets robbed.

왜 우리는 도둑질을 금하는 계율을 지켜야 합니까? 왜냐하면 도둑질은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잃게 하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들과 물건들을 몰래 빼앗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한 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보는 자신의 부를 오래 보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부자일 수 있지만, 갑자기 강도를 당합니다.

Sexual misconduct, lying, and taking intoxicants are similar. For instance, someone who does not observe the rule against sexual misconduct might have affairs with others' women. In the future, other men will fool around with that person's own wife or daughter. Those are the kinds of retributions that will happen.

성적인 부정행위, 거짓말,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 부정행위에 대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여자와 바람을 피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남자들은 그 사람의 아내나 딸을 가지고 장난을 칠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보가 일어날 것입니다.

As to lying, if we don't deceive people, we will not be deceived. Someone may complain, "I have never deceived anyone in my life. Why is it that many people deceive me?" Didn't I just say that the matter of retribution is not limited to one lifetime? It spans three time periods: past, present, and future. You may not have cheated anyone in this life, but do you know how many people you have cheated in your previous life? "I don't know." You don't know? So it may be fitting that people cheat you now.

거짓말에 관해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는 평생 누군가를 속인 적이 없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속이는 것일까요?" 내가 방금 보의 문제가 한 평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삶에서 누군가를 속이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전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는지 알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A person may not have intended to boast, but it's very easy to tell a lie without even realizing it. Telling lies can happen very fast. A lie comes out before we know it. For instance, someone may ask a person, "Have you stolen something?"

떠벌릴 생각은 없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매우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어느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람에게 "여러분은 무언가를 훔쳤나요?"

The person may reply, "I haven't" without even stopping to think even if he did. If in fact, the person stole, then, by denying it, he commits the offense of lying on top the offense of stealing.

그 사람은 훔쳤어도 생각을 멈추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훔쳤다면, 그것을 부인함으로써, 그는 도둑질의 잘못에 더해 거짓말을 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A little wine doesn't hurt. However, if people drink a lot they will become confused and do crazy things. That's why drinking wine is prohibited in Buddhism.

술은 조금만 마시면 해롭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 술을 많이 마신다면, 그들은 혼란스러워지고 미친 짓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음주를 금지합니다.

If we were to elaborate, the five precepts encompass many principles. The main point is that when we make sure our hands do no killing, we must also be sure that our minds do not entertain any thoughts of killing. Then we are truly upholding the precept against killing. The same applies to the precept against stealing. When our hands are not stealing, our minds must also be free of thoughts of stealing. Regardless of the value of objects, if someone uses something or takes something stealthily without getting permission, then that is considered to be a violation of the precept against stealing.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자면, 오계는 많은 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우리의 손으로 살생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또한 살인에 대한 어떤 생각도 즐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살생에 대한 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흡치지 않는 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손이 흡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또한 흡칠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물건의 가치에 상관 없이,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무언가를 가져가면, 그것은 도둑질에 대한 계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IS SMOKING ALLOWED?

흡연은 허용됩니까?

A man went outside to smoke. When he came back, I asked him, "How many cigarettes did you smoke?"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담배를 몇 개피 피웠나요?"

"I didn't smoke." he said. "Some people saw you." I replied. "Oh. I smoked one cigarette," he said.

"담배 안 피웠어요."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 담배 한 개피 피웠어요."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You see. He said he didn't smoke and then said he smoked one cigarette. I said, "How many cigarettes have you got left?"

아시겠죠.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말하고 나서 담배 한 개피를 피웠다고 말했습니다. "담배 몇 개피나 남았어요?"라고 물었습니다.

"Three." "Where are the other seven?" "Well..., I don't know."

"세 개피요." "다른 일곱 개피는 어디 있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I picked up a stick and hit him right on the head! "Do you know what this is? Does it hurt?"

제가 막대기를 들고 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요? 아픈가요?"

"Yes." "Yes? Then why did you lie?" "Well...the Vinaya doesn't prohibit smoking." "Have you studied the Vinaya? Do you know for sure that it doesn't prohibit smoking? Smoking is included. in the precept against taking intoxicants." "Oh! I didn't know."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왜 거짓말을 했어요?" "글쎄요...율에서는 흡연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율에 대해 공부하였나요? 흡연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나요? 흡연은 불음주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몰랐어요."

The smell from smoking is terrible. Not only does it make a person smell bad outside, it also makes the inside of his body smell bad. Bodhisattvas and Dharma-protecting good spirits will not want to protect you when they find out you smell like smoke. No matter how much merit and virtue you may have, they will leave you alone and many accidents will happen to you.

담배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밖에서 나쁜 냄새가 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몸 안에서도 나쁜 냄새가 나게 합니다. 보살과 호법선신들이 연기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을 보호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덕을 갖추더라도, 그들은 여러분을 내버려 둘 것이고 여러분에게 많은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We don't have to talk about others: currently there is one person among us who smoked stealthily and caused a very dangerous incident to occur. It happened because he was smoking, but he still doesn't realize it.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중에 몰래 담배를 피워 매우 위험한 사건이 발생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People who smoke will fall into the hell of Flames after they die. The hell of Flames is especially prepared for smokers. Whoever likes to smoke has the chance to go down there. If you refrain from smoking, you will avoid the path that leads to the hell of Flames. If you don't, however, you may end up there in the future. People do not know the seriousness of such matters and do whatever they like. When you understand, you will not do it. Smoking is a more severe problem than drinking.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화염의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지옥의 불꽃은 특히 흡연자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곳에

갈 기회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화염의 지옥으로 통하는 길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면, 여러분은 미래에 그곳에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흡연은 음주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Why did Shakyamuni Buddha not prohibit smoking when he prohibited drinking? It is because during that time when the Buddha was in the world no one knew about smoking.

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음주를 금지했을 때 흡연을 금지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아무도 흡연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THE IMPORTANCE OF RECEIVING THE FIVE PRECEPTS

오계를 받는 중요성

If one can uphold the five precepts and practice the ten good deeds, one will ascend to the heavens. The five precepts are not killing, not stealing, not engaging in sexual misconduct, not lying, and not taking intoxicants.

오계를 지키고 십선행을 수행할 수 있다면 천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오계는 죽이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으며, 성적인 비행을 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Not killing is being kind and compassionate.

죽이지 않는 것은 자애롭고 자비로운 것입니다.

Not stealing is being righteous.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정의로운 것입니다.

Not engaging in sexual misconduct is being an upright and proper person.

성적인 부정행위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정직하고 바른 사람인 것입니다.

Not lying is being a loyal and faithful person.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충직하고 충실한 사람입니다.

Not taking intoxicants is not to be a reckless person.

만취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은 무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Killing brings the retribution of a short life span.

살인은 단명의 업보를 가져옵니다.

Stealing brings the retribution of a life of poverty and hardship. Sexual misconduct brings the retribution of being born as pigeons or mandarin ducks.

도둑질은 가난과 고난의 삶에 대한 보를 가져옵니다. 성적인 부정행위는 비둘기나 원앙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보를 가져옵니다.

Birds are impractical and lustful. If people act that way, they will be reborn as birds.

새들은 비현실적이고 육욕적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들은 새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I often tell you these things, but you never pay much attention. I don't mind taking the trouble to remind you again. What is it? People must not kill, because all living beings have either been our relatives or friends, or even parents or ancestors, throughout limitless eons. If our former parents have now been reborn as pigs or cows because of offenses they committed, and we kill those pigs and cows, then that would be the same as killing our own parents indirectly.

내가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여러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군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무엇이죠? 사람들은 살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은 무한한 겁 동안 우리의 친척이나 친구, 심지어 부모나 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이전 부모가 그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이제 돼지나 소로 다시 태어났고 우리가 그 돼지들과 소들을 죽인다면, 그것은 간접적으로 우리의 부모를 죽인 것과 같을 것입니다.

As for stealing, it's said, "We should not do to others what we would not like done to us." Since we don't

like having our belongings stolen, we should not steal others' belongings.

도둑질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물건을 도둑맞기를 바라지 않으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됩니다.

In the law of cause and effect, the punishment for sexual misconduct is very heavy. Husbands and wives should not casually divorce. If you are married and then divorce later, in the law of cause and effect, your body will be divided into two parts because you had two relationships. You will be sawed in half from head to toe. You will be sawed into as many pieces as the number of marriages you have had. If a woman married a hundred men, she would be cut into one hundred pieces. Each man would get a piece of her.

인과의 법칙에서 성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무심코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 인과관계의 법칙에서 두 가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몸이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으로 톱질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혼 횟수만큼 많은 조각으로 톱질될 것입니다. 만약 여자가 남자 백 명과 결혼한다면, 그녀는 100 조각으로 잘릴 것입니다. 각 남자는 그녀의 일부를 얻습니다.

What's bad about being cut into fragments? It will be hard for the spiritual nature to come together again. Such a chance would be difficult to come by. If the chance does not arise, the spiritual nature will forever be incomplete and one will become an insentient thing, much like wood or grass. One's nature will be so fragmented that it will be insufficient to function as a sentient being. Even if it does become a sentient being, it would be in the form of a swarm of eighty-four thousand mosquitoes or the like. Those mosquitoes would in turn become mosquitoes that also lacked any awareness of how to change their course. They would not be able to wake up and turn away from the deluded existence. They would continually be born and die within the cycle of transmigration.

조각으로 잘려나가는 것이 뭐가 나쁠까요? 영성이 다시 합쳐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기회는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회가 오지 않으면 영성은 영원히 불완전할 것이고 사람은 나무나 풀처럼 무감각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너무 단편적이어서 지각 있는 존재로 기능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지각 있는 존재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8만 4천 마리 정도의 모기 떼의 형태일 것입니다. 그 모기들은 결국 방향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모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망상된 존재로부터 외면될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태어나고, 이주의 주기 안에서 죽습니다.

Thus, it's said, "Once the human body is lost, it will not be recovered in tens of thousands of eons." If we lose the human body, we will have to pass through millions of eons and still may not be able to regain it.

그래서 "사람몸을 한번 잃으면 수만 겁이 지나도 다시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몸을 잃으면, 우리는 수백만 겁을 지나도 여전히 그것을 다시 얻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THE BENEFITS OF RECEIVING THE FIVE PRECEPTS

오계를 받는 이점

Not caging birds in this life, we will not be put in jail in future lives;

이 생에서 새들을 새장에 넣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생에서 감옥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Not fishing in this life, we will not become beggars in future lives;

이 생에서 낚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생에서 거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Not killing in this life, we will not encounter difficulties in future lives;

이생에서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생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Not stealing in this life, we will not be robbed in future lives;

이생에서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생에서 도둑질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Not engaging in sexual misconduct in this life, we will have good marriages in future lives;

이생에서 성적인 부정행위에 관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생에서 좋은 결혼생활을 할 것입니다.

Not lying in this life, we will not be cheated in future lives;

이생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생에서 속지 않을 것입니다.

Not taking intoxicants in this life, we will not lose our sanity in future lives.

이생에서 최음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생에서 제정신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Not caging birds in this life, we will not be put in jail in future lives."

"이번 생에 새를 잡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의 생에 감옥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Think about it. When someone puts a bird in a cage, he takes its freedom away. By doing that, the person is not abiding by the constitution of this country. This country advocates freedom. Caging a bird is the same as putting the bird behind bars. The bird will start chanting the mantra, "retribution, retribution..." In the future, the bird will go before the Jade Emperor, who is the Lord of the Heavens, and file a suit against the person who caged it.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새장에 새를 넣으면, 그는 새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이 나라의 헌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자유를 옹호합니다. 새를 우리에 가두는 것은 새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새는 "응징, 응징..."이라는 만트라 구호를 외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 새는 천주인 옥황상제 앞에 가서 우리에 가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The Heavenly Lord will say, "Okay, this person has not been fair. He shall undergo the retribution!" You will then go to jail in future lives. This is because the bird has been chanting the mantra of retribution from morning to night. When the Heavenly Lord hears it, his verdict is that the person who caged the bird should be put behind bars.

천주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좋소, 이 사람은 공정하지 못했소. 그는 응징을 받을 것이오!" 그러면 여러분은 미래생에서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새가

아침부터 밤까지 응징의 구호를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주는 그 말을 듣고 새장을 만든 사람은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는 평결을 내립니다.

I recall how not in this life but in some other life in the past, I was deluded and didn't know any better. I

saw people fishing so I went fishing too. I was quite fond of doing it. When the fish took the bait the water rippled. Then I would swing the fishing pole upward and the fish would be hooked. What happened to me afterward? I became a beggar in the next life. I had to beg for food because I didn't have anything to eat. Thus, it's said, "Not fishing in this life, we will not become beggars in future lives." It's quite miserable to beg for food. It's better that we Buddhists do less fishing.

나는 이생이 아닌 과거의 다른 삶에서 내가 얼마나 미혹하고 더 잘 알지 못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낚시하는 것을 보고 나도 낚시하려 갔습니다. 나는 낚시를 꽤 좋아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을 때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낚싯대를 위로 흔들면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려요. 그 후에 나는 어떻게 되었나요? 다음 생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에 낚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장차 생에 거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구걸하는 것은 매우 비참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낚시를 줄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Someone may say, "I can do less fishing. I'll fish just once a year. And I will only fish for small and not big fish. Will that be okay?" Well, a small fish is a life, just the same as a big fish. Fishing once a year, you still end up killing, just the same as when you fish many times a year. However, if you fish less, your debt will be less; fish more, and your debt will be greater. That is to say, if you catch half a pound of fish, you must pay back eight ounces in the future.

누군가는 "나는 낚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 년에 한 번만 낚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작은 물고기만 낚고 큰 물고기는 낚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을까요?" 자, 작은 물고기도 생명입니다. 큰 물고기와 똑같죠. 1년에 한 번 낚시를 하면,

1년에 여러 번 낚시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물고기를 적게 잡으면, 여러분의 빚은 줄어들 것입니다. 더 많이 잡으면, 여러분의 빚은 더 커질 것입니다. 즉, 만약 여러분이 0.5파운드의 물고기를 잡는다면, 여러분은 미래에 8온스를 갚아야 합니다.

Not killing in this life, we will not encounter difficulties in future lives. If you refrain from killing any living being, then in future lives you will not be killed and you will be free from all difficulties. You will not be shot to death, burned to death, or drowned. Since you didn't kill in previous lives you will also be free from all illnesses in this life.

이생에서 살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생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것을 삼간다면, 여러분은 미래생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총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타 죽거나 익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생에는 죽이지 않았으니, 이 생에는 모든 병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Not stealing in this life, we will not be robbed in future lives. If you don't rob others of their things, no one will rob you in future lives. Why would you get robbed? It would happen because you had robbed people in previous lives. You thought it was quite clever to steal others' belongings. This life, they snatch things back. The cycle of cause and effect is quite inconceivable.

이생에서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생에서 도둑맞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미래에 강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도둑맞습니까? 여러분이 전생에 사람들을 강탈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꽤 영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생에서 그들이 물건을 낚아챕니다. 인과의 순환은 매우 불가사의합니다.

Not engaging in sexual misconduct in this life, we will have good marriages in future lives. What is a good marriage? It means there will be no divorce or any other marital troubles. Divorce and marital troubles.

are a result of failure to follow precepts. Those who have engaged in sexual misconduct will be born with a bad body odor. Whoever did not observe precepts, will have a very bad body smell in this life. The smell will be so strong that no perfume will be able to cover it. Men usually like women, but when they smell that odor, they will run away. Women are also fond of men, but if a man has such a smell, women will also run away from him. Such a person will not be loved. Anyone who does not uphold precepts will not smell good. If you uphold precepts in earnest, your body will emit a fragrance and will be said to be "adorned with fragrant light."

이생에서 성적인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생에서 좋은 결혼을 할 것입니다. 좋은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혼이나 다른 어떤 결혼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과 결혼의 문제는 계를 지키지 않은 결과입니다. 성적인 비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나쁜 체취를 가지고 태어날 것입니다. 계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생에서 매우 나쁜 체취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그 냄새는 너무 강해서 어떤 향수도 그것을 덮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보통 여자를 좋아하지만, 그들이 냄새를 맡으면 그들은 도망갈 것입니다. 여자들도 남자를 좋아하지만, 남자가 그런 냄새를 풍기면 여자들도 그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받지 못할 것입니다.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좋은 냄새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계를 지키면 여러분의 몸은 향기를 내뿜고 "향기로운 빛으로 장식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The court lady Madame Fragrance of Chin Dynasty in China, probably a member of the Uighurs, always emitted a fragrance. She didn't have to use perfume or scented soap. She had this natural fragrance from her body that was more fragrant than anything else. The deluded Chinese emperor waged a war and took her back. He named her "Madame Fragrance," which made all of his other women jealous. The emperor had many wives, and his jealous empress had her killed, after which she was no longer fragrant.

위구르족 일원인 중국 진나라의 궁녀 마담 향기는 항상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녀는 향수나 향기로운 비누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향기로운 이 자연적인 향기를 몸에서 풍겼습니다. 미혹한 중국 황제가 전쟁을 일으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기 부인"이라고 이름 지었고, 그의 다른 모든 여성들은 질투하였습니다. 황제는 많은 아내들을 두었는데, 질투심 많은 황후가 그녀를 죽였습니다. 그 후 황에게는 더 이상 향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In this life, if you do not engage in sexual misconduct by having affairs, you will not divorce in future lives. But if you were not faithful in previous lives, your marriage in this life will not be a happy one. Various things will happen to disrupt your marriage.

이생에서 불륜으로 성적인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미래생에 이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생에 충실하지 못했다면 이번 생의 결혼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That is the retribution for engaging in sexual misconduct.

그것은 성적 부정행위에 대한 보입니다.

Not lying in this life, we will not be cheated in future lives. If we don't lie in this life, no one will cheat us in future lives. If someone cheats us, we must realize, "Oh, I must have lied in a previous life and so I am being cheated in this life."

이생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생에서 속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생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미래생에서 우리를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속인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전생에 거짓말을 했음에 틀림없고 그래서 나는 이 생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Someone told me that the four people from the Philippines did not come to leave the home-life. They just used that as an excuse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I said that it's all right. I know their motive very clearly, but I still believe them because I don't want to cheat people and I also believe that people will not deceive me. Even if I know someone cheating me, I will not bring forth the thought that he is. Those people may hear me and

say, "Oh! That's good." In this world, many people put up defensive fronts against each other. You fear that I may cheat you, and I am afraid that you may deceive me. Am I taking a loss by not minding being cheated? If I am, it doesn't matter.

필리핀에서 온 4명이 출가를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오기 위한 구실로 그것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동기를 아주 분명히 알고 있지만, 나는 사람들을 속이고 싶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속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을 믿습니다. 누군가 바람을 피우는 걸 알더라도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제 말을 듣고 "오! 잘됐네요."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방어전을 펼칩니다. 내가 여러분을 속일까 두렵고, 여러분은 나를 속일까 두렵습니다. 속는 것을 개의치 않음으로써 내가 손해를 보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Not drinking in this life, we will not lose our sanity in future lives. Why is it that people lose their sanity or have mental illness in this life? It is because they drank too much and took a lot of drugs in previous lives. Therefore, the insanity continues into this life. The circular flow of cause and effect is this way whether you believe it or not. Whether you believe it or not I will say it just the same.

이생에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생에서 제정신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생에서 제정신을 잃거나 정신 질환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전생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약을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광기는 이생에도 계속됩니다. 인과의 순환적 흐름은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나는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IS THERE NO BENEFIT IN STUDYING THE BUDDHADHARMA?

불법을 공부하는데 이득이 없습니까?

"I have studied, investigated, and listened to the Buddhadharma for a long, long time and I have not gained any benefit!" What benefit do you

want? In fact, you have gained great benefit without knowing it. What kind of benefit have you gained?

"아주 오래도록 불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들어도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득을 원합니까? 사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이익을 얻었습니까?

When you study Buddhadharma here, you aren't out murdering people. Therefore, you are not among those murderers. Is that not a benefit! When you come here to attend Dharma lectures, you will not be found among thieves and burglars. If you don't listen to lectures, you may get involved in theft, robbery, or even arson. Now that you study Buddhadharma, you are free from all these files Wouldn't you say that's a benefit?

여기서 불법을 공부할 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살인자들 중 한명이 아닙니다. 그건 이득이 아닌가요! 법문을 들으러 오면 도둑과 강도들 틈에 끼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강의를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도, 강도, 또는 심지어 방화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불법을 공부하니 이 모든 기록에서 자유롭습니다. 그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When learning Buddhadharma, you do not get involved in sexual misconduct. so you won't commit

crimes such as rape. You do many proper things so you will be free from all crimes. Isn't that a benefit? When you study Buddhadharma, you won't tell lies or go around cheating people. Then, you won't commit the offense of lying. That is purifying your mouth karma. If you can further refrain from drinking, smoking, and taking drugs, then your mind karma will be purified too. Since you don't consume those intoxicants, you won't be in the company of criminal addicts either.

불법을 배울 때, 여러분은 성적인 부정행위에 연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강간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올바른 일을 하여 모든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게 이득 아닌가요? 여러분이 불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들을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잘못을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구업을 정화합니다. 음주 흡연, 약물 복용을 더욱 자제할 수 있다면 의업도 정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최음제들을 복용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중독자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If purifying the three karmas is not a benefit of learning Buddhism, then what is it? If you don't study the Buddhadharma, you may kill, or steal, or get involved in arson. Then the police will catch you and put you behind the bars, perhaps for life. Wouldn't that be miserable? Since you are studying the Buddhadharma, you are free from all these problems. If that is not a benefit, what is it then? Therefore, we should not grow weary of studying the Buddhadharma.

만약 삼업의 정화가 불법을 배우는 이점이 아니라면, 달리 무엇일까요? 불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죽이거나, 훔치거나, 방화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여러분을 잡아서 아마 평생동안 감옥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비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불법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만약 그것이 이점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불법 공부에 싫증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WILL NOT RECEIVING PRECEPTS GIVE YOU TRUE FREEDOM?

계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정 자유롭습니까?

People with wrong views say, "Don't take the precepts. What do you want to take them for? Why get some precepts to restrain you?" That is a wrong view. You think that not receiving the precepts is being free. But it's very easy to fall into the hells that way. That's where your so-called "true freedom" may lead you. If you receive the precepts, you will have the protection of the precepts. The precept mark, precept dharma, and precept substance will support you. You will not fall into the hells that easily. Even if you do fall into the hells, you will get out quickly. If you like

to be free and don't take the precepts, then later when you fall into the hells, it's not for sure when you will come out.

그릇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를 받지 마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받고 싶나요? 왜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 몇 가지 계를 받나요?"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여러분은 계율을 받지 않는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지옥에 떨어지기는 매우 쉽습니다. 그곳으로 소위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을 이끌지도 모릅니다. 계를 받으면 계의 보호를 받습니다. 계상, 계법, 계체가 여러분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져도, 빨리 벗어날 것입니다. 자유롭고 싶어 계를 받고 싶지 않으면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면 언제 빠져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If you have received the precepts, then you will have the precept mark, the precept dharma, and the precept substance to protect you. With this protection your time span in the hells can be shortened. If you let yourself run free and don't receive the precepts, then it is not for certain how long you will have to stay in the hells once you fall into them.

만약 여러분이 계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호할 계상(戒相), 계법(戒法)와 계체(戒體)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보호를 통해 지옥에서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계율을 받지 않으면 한번 지옥에 빠지면 얼마나 오래 지옥에 머물러야 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On the other hand, if you have received the precepts your time span in the hells can be shortened. It is like when someone who committed a major crime gets caught by the police. If the criminal had worked as a personal guard or an attendant for the president, then the president may write a note ordering that criminal's release. If the criminal doesn't have such a connection, he won't be released for who knows how long. It is similar to that. When you have the protection of precepts, the long duration of your suffering can be greatly condensed. Therefore, don't get smart and say, "It's good not to receive the precepts."

반면에, 만약 여러분이 계율을 받았다면, 지옥에서의 시간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경찰에 붙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범인이 대통령의 경호원이나 수행원으로 일했다면, 대통령은 그 범죄자의 석방을 명령하는 메모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인이 그런 관계가 없다면, 그는 얼마 동안이나 석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계의 보호를 받을 때, 여러분의 오랜 고통은 크게 응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 마세요.

It's good for you to receive the precepts. Let me say this to you, "Having taken the Buddha's precepts, living beings enter the position of all Buddhas." When living beings take the precepts of the Buddhas, it's the same as having entered the position of the Buddha. Therefore, don't disparage the precepts or slander the Vinaya of the Buddha.

여러분이 계율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중생은 모든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이는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법도를 폄하하거나 부처님의 을을 중상하지 마십시오.

IN LEARNING BUDDHADHARMA, MUST LEARN PRECEPTS, CONCENTRATION AND WISDOM.

불법을 배울 때 계정혜(戒定慧)를 배워야 합니다.

Precepts help us to "refrain from all evil and do all good." We refrain from doing whatever is bad, but we do all good things. Concentration is the vigorous study of chan meditation. Wisdom is the result of concentration, and concentration comes from upholding precepts. These are called the three nonoutflow studies.

계는 우리가 "모든 악을 자제하고 모든 선을 행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나쁜 짓은 삼가지만 좋은 일은 다 행합니다. 정은 선 명상을 용맹하게 하는 것입니다. 혜(지혜)는 정(선정)의 결과이고, 정(선정)은 계(계율)를 지키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를 삼무루학(三無漏學)이라고 합니다.

We must put an end to greed, hatred and delusion. Being free from greed, we will not fight. When we do not fight with others, we seek nothing. When we do not seek, we will be selfless. When we are selfless, we will not pursue personal advantage. All these are related. Studying Buddhadharma means following the teaching in a precise and honest manner. Don't take chances and shortcuts, just cultivate honestly.

우리는 탐진치를 끝내야 합니다. 탐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을 때,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 사심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심이 없을 때,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관련이 있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것은 정확하고 정직하게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회와 지름길을 택하지 말고 정직하게 수행하세요.

THE STORY OF AN OLD CULTIVATOR

노수행자의 이야기

Once an old lay cultivator had received the five precepts and an additional rule of keeping silent while eating. However, later he broke all five precepts and only kept the rule of keeping silent while eating. The precept-protecting spirit that protected this rule hoped that the lay man would violate it so that he could also leave. This man, nonetheless, never broke that rule. He always ate in silence.

나이든 재가 수행자가 오계를 받고 공양할 때 묵언을 하는 규칙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는 오계를 모두 어기고, 공양할 때 묵언하는 규칙만 지켰습니다. 이 규칙을 보호한 호계신은 재가자가 이를 어겨 그도 떠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그 규칙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조용히 공양했습니다.

Later, that precept spirit appeared in a dream, "You have transgressed all the precepts. Why haven't you broken this rule of keeping silent while eating? Please break it quickly so I can leave."

나중에 그 호계자(계율을 지키는 존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모든 계율을 어겼습니다. 왜 공양할 때 묵언을 하는 이 규칙을 어기지 않았나요? 내가 떠날 수 있게 빨리 어겨주세요."

The old cultivator thought to himself, "I only hold this one rule of eating in silence and still I have that precept spirit protecting me." Thereafter, he found a virtuous Dharma Master and received the five precepts again. Consequently, he cultivated and realized the Way. Each person has his own set of causes and conditions. Therefore, receiving precepts is a very important matter in Buddhism.

노수행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묵언하면서 공양하는 이 하나의 규칙만을 지니고 있고 호계신은 여전히 나를 보호하는구나.' 그 후, 그는 덕이 높은 법사를 찾아 다시 오계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수행해서 도를 깨달았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계율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MAÑJŪŚRĪ BODHISATTVA'S PRECIOUS PEARL

문수보살의 귀중한 진주

While Mañjūśrī Bodhisattva was practicing the Bodhisattva Way, he never lied. Nor did he commit any offense involving killing or stealing. In general, he upheld the precepts strictly. How can we prove that he followed those rules and never stole things? Once, he told the other Bodhisattvas, "Ever since my initial resolve to cultivate, I have held the rule of not stealing. Therefore, my belongings will not be stolen by anyone. Not only will no one steal from me, even if I leave my most valuable possession out in the open, no one will walk away with it."

문수 보살은 보살법을 실천하는 동안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살생이나 절도 같은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는 계율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가 그 규칙들을 따랐고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한번은 다른 보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수행하기로 결심한 이후로,

나는 훔치지 않는 규칙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제 소지품은 누구에게도 도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가장 귀중한 재산을 공개해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Some Bodhisattvas didn't believe him and said, "We would like to test your claim with an experiment. Leave your most valuable thing at the city gate, which is the busiest place. Leave it there for three days. If no one picks it up, that will prove that your statement is true."

어떤 보살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우리는 당신의 주장을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가장 번화한 성문 앞에 놓아주세요. 3일 동안 거기에 두세요.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면 당신의 주장은 사실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Mañjūśrī Bodhisattva agreed to the experiment. Thereupon, he put his most precious pearl—all Bodhisattvas possess many precious and valuable things—at the city gate. Many people passed through the gate in the next three days and sure enough, no one picked it up. The other Bodhisattvas then knew that Mañjūśrī Bodhisattva had truly upheld the precept against stealing.

문수보살은 그 실험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가장 소중한 진주-모든 보살은 많은 귀중하고 값진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성문에 놓았습니다. 그 후 3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했고, 정말로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보살들은 문수보살이 도둑질을 금하는 계를 진정으로 지켰음을 알았습니다.

DON'T ACT AS YOUR OWN DEFENSE ATTORNEY

자신을 변호하지 마세요.

Different people explain the same Buddhadharma in many different ways. Accordingly, the methods of cultivation are also different. Each person has his own interpretation. Therefore, there are many different viewpoints.

사람들은 같은 불법을 많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수행 방법도 다릅니다. 각자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많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For instance, true cultivators of Buddhadharma should not smoke, drink, or eat meat. But some Buddhists say, "The Buddha's precepts prohibit people from killing, stealing, indulging in sexual misconduct, lying, or drinking. However, there's no mention of smoking. Therefore, smoking is not included in the precepts." This is a self-justification. Smoking is covered in the precept against drinking. People want to act as their own defense attorneys so they say smoking is not a violation of the precepts.

예를 들어, 진정한 불법 수행자들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부 불자들은 "부처님의 계는 사람을 죽이거나, 훔치거나, 성적인 비행에 탐닉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합니다. 하지만 흡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흡연은 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흡연은 금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변호인 역할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흡연이 규율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A person with true wisdom will not do anything improper. He will refrain from doing any manner of bad things, not just those mentioned in the precepts. We should change all our bad habits.

진정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부적절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계에 언급된 것뿐만 아니라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나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Not killing includes not eating meat and not eating meat also includes not killing. That is because if we don't kill, there will be no meat to eat. Some Buddhists say, "The Buddha prohibited people from killing, but not from eating meat. The Buddha allowed people to eat the meat that is pure in three ways: 1) One does not see the creature killed; 2) one does not hear the creature being killed; 3) the creature was not killed especially for oneself. Eating meat that is pure in these ways is permitted." That is also

a self-justification because such a person basically can not renounce meat.

살생하지 않는 것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 것 또한 살생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살생하지 않으면 먹을 고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불자들은 "부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지했지만 고기를 먹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이 세 가지 방법으로 청정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1) 죽은 것을 보지 않습니다., 2) 죽임을 당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3) 자신을 위해 죽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청정한 고기를 먹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고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또한 자기 정당화입니다.

I met a professor once who could not get by for a single day without eating meat. He said, "Even the smell of meat would relieve my craving for it if I couldn't get to taste it." So you see, each person has his own ideas and views and they are all different.

고기를 먹지 않고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고기를 먹을 수 없다면 고기의 냄새만이라도 고기를 먹고 싶은 욕구를 해소시켜 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각자는 자신만의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은 모두 다릅니다.

WHAT ARE PURE PRECEPTS?

청정한 계는 무엇입니까?

You should pay attention to the word "pure." What does "pure" mean? It means being pure and clean, free from all defilement. Not having the slightest defilement is the kind of purity in which not even a single thought arises.

여러분은 "청정"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청정"은 무슨 뜻이죠? 그것은 순수하고 깨끗하며, 모든 더러움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조금도 더러움이 없는 것은 단 하나의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는 종류의 청정입니다.

Not killing includes purifying our thoughts. If we uphold precepts on the surface and claim that we don't kill, but we complain about others constantly or get angry with people, we are still violating the precept against killing.

살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정화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계를 지키며 살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하거나 사람들에게 화를 낸다면, 여전히 살생에 대한 계를 어기는 것입니다.

Not stealing includes mental states. We don't have to steal physically. When we envy others' wealth or talents, or become jealous of people, we transgress the precept against stealing.

훔치지 않는 것은 정신 상태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훔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나 재능을 부러워하거나 사람을 질투할 때, 우리는 도둑질에 대한 계율을 어깁니다.

Not committing sexual misconduct includes not having improper thoughts about the opposite sex. If we indulge in improper thoughts about the opposite sex, then we are being impure and breaking the precept.

성적인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은 이성에 대해 부적절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성에 대해 부적절한 생각에 빠지면, 우리는 불순하고 계를 어기는 것입니다.

Holding the precepts purely means leading a clean life without any defiled thoughts. That is to hold the precepts purely.

청정하게 계를 지킨다는 것은 더러운 생각 없이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VERSE OF TRANSFERENCE

회향계 回向偈

May the merit and virtue accrued from this work Adorn the Buddhas' Pure Lands, Repaying four kinds of kindness above And aiding those suffering in the paths below. May those who see and hear of this All bring forth the resolve for Bodhi And, when this retribution body is over, Be born together in the Land of Ultimate Bliss.

이 공덕으로 부처님의 정토를 장엄하고, 위로는 네 가지 은혜를 갚고, 아래로는 도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돋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보리심을 발하고, 이 몸이 끝나면 극락토에 함께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원 이 차 공 덕 願 以 此 功 德
장 엄 불 정 토 莊 嚴 佛 淨 土
상 보 사 중 은 上 報 四 重 恩
하 제 삼 도 고 下 濟 三 途 苦
약 유 견 문 자 若 有 見 聞 者
실 발 보 리 심 悉 發 菩 提 心
진 차 일 보 신 盡 此 一 報 身
동 생 극 락 국。 同 生 極 樂 國。

선화 상인이 세운 BTTS(불교문헌번역회)의 웹사이트 주소

<https://www.buddhisttexts.org>

선화 상인의 여러 법문집, 불경강설집 등을 여러 언어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한국으로 운송 보내줍니다.